

시민 중심,
으뜸 정읍

정읍 황토현 전적 위치 고증 및 기념공간 재구성을 위한 학술연구

일시 2025. 10. 23.(목) 14:00

장소 정읍시청 구절초회의실



주최  정읍시

주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소

정읍 황토현 전적 위치 고증 및 기념공간 재구성을 위한 학술연구

개요

- 일시 : 2025. 10. 23.(목) 14:00~18:00
- 장소 : 정읍시청 구절초회의실
- 내용 : 주제발표(3명) 및 종합토론(6명) 등
- 주최 : 정읍시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소

진행 순서

시 간	소요(분)	내 용
14:00~14:20	20'	○ 내빈소개/개회/국민의례/인사말씀
14:20~14:50	30'	○ (주제발표1) 황토현 전투의 전개 과정과 전투지의 위치 고증 - 정수환 (서울대학교 연구원)
14:50~15:20	30'	○ (주제발표2) 정읍 황토현 전적의 기념사업 추이 - 조광환 (동학역사문화연구소장)
15:20~15:50	30'	○ (주제발표3) 정읍 황토현 전적 공간 재구성 및 기념공원 연계 활용 방안 - 백진 (서울대학교 교수)
16:00~18:00	120'	○ 종합토론 (좌장 : 신순철 이사장) - 신영우(충북대 명예교수), 배항섭 (성균관대 교수) - 김양식 (동학연구소장), 박준성 (역사학연구소 연구원) - 남해경 (전북대 명예교수), 홍성덕 (전주대 교수)

목 차

주제발표 1

황토현 전투의 전개 과정과 전투지의 위치 고증	5
정 수 환 (서울대학교 연구원)	

토론 1

황토현 전투의 전개 과정과 전투지의 위치 고증에 대한 토론문	47
신 영 우 (충북대 명예교수)	

토론 2

황토현 전투의 전개 과정과 전투지의 위치 고증에 대한 토론문	55
배 향 섭 (성균관대 교수)	

주제발표 2

정읍 황토현 전적의 기념사업 추이	63
조 광 환 (동학역사문화연구소장)	

토론 1

정읍 황토현 전적의 기념사업 추이에 대한 토론문	91
김 양 식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	

토론 2

정읍 황토현 전적의 기념사업 추이에 대한 토론문	97
박 준 성 (역사학연구소 연구원)	

주제발표 3

정읍 황토현 전적 공간 재구성 및 기념공원 연계 활용 방안	103
백 진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 1

정읍 황토현 전적 공간 재구성 및 기념공원 연계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문	149
남 해 경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토론 2

정읍 황토현 전적 공간 재구성 및 기념공원 연계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문	155
홍 성 덕 (전주대 교수)	

주제발표 1

황토현 전투의 전개과정과 전투지의 위치 고증

발표 정 수 환
서울대학교 연구원

황토현 전투의 전개과정과 전투지의 위치 재검토¹⁾

정수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수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강사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황토현 전적은 1981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그 위치 또한 기록과 구전에 의존해 전해질 뿐 명확히 규명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실제 전투가 벌어진 장소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특히, 2024년 새로 발굴된 「충청남도·전라남북도사료채방 북명서(조선사편수회, 1934)」와 이를 소개한 학술논문(왕현중, 2024), 그리고 한겨레신문 등 주요 언론에 기고된 신문 기사를 계기로 황토현과 만석보 등 동학 관련 유적의 위치가 잘못 전해져 왔다는 논의가 제기되면서 이러한 논란은 한층 심화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존하는 자료와 유구의 부재로 인해 고증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황토현 관련 문헌과 현재 확보 가능한 자료를 수합하여 문헌 상 언급된 장소를 분명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사적으로 지정된 영역 및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의 위치가 이 당시 전투 상황 속에서 어떤 장소였는지 재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충청남도·전라남북도사료채방 북명서(조선사편수회, 1934)」에 기입된 황토치와 기존 학계와의 이해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 그 위치는 얼마나 다른지 등을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황토현 전투에 대한 심층적 이해, 현 사적지 입지의 의미를 밝히고, 향후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 마련 및 제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 선행 연구 검토

황토현 전적의 전개 과정과 실제 위치를 본격적으로 고증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황토현 전투를 1차 동학농민전쟁의 주요 사건 중 하나로 다루었으며, 신순철·이진영(1998), 이이화(1999) 등의 저술이 대표적이다. 또, ‘황토현 전투’ 자체를 집중적으로 탐구한 연구만 살펴보면, 조광환(2011) 조성운(2013), 류재길(2014), 조광환(2020), 홍상표(2023) 등 후대 연구자들이 시대별로 자료를 보완하며 사건의 이해를 위한 연구들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황토현 전투의 전개 과정과 역사적 의의를 밝히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으며, 주요 전투 양상, 관련 인물들의 입장, 전투 진행, 그리고 전투가 벌어진 시·공간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다만 대부분 역사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다보니, 문헌 중심의 연구였고 구체적인 지형이나 위치를

1) 본 연구는 황토현 전적 종합정비계획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연구논문 형태로 작성한 것임

시각적으로 표기하지는 않았다.

특히 조광환(2020)의 연구는 『동학사(東學史)』, 『종리원사부동학사(宗理院史附東學史)』, 『『김기술문서』(金箕述 文書)』, 『동도문변 (東徒問辨)』, 『영상일기(嶺上日記)』, 『갑오약력(甲午略歷)』, 『석남역사(石南歷事)』, 『『임하유고』(林下遺稿)』, 『동비토록(東匪討錄)』 『수록(隨錄)』, 『양호초토등록(兩湖招討膽錄)』, 『양호전기(兩湖電記)』, 『동학당의 난(기쿠치 겐조)』, 『주한 일본공사관 기록』 그리고 이진우의 『지명과 구술: 향토 자료를 통해 황토현 이해하기』 등 풍부한 사료를 바탕으로 전투 과정을 설득력 있게 재구성한 바 있다. 당시 확보 가능한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황토현 전투 상황을 이해하는데 많은 기여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가 2020년에 진행된 만큼, 이후 새로이 발굴된 자료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최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활발한 번역 작업을 통해 새로운 자료들이 추가되었고, 특히 왕현중(2024)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새롭게 추가된 사료 「충청남도·전라남북도 사료채방 북명서 (조선사편수회,1934)」는 함께 포함되어 연구되지는 못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롭게 추가된 자료들과 함께 일대 지역과 지형의 위치와 특히 다양한 정보들을 QGIS를 활용하여 정확한 좌표계에 따라 지도상에 시각화 함으로써 황토현 전투의 전개 및 각 지역 및 지형에 관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기존 연구자들의 문헌과 지도 자료를 토대로 황토현 전투의 전개 과정을 재검토하고, 최근 발굴된 새로운 사료 「충청남도·전라남북도사료채방 북명서(조선사편수회,1934)」에서 장소의 위치 논란을 불러일으킨 ‘황토치(黃土峙)’라는 단어가 표기된 위치와 오늘날 사적으로 지정된 황토현 전적의 위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문헌 분석을 수행하였다. 황토현 전투의 전개 과정에 관한 내용 정리는 조광환(2020)의 연구의 내용을 주된 이해의 기반으로 삼았다. 추가적으로 한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 아카이브에서 ‘황토현’ 및 관련 키워드²⁾를 검색하여 기록을 발췌하여 사료를 추가 및 재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비서류찬 조선교섭자료』 中 「전라도 고부민요일기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16권) 등을 추가되었다.

지도에 관한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과 서울대학교 규장각 데이터베이스에서 확보한 과거 지도를 활용하였다. 특히 국토지리정보원의 종이지도 자료 가운데 일본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제작하였고, 1924년에 출간된 ‘조선지형도(朝鮮地形圖)’는 당시의 자연환경, 도로망,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국가기록원 지적아카이브에서 확보한 1918년 지적원도 1915년에 제작되어 토지

2) ‘두송산’, ‘도교산’ ‘고부’, ‘황토’ 등의 지명과, 주요 인물(이경호)의 명칭 검색하여 문헌을 추출하였다.

지목과 과거 지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아울러, 현대의 자료들인 토포람, 수치지형도, 지명 등 자료를 종합한다. 토포람은 해당 지역의 토질 및 토양 지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지리정보원에 1960년, 70년, 80년 현대의 지도에서도 황토재에 관한 기입이 확인되어 분석자료에 포함한다.

이들 자료를 지리정보시스템(GIS) 소프트웨어인 QGIS로 디지털화하여 좌표계에 정확히 위치시킨 뒤, 전투 전개 과정에서 언급된 주요 지명과 사건을 지도에 표기하여 중첩·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사적 지정 범위와 다보하시 기요시 새로 발굴한 사료를 상호 검증하여, 기존 지식을 통합하고 현재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황토현 전적에 관한 의견 차이를 좁히는 해석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수집한 자료의 전체 목록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연구분석 주요 자료 목록

대분류	소분류	자료명
1 차 자료	동학군측	오지영. 『동학사(東學史) 초고본』 남원군중리원. 『종리원사부동학사(宗理院史附東學史)』 김낙봉. 『김낙봉이력(金洛鳳履歷)』
	관군측	『동비토록』, 『수록』, 『양호초토등록(兩湖招討騰錄)』, 『양호전기(兩湖電記)』, 완영에서 작성한 전라도 고부민란 시초(1894년 4월)
	지역유생	최영년. 『동도문변(東徒問辨)』, 『영상일기(嶺上日記)』, 『갑오약력(甲午略歷)』, 박문규. 『석남역사』(石南歷事)』, 김방선. 『임하유고(林下遺稿)』, 김기술. 『김기술문서(金箕述 文書)』
	일본측	외술회 (1974, 6). 동학 혁명 실화 자료 - 황토현(黃土峴) 전투 기록. 나라사랑, 15, 209-209. (기쿠치 겐조 보부상 취재 기록과 동일) 간나미 하야토. (n.d.) 『백산의 교전』 『갑오조선내란시말』.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5. 63-67 파계생. 『비서류찬 조선교섭자료』 중 「전라도 고부민요일기」.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16권).
2 차 자료	학술논문	조광환. (2011), 황토현 전투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 전북사학회. 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역사적의의. 전북사학회 정음시. 2011 조성운. (2013), 황토현전투의 전개와 역사적 의의. 한국민족운동사학회.(77). 2013.12 조광환. (2020), 황토현전투의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의. 동학농민혁명 126주년 기념 학술대회 홍상표. (2023). 1894년 황토현 전투의 재구성. 2023년 제2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고 지 도	조선시대 지도	비변사인방지도(備邊司印 方眼地圖, 1740년대) 광여도(廣輿圖, 1737-1776) 해동지도(海東地圖, 1750년대 초) 고부 지도 여지도(輿地圖 중 2권 조선 도별도, 1789-1795) 지승(地乘, 1776-1787) 중 고부군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1861) 1872 지방지도(1872年 郡縣地圖, 고부)
	지적원도 (1915)	『전라북도 정읍군 덕천면 우덕리 지적원도』(0-30). 『전라북도 정읍군 덕천면 하학리 지적원도』(0-25). 『전라북도 정읍군 덕천면 상학리 지적원도』(0-19). 『전라북도 정읍군 덕천면 망제리 지적원도』(0-32). 『전라북도 정읍군 덕천면 신월리 지적원도』(0-22). 『전라북도 정읍군 이평면 도계리 지적원도』(0-28).
	지형도	朝鮮總督府 [編] “朝鮮五萬分一地形圖. [20-2-3] : 井邑(群山三號)” 陸地測量部 大正13年 (제작 1914-1917, 배포 1924년) 1960, 1970, 1980 수치지형도

2. 황토현 전투의 전개 과정의 이해

2.1. 제1차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1894.1 고부농민봉기-1894.5 전주화약)



그림 1 동학 농민군 진격로 (출처: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월(음력 기준) ‘고부농민봉기’에서 5월 8일 ‘전주화약 체결까지’를 제1차 혁명으로, 같은 해 ‘5월 청·일 양군의 상륙’ 이후부터 ‘12월 전봉준 장군’이 체포되기까지를 제2차 혁명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황토현 전투’는 제1차 혁명의 핵심 사건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따라서 황토현 전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황토현 전투 이전과 이후의 전개 과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제1차 혁명의 전개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892년 부임한 고부군수 ‘조병갑(趙秉甲)’은 극심한 수탈로 고부 군민들을 고통에 빠뜨렸다. 농민들이 모여 조세 감면을 호소했으나 수탈은 멈추지 않았고, 이에 분개한 농민들은 1894년 1월 말목장터에서 봉기하여 고부 관아를 점령하였다. 사건 직후 조선 정부는 ‘조병갑’을 체포하고, 당시 전라감사였던 ‘김문현(金文鉉)’에게 감봉 조치를 내렸으며, ‘박원명(朴源明)’을 임시 고부 군수에 부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진정된 농민군은 해산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장흥부사였던 ‘이용태(李容泰)’가 ‘안핵사(按覈使)’로 사건의 진상 규명 차원에서 파견되었는데, ‘이용태’ 또한 ‘조병갑’과 마찬가지로 역시 고부에서 학정을 자행하였다. 이에 따라 1894년 3월 20일 전봉준(全琫準)·손화중(孫華中)·김개남(金開南)등 동학대접주들을 중심으로 농민들은 ‘무장(茂長)’에서 ‘기포’하였고³⁾, 같은 해 음력 3월 26일 ‘백산(白山)’에서 결진하였는데, 전라북도 여러 군,

3) 1차 포고문. 『수록』. 무장현에서 동학인포고문을 베껴 올린다 [茂長縣謄上東學人布告文]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 군신과 부자의 관계는 인륜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임금이 어질고 신하는 곧으며,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효를 행한 다음에야 가정과 나라를 이룰 수 있으며, 끝없는 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임금께서는 어질고 효성이 깊고 자애로우며 신명하시고 총애하시어서, 어질고 곧은 신하들이 잘 도와 다스리게 한다면, 곧 요순의 정치와 한나라의 문제와 경제의 치세를 꼭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바랄 수 있다.

오늘날 신하된 자는 보국(輔國)은 생각지 아니하고, 녹봉과 벼슬자리만을 도둑질하며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아첨하는 말을 일삼아 충성스럽게 간하는 선비를 일컬어 ‘요언(妖言)’이라고 하고 정직한 사람을 일컬어 ‘비도

읍을 점령하며 관군과 전투를 전개하였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조정은 ‘홍계훈(洪啓薰)’을 ‘양호초토사(兩湖招討使)’로 임명하고 경군을 파견하였다.

전라감사 ‘김문현’은 ‘이경호(李璟鎬)’를 필두로 하여 ‘영병(감영군)’ 및 ‘보부상부대’, 그리고 ‘향병’(향토의병)으로 구성된 ‘전라감영군’을 파견하였는데, 음력 1894년 4월 7일 정읍·고부 경계에 위치한 ‘황토현’에서 ‘농민군’과 전투가 벌어졌으며, 이때 농민군이 대승을 거두었다. 황토현 전투에서의 대승은 동학농민혁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전투를 계기로 조정도 더 이상 동학군을 쉽게 여기지 않았다.

한편, 동학군은 기세를 몰아 정읍을 점거, 장성 황룡촌에서 ‘경군’을 격파하였으며, 마침내 4월 27일 전라감영이 있던 전주성에 무혈 입성하여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였다. 쫓아온 초토사 홍계훈의 경군을 맞이하여 동학군은 전주성에서 수성하고, 경군은 완산에 진을 치고 공성하여 전투를 벌였다. 경군은 동학군과 화약 체결을 시도하였으며, 동학군은 폐정개혁, 집강소 설치, 신변보장을 철수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초토사도 홍계훈이 이를 수용하면서 마침내 5월 8일 ‘전주에서 화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농민군은 자진 해산하며 제1차 동학농민혁명은 마무리되었다.

이처럼, 제1차 혁명은 조병갑, 이용태와 같은 탐관오리들의 폭정이 계기였다. 보국안민, 폭제구민의 정신이 혁명의 촉발 계기였으며, 구태 타파, 평등 사회 개념을 가진 시민 사회로의 이동 의지⁴⁾의 피력함과 동시에 실제 ‘화약 체결’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보인 근대사적 대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황토현 전투’는 농민군이 전라감영군, 즉 조선 정부군과 벌였던 전투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반면, 제2차 혁명⁵⁾에서는 청·일 양군의 상륙으로 인한 외세의 내정 간섭이 강

(匪徒)’라고 한다. 안으로는 보국의 인제가 없고 밖으로는 백성을 침학하는 관리가 많아져, 백성들의 마음은 날이 더욱더 변해갔다. 안으로는 즐겨 생업을 할 수 없고, 밖으로는 보호하고 베풀어줄 대책이 없다. 학정은 날로 더 심해가고 원성은 서로 이어져, 군신간의 의리와 부자간의 윤리, 상하간의 분수가 드디어 무너져 남은 것이 없게 되었다. 관자(管子)가 말하기를, “사유(四維)가 펴쳐지지 않으면 국가는 곧 망한다”고 하였는데, 오늘날의 형세가 옛날보다 심한 것이 있도다. 공경이하로부터 방백과 수령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처한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자신의 몸을 살찌우고 집안을 윤택하게 하는 계책을 꾀하고 있다.

관료를 선발하는 것을 돈을 벌어들이는 길로 여겨서 과거를 보는 시험장을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으로 모두 만들었으며, 수많은 재물과 뇌물들은 국가의 창고에 바치지 않고 오히려 먼저 사사로이 차지하여 국가에는 부채가 쌓여도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교만과 사치와 음란과 안일에 빠져 두려워하거나 거리끼지 않으며, 전국을 짓밟고 으깨어 만민은 도탄에 빠져 있다. 수령방백의 탐학함이 참으로 그러하니 어찌 백성이 곤궁하지 않겠는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그 근본이 다치게 되면 곧 나라가 망한다. 그런데도 보국안민(輔國安民)의 방책을 생각지 아니하고, 밖으로 고향에 집을 마련하여, 오직 혼자만 온전하기 위한 방도를 도모하고 다만 녹봉과 벼슬자리만 도적질하니, 어찌 옳게 다스려질 수 있겠는가?

우리들은 비록 초야의 유민(遺民)이지만, 임금의 땅에서 먹을 것을 갈아먹고 임금이 준 옷을 입고 있으니, 국가가 위험에 처하여 망하게 된 것을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전국이 마음을 같이하고 수많은 백성들의 의견을 모아 보국안민으로써 죽고살기를 맹세하였으니, 오늘의 광경은 비록 놀랄 일이 있어도 절대로 두려워 움직이지 말고 각기 본업을 편안히 여기며 태평세월을 함께 빌고 모두 임금의 덕화를 기린다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4) 폐정 개혁 12개조 “1. 인명을 함부로 죽인 자는 벨 것, 2. 탐관오리는 발본해서 없앨 것, 3. 횡포한 부호들을 준엄하게 응징할 것, 4. 유림과 양반들의 소굴을 토벌해 없앨 것, 5. 천민들의 군안(軍案)은 불지를 것, 6. 중 문서는 불태워 버릴 것, 7. 백정의 머리에 패랭이를 벗기고 갓을 씌울 것, 8. 무명잡세 등은 혁파할 것, 9. 공적이고 사적인 채무를 막론하고 과거의 것은 모두 시행하지 말 것, 10. 외적과 연락하는 자는 벨 것, 11. 토지는 평균분작(平均分作)으로 할 것, 12. 농군의 두레법은 장려할 것”

화되면서, 구국 충절 정신과 반외세적 저항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1차와 제2차 혁명의 역사적 사건과 그 성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2.2. 황토현 전투에 관련된 진영별 주요 인물의 행적

다음은 황토현 전투의 세부적인 전개 과정을 알아보기에 앞서, 황토현 전투에 관여된 주요 인물들의 정보와 황토현 전투 당시 그 행적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주요 인물들은 1.3에서 정리한 문헌상에서 직접 언급된 인물들로 추렸다.

(1) 동학군 측 주요 인물6)

표 2 황토현 전투 관여 인물 동학군 측 주요 설명

이름	자료명
전봉준 (전명숙, 전녹두)	호서대접주로 농민군의 수장이었으며, 동학농민혁명의 최고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동학군의 대장이었다. “백립(白笠, 흰 베로 만든 갓)을 쓰고 흰옷을 입어 아버지의 상(喪)을 표시했는데, 그 길이가 7척(七尺)이 되지 않았다.”고 묘사된다. 황토현 전투 당시 30세 ‘부장’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가짜 부상군을 만들어 지시하여 후미에 침투시키는 기지를 발휘하였다. 황토현 전투 당시 동학군 본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손화중	손화중은 정읍 태생 무장의 대접주로 ‘김개남’과 함께 총사령 중 하나로 추대되었다. 무장의 동학도 수천 명을 감화시켜 세력을 형성할 만큼 동학의 주요한 지도자였으며, 전봉준과 함께 무장 기포, 백산결진 등을 주도하였다. 황토현 전투 당시 전봉준과 함께 4천명을 이끌고 부안을 점거 하였으며, 부안군수 이철화를 죽이려 하였으나, 부안 접주 김낙철의 설득을 듣고 그를 살려주었다. 황토현 전투 당시 동학군 본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김개남	태인의 대접주였으며, 손화중과 함께 총사령으로 추대되어 전봉준, 손화중 함께 동학혁명당시 3대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다. 황토현 전투 직전에는 동학군이 부안과 태인으로 둘로 나뉘게 되었는데, 태인과 금구 원평까지 진격하는 군을 이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부안에 있던 전봉준-손화중 본대와는 황토현에서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5) 2차 포고문.

“양호(兩湖) 창의영수(倡義領袖) 전봉준(全琫準)은 호서(湖西) 순상[巡相, 충청감사 박제순] 합하(閣下)께 삼가 백 번 절하고 글을 올립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만이 강기(綱紀)를 가지고 있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데, 식언을 일삼고 양심을 속이는 자들은 인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나라에 근심거리가 있는 이때에 겉으로는 꾸미고 안으로는 미혹시키는 자들을 어찌 감히 하늘의 태양 아래에서 한순간이라도 목숨이 붙어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왜구들이 트집을 잡아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의 임금을 협박하고 우리의 백성들을 혼란하게 하는 상황을 어찌 차마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임진년[1592년, 임진왜란]의 병화 때, 농침을 파괴하고 대궐과 종묘를 불태우고 임금을 욕보이고 백성들을 죽인 것은 신민들이 함께 분노하며 천고에 잊을 수 없는 한입니다. 초야에 사는 필부와 어리석은 동자들도 울분을 참지 못하는데 하물며 대대로 벼슬을 살며 나라에 공을 세운 합하께서는 평민이나 필부보다 그 감정이 배나 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정 대신들은 구차하게 목숨을 보전하려는 생각에 위로는 임금을 위협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속이며 동쪽의 오랑캐와 결탁하여 남쪽의 백성들에게 원한을 샀으며 친병(親兵)을 함부로 움직여서 선왕(先王)의 적자(赤子)를 해치고자 하니 이것이 참으로 무슨 의도이며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지금 시생이 하는 일이 지극히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편단심은 죽더라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천하에서 남의 신하가 되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을 소탕하여 선왕조에서 500년 동안 길러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니 합하께서는 잘 살피시어 함께 의를 위하여 죽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갑오년 10월 16일 (印) 논산에서 삼가 올림

(봉투) 금영절하(錦營節下) 하집사(下執事) 입납(入納)

논산에 머물고 있는 의를 위해 달려가는 시생이 삼가 절하고 올림”

6) 오지영. 『동학사 초고본』, 「종리원사부동학사」, 『오하기문』, 완영에서 작성한 전라도 고부민란 시초(1894년 4월), 김낙철역사, 김낙봉이력을 기준으로 작성

이름	자료명
김낙철	‘김낙봉’의 형으로 부안의 접주였다. 그런데, 1차 혁명 시에는 손화중과 전봉준 무리를 경계하고 있었다. 또한, 백산 결진 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부안 현감 이철화의 부탁을 받아 부안의 도소를 설치하여 치안을 유지하였으며, 부안 현감을 해하러 할 때 손화중을 설득하여, 부안 현감이었던 이철화를 오히려 살려주는 역할을 하였다. 김낙봉이력을 살펴보면, 그럼에도 황토현 전투 당시에는 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정일창	황토현 전투 당시 14세로 상장군을 맡고 있었으며, 황토현 전투 직전 대치상황에서 동학군이 관군에 보낸 격문에 명단에 포함이 되어있었다. 완영에서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장검으로 지휘하여 송봉호(사천)과 격돌한 것으로 보이며, 송사천이 정일창을 감당해내지 못하였다고 전해진다.
이일해	당시 ‘말장’으로 30세였고, 마찬가지로 황토현 전투 직전 대치 상황에서 동학군이 관군에 보낸 격문에 명단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해진다.
노성범	당시 ‘모사’로 참전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 나이의 40세로 동학군이 관군에 보낸 격문에 포함되어 있었다.

- ‘최경선’, ‘김덕명’, ‘서두환’, ‘차기석’, ‘권병덕’, ‘이상진’, ‘이유형’, ‘차치구’, ‘정진구’ 등은 당시 동학의 대접주들이자 동학농민혁명의 주역이나, 황토현 전투 당시 직접적인 기록은 없어 문헌 상에서 활약이 파악되지는 않는다. 오지영이 동학사에서 언급한 포고문 및 격문 등에 기술된 인물들 또한 황토현 전투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하 인물들은 1차 사료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 생략하도록 한다.

(2) 관군 측 주요 인물)

표 3 황토현 전투 관여 인물 관군 측 주요 설명

이름	자료명
김문현	전라감영의 총 원수로 전라감사 직책을 맡고 있었다. 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라도 일대의 총 책임자였다. 이경호를 백산으로 출병시켜 동학군을 토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음력 4.7 이경호가 이끌던 감영군이 황토현 전투에서 패하였고, 음력 4월 18~20일 경에 파직당하였으며, 거제도에 유배되었다.
이철화	당시 부안 현감으로 황토현 전투 전 전봉준과 손화중의 무리에 붙잡혀 곤욕을 당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었으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부안 접주 김낙철이 손화중을 설득하여 풀려났다.
홍계훈 (홍재희)	당시 ‘양호초토사’ 동학군을 토벌하기 위해 조정에서 파견한 경군의 수장이었다. 홍계훈이 이끄는 경군은 장성 황룡촌에서 동학군과 크게 맞닥뜨렸으며, 이후 전주성에서 무혈 입성한 동학군을 완산에서 공성 및 포위하여 압박하였다. 또한 전봉준과 전주화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였다. 최영년에 따르면, 황토현 전투 이전(3.28)에 전주성에 당도했는데, 4월 1일에 전주에서 출병하여 백산 및 황토현으로 향하지 않고 장성과 무장으로 나아가 황토현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동학군과 전투하지 않았다고 전한다.
이경호 (이곤양)	금위대장 이장림의 아들로 장수 집안 출신으로 백산 출병 및 황토현 전투에서는 ‘별장’으로 임명된 황토현 전투의 총책임자였다. 문헌에 따라 ‘이곤양’, ‘이비장’이라 표기되기도 한다. 이경호는 “좁은 입구를 파수하여 나루터로 가는 길을 절단하고 산 입구에 병사를 주둔시켜 양곡의 길을 끊으면 10일도 안 되어 우두머리를 잡을 수 있다”며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고, 관군을 평지에 주둔시키게 된다. 전투 중에는 동학농민군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다가 화살과 탄환, 총 칼에 맞아 전사하였다. 조정에서는 이를 용감히 여겨 규례에 따라 ‘병조참의’로 특별히 추증하였다.
최영년	최영년은 황토현 전투 당시 전라감사 ‘김문현’의 군사마로 황토현 전투 당시 일대 진영의 형상을 살피러 간 바 있으며 별장 이경호가 친 진영을 보고 깊게 우려한 바 있다. 동학농민혁명 및 황토현 전투의 내용을 담은 주요 저술인 ‘『동도문변』’의 ‘『백산패적변』’의 저자로 알려져있다.

7) 『수록』, 『동비도록』, 『동도문변』에 기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중복되거나 유사한 이름은 괄호 안에 기입하였음.

이름	자료명
이은승 (이돈승)	이은승은 당시 서기였으며, 비록 관직은 낮았으나 황토현 전투에서 이경호와 함께 자리를 지키다 전사하였다.
유상문	당시 서기로 황토현 전투 당시 이경호를 뒤따라다 사망한 것으로 나온다. 이은승과 동일인일 수 있다.
김암희 (김화형)	황토현 전투 당시 이경호 옆에 있었으며, '유서기'의 시신을 수습하였다
유병직 (유영호)	태인의 전 감역이자 행부보상의 반수로 부상군을 이끌던 자였으며, 황토현 전투 당시 부상군을 이끌고 군의 후미에 있었으나 진문에서 창과 칼에 어지럽게 찔려 전사하였다.
국인목	담양의 수성 별장으로 주요 방어 거점들을 살폈다. 황토현 전투에서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정창모 (정창권)	당시 집사였으며, 황토현 전투 당시 자원하여 몸을 던져 적에게 나아갔으나 별다른 공을 세우지는 못하였고 달아나 돌아왔다.
김달관	황토현 전투 당시 중군 및 신영병방을 겸대 맡았으나 적세를 살피지 않고 도주하여 물러갔다. 최영년에 따르면, 황토현 전투 시 이재한과 함께 감영군 좌익을 맡았으며, 공을 앞다투어 먼저 동학군을 공격하였다는 기록도 존재한다.
이재한 (이재섭)	신영대관으로 황토현 전투 당시 대관 직책으로 고부군에서 탄약 수송 임무를 맡았으나 목숨을 도모하고자 도주하였다. 마찬가지로 최영년의 「백산패적변」에 따르면, 황토현 전투 시 김달관과 함께 감영군 좌익을 맡았으며, 공을 앞다투어 먼저 동학군을 공격하였다는 기록도 존재한다.
유판관 (유수근)	황토현 전투 당시 신영대관 직책으로 이재섭과 함께 고부군에서 탄약 수송 임무를 맡았으나 목숨을 도모하고자 도주하였다.
김명수	「백산패적변」에 기록된 김명수는 금구의 군수이며, 전투를 잘 모름에도 여러 번 동학도와 나가 싸우기를 청하였다. 황토현 전투 당시에는 향관 직책으로 '군량 조달을 잘하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백경찬 (백낙유):	당시 '교장'으로 참전하였다. 전투 당시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달아나 전라감영으로 돌아왔다.
육용규	교장으로 참전하여 군졸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멀리서 바라보고 도망갔다
진영교	백경찬과 함께 '교장'으로 참전하였다. 마찬가지로 도주하여 전라감영으로 돌아왔다
김기술	동학의 태인 대접주 '김개남'과 동본인 태인 태생 '유생'으로 동학군이 아니라 동학군 토벌을 위한 '항병'으로 자원하여 황토현 전투에서 감영군의 증원군으로 참전하였다. 황토현 전투 당시에는 태인현감에게 보고 후 황토현에 당도하여 새벽에 진중에 들었다가 급습한 동학군에 의해 습격을 받고 도주하였다.
송봉호	송사천이라고도 불렸으며, 황토현 전투 당시 전라 좌우도의 보부상 도반수로 관군 측의 이경호와 함께 황토현 전투를 이끌던 주요 인물로 언급되며, 적의 군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 사천군수로도 언급된다.
패잔병1 (부상군)	기쿠치 겐조가 취제한 인물을 표현한 것이며, 부상군으로 전투에 참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황토현 북방 소나무숲으로 도주하여 백산에서 배편을 구해 아산으로 도주했다.
패잔병2	파계생이란 줄포 근방에 거주하던 일본인이 발견한 자로써, 줄포 인근에서 배를 태워달라고 애걸하였다.

(3) 기타 인물⁸⁾

- 오지영(吳知泳, 1868~1950):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직접 참여한 인물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천도교 혁신운동에 종사한 운동가이자 동학사의 저자이다. 그는 전북 고창군 무장면 덕림리에서 몰락한 양반인 오재선(吳裁善)의 장자로 태어나 1891년에 동학에 입교하였다. 『동학사(東鶴史)』는 그가 직접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나름대로 겪은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사실을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서술의 중심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 박문규 (朴文圭, 1879~?): “1879년 고부군 궁동면 석지리에서 태어나 스스로 (석남처사(石南處士)라고 자처하면서 일평생 석지마을을 근거지로 삼고 살다가

8)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사료아카이브, 1차 사료 문헌별 서지 참고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index&code=prd_0002#haejae

그곳에서 죽었다. 그는 8세부터 전봉준이 별인 서당에 나가 천자문을 배우고 유학 관계 서적들을 읽었으며 유학적 식견과 지식을 소유한 농촌 지식인이며,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난 고부 지방에서 당시 체험한 경험을 토대로 이후 회고담으로서 기술한 전문(傳聞) 기록인 『석남역사』를 저술한 인물이다”.

- 황현 : “황현(黃玹, 1855~ 1910)은 조선왕조 말기의 뛰어난 비평가, 시인, 역사학자, 그리고 애국지사였다. 그는 노양(老陽, 지금의 전라남도 구례 지역)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시문(詩文)에 능하였다. 서울로 올라가 벼슬길에 나아가려 했으나, 온통 부정이 판을 치는 것을 보고 벼슬을 단념하고, 세거지(世居地)인 구례(求禮)에 은거하였다. 황현이 작성한 『오하기문』은 1864년부터 1907년까지 조선 말기(구한말까지)의 역사를 월일별로 기록한 저작이다. 특히 갑오년(1894) 부분에서는 고부 봉기에서부터 동학농민혁명의 전 과정과 결말에 이르기까지의 사실을 월일별로 상세히 기록하였다”.

2.3. 황토현 전투의 전개 (1894.04.06.~1984.04.07.음)

이 같은 큰 사건 전개 속에서 벌어진 황토현 전투의 전황은 여러 저자에 의해 기록되어왔다. 후대 학자들은 다양한 저자에 의해 작성된 1차 사료들을 교차 검증하면서, 이 사건에 대하여 구성하는 연구 작업을 진행해왔다. 인물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중 조광환의 연구(2020)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되, 1장에서 전술한 1차 사료를 통합하여 황토현 전투 전후 사정을 더욱 세부적 재구성한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음력 1894년 3월 26일 백산에서 결진한 뒤 동학군은 두 갈래로 나뉘어 서쪽으로는 ‘부안(扶安)’, 동쪽으로는 태인(泰仁) 및 금구 원평(院坪) 인근까지 점령하였다. 4월 1~2일 경에 전주(全州)에서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감영군이 출병하였고, 전라도 각 군과 읍에 격문이 내려져 사방에서 동학군에 관한 추적이 이어졌다. 이 소식을 들은 동학군은 병력을 다시 합쳐 맞서기로 하였으며, 부안과 태인 방면으로 갈라져 있던 양군은 고부 뒷편의 ‘도교산(道橋山)’에서 합세하여 관군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수록』; 『동비토록』; 『김낙봉이력』). 감영군 동학군의 본대를 추격하기 위해 고부의 넓은 도로를 따라 남하하여 추격하였다 (오지영, 『동학사』).

전봉준과 손화중이 있던 동학군 본대는 부안에서 백산으로 다시 모였다가, 감영군이 추격해오자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천태산(天台山)’을 지나, ‘두승산(頭僧山)’ 동쪽 ‘황토(黃土)재’ 근방으로 진을 옮겼다 (박문규, 『석남역사』). 이 때에, 동학군은 높은 봉우리였던 황토현 ‘하봉’에 진을 쳤다. 감영군은 동학군을 추격하였으며, 넓은 평지 및 황토현 ‘상봉’에 진을 쳤으며, 후미였던 ‘상상봉’에는 부상군을 배치시켰다 (『동학사초고본』; 「종리원사부동학사」)⁹⁾.

9) 오지영 『동학사』에서는 동학군이 ‘중봉’, 관군은 거리가 초월한 ‘상봉’에 진을 쳤다고 기술되어있다. 반면, 남원군종리원이 저술한 『동학사』에서는 동학군이 ‘하봉’, 관군이 ‘상봉’, ‘부상군’이 ‘상상봉’에 진을 쳤다고 기술되어 있다.

황토현 전투 당시 관군의 총대장이었던 ‘이경호’는 ‘나루터로 가는 좁은 길목을 차단’할 수 있는 위치이자, 평지에 본대의 진을 쳤으며, 좌익에 ‘이재섭’ ‘김달관’ 군을 배치하였다. 후방에 ‘유병직’ 등이 이끄는 ‘부상군’을 배치시켰다. 전라감사 김문현이 군사마 ‘최영년’을 보내 이경호의 진영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최영년은 산 위에 진을 치고 있는 동학군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우려를 표했다. 이내, 이경호는 중국의 삼국지 위-촉 가정 전투에서 왕평(위나라의 장수, 평지 진지 구축, 관군을 비유)과 마속(촉나라의 장수, 산 위 진지 구축, 동학군 비유)의 빗대어 우려를 불식시켰다 (최영년, 「백산패적변」)¹⁰⁾.

또한 여기에 고부에서 징집된 ‘보부상’ 군, 줄포, 남원, 무장 등 각지에서 부상군이 있던 후방에 합류하여 진지를 구축하였고, ‘김기술’을 비롯한 태인의 향토의 용군들 또한 새벽에 당도하여 황토현 진중에 들어간다 (김기술, 『김기술문서』, ; 외솔회, 동학농민혁명 실화자료-황토현 전투의 기록(기쿠치겐조 기록과 동일); 파계생, 『전라도 고부민요 일기』).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 저녁에는 일대에 안개가 끼어 주변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관군은 ‘소나무’를 베어 전 진영을 환하게 밝혀놓았으나, 이 때문에 연기와 안개가 자욱하여 사방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 (황현, 『오하기문』).

이내 저녁이 되자 황토현 남측 높은 세 봉우리에 한 봉우리만 두고 잠든 척 두 봉우리의 불을 켜다. 동학군이 잠들었다고 판단한 ‘이재섭’과 ‘송사천’ 등 일부 관군의 장수들이 공을 세우기 위해 앞다투어 세 봉우리 중 한 곳을 야습하여 동학군을 먼저 공격하였다. 그러나, 동학군은 이를 이미 알고 진을 비워놓았다가, 공격해 온 관군을 오히려 역습하였다 (류재길, 2014; 조광환, 2020)

또한, ‘전봉준’은 기지를 발휘하여 본격적인 전투 시작 전에 용감한 자를 30~50명 정도 뽑아 목화송이를 꽃아 무장 원병으로 속인 가짜 부상군을 남원 원병 행렬에 합세하여 적 후미에 미리 투입시켜두었다. 가장군이 관군의 본진이 있던 후미에서 함께 공격하자, 일시에 삼면에서 에워싸 감영군 진영은 고립되어 큰 혼란에 빠졌다. 산 위에 있었던 동학군은 산 아래 진으로 쏟아져 내려왔고, 관군의 본진을 습격하였다 (오지영, 『동학사초고본』; 파계생, 「전라도 고부민요 일기」).

전투 중 관군의 총대장 ‘이경호’는 큰 소리를 내어 사기를 진작시켰고, 동학군을 일곱(수십)을 베었으나, 활과 돌, 총에 맞아 전사하였다. 동학군은 보부상군이 진을 치고 있던 후방까지 밀고 들어갔으며, 잠자고 있던 부상군들도 손도 못 써보고 사망으로 도주하거나 격퇴당했다. 부상군 대장 ‘유병직’ 또한 어지러이 창에 찔려 진문에서 전사하였고, 관군은 수천의 사상자를 냈다 (최영년, 「백산패

10) 최영년, 『동도문변』 중 「백산패적변」 “《군사마가》 이경호에게 문기를 ‘저들은 높은 봉우리에 기대고 있고 우리 진지는 평지이다. 비도(匪徒)가 만약 《거꾸로》 세워놓은 항아리 속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듯한 기세로 내려온다면 장차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경호가 말하기를 ‘마속(馬謖)은 높은 봉우리에 기대었다가 패하였고 왕평(王平)은 평지에 진을 쳐서 온전함을 얻었다. 이 또한 하나의 증거이다. 기밀에 이르러서는 오늘 반드시 누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다. 최영년은 마음으로 매우 그렇지 않다고 여기고 돌아와 보고하니, 감사도 그것을 근심하였다.”

적변」; 『수록』 4월 17일).

동학군은 특히 검정 옷을 입고 있던 “감영군과 등에 붉은색 도장이 찍혀있던 부상군들을 중심으로 원수 갇듯이 찢려 죽었으며, 흰옷을 입고 있던 향병은 살려 두었다.”¹¹⁾ “산 아래 너른 들녘에는 봄갈이를 끝내고 물을 받았는데, 아득하니 넓었다. 패잔병들은 물을 보고 뛰어들었지만 물은 깊었고, 진흙은 질어 허우적거리다가 내리치는 창칼에 맞아 피가 땅을 적시고 논물을 붉게 물들였다. 관군이 버린 군수물자가 도로에 가득하였다” (황현, 『오하기문』; 김기술, 『김기술문서』). “보부상 군은 잡자는 도중에 칼을 받아 사망”하거나 “사방으로 도망쳤는데”, 패잔병 중 일부는 “북쪽 소나무 숲으로 도망쳐 겨우 목숨을 구하였다.” “또 동쪽으로 도주하던 군은 셋강을 만나 건너지 못하였을 뿐더러, 동쪽 태인에서, 서쪽 부안에서 합세하던 동학군을 만나 모두 격퇴당하였다” (기쿠치겐조, 『보부상 취재 기록』; 파계생, 『전라도 고부 민요 일기』; 오지영, 『동학사』 초고본).

전투 종합하자면, 백산으로부터 부안-태인 양방향으로 갈라졌던 동학군은 추격해 온 감영군과 전라도 각지에서 몰려드는 관군에 대항하기 위해 고부 도교산 황토현 높은 봉우리에 진을 쳤고, 관군은 지형이 조금 낮은 봉우리 및 평지에 진을 쳤다. 관군 중 일부가 동학군이 진을 치고 있던 봉우리 한 곳을 야습해 먼저 전투가 일어났으나, 이를 이미 알아챈 동학군이 매복하고 있다가 오히려 역습하였다. 전봉준이 후미에 심어두었던 가짜 보부상 군이 본진 및 보부상 군을 공격하며 신호를 보냈고, 삼면을 에워싸 일시에 공격하였으며, 동학군 본대는 보부상 부대가 있던 후방까지 격퇴하면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확정 짓는 형국으로 파악된다.

3. 황토현 전투 문헌에 소개된 지명과 지형에 관한 주요 자료

3.1. 황토현 전투가 벌어진 장소를 지칭하는 ‘용어’의 재검토

다음으로는 문헌상 언급된 장소에 관한 자료 검토를 진행하였다. 동학 관련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방대하다. 이러한 기록물들 가운데 ‘황토현 전투’에 관한 서술은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 다양한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으며, 그만큼 내용 및 용어 사용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특히 저술자의 주체와 소속, 실제 해당 지역 출신 여부에 따라 지명을 정확하게 사용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와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의 ‘사료 아카이브’ 검토 결과, 황토현 전투에 관한 기록은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 동학군 측에서 기술한 문헌, 둘째, 지역 유생이나 지식인들이 남긴 저술, 셋째, 관아의 기록, 전라감영군 및 양호초토등록 등 관군 측이 작성한 문건, 넷째 일본 측에서 사건을 듣고 기록하였거나, 공식적으로 보관한 문건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기록들 속에서 ‘황토현 전투’의 배경이 된 곳에 대해 다양한 지명으

11) 위치와는 거리가 있지만 김기술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인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로 표현되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토현[黃土峴]’ 뿐만 아니라 ‘황토재[黃土砦]’, ‘황토치[黃土峙]’, ‘황토고개’로도 불렸으며, 더 확장된 표현인 ‘황토산[黃土山]’으로도 표현된다. 또, ‘도교산[道橋山]’, ‘두승산[斗升山]’, ‘두등산[頭嶝山]’, ‘승두산[僧頭山]’으로도 거론되기도 한다. 심지어 ‘백산[白山]’¹²⁾으로까지 잘못 표현되고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술자의 출신 지역과 사용 용어에 따라 다음 표 4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표 4 저자 구분에 따른 문헌과 전투지 표기 (사료아카이브 문헌 전체 종합)

전투지(산)의 이름 표기		저자 구분에 따른 문헌 목록			
		동학군 측	지역유생	관군 측	일본
(1) 황토 [黃土]	황토현 [黃土峴]	남원군종리원 (천도교 남원군 종리원) 갑오동학란 (권병덕, 청주)	『김기술문서』 (김기술, 태인), 김낙봉이력 (김낙봉, 부안),		보부상 증언 (기쿠치 겐조, 일본)
	황토재 [黃土砦] 혹은 [黃土재]		『석남역사』 (박문규, 고부)		
	황토치 (황토고개) [黃土峙]	『동학사』 (오지영, 무장)	『임하유고』 (김방선, 부안) 『오하기문』 (황현, 광양)		
	황토산 [黃土山]		『오하기문』 (황현, 구례)	『수록』 (무주 관아) 『동비토록』 (전라도 각지방) 1894년 영문에서 보내는 기별 (조선정부)	비서류찬 조선교섭자료, 전라도 고부민요 일기 (무로다 요시아야; 파계생)
(2) 도교산, 두승산	도교산 [道橋山]			양호초토등록 (홍계훈, 서울), 『수록』 (무주관아), 양호전기, 『동비토록』 (전라도 각지방)	
	두승산 [斗升山] (승두산 [僧頭山])	남원군종리원 (천도교 남원군 종리원)	영상일기 (김재홍, 남원) 남유『수록』 (이복영, 부여)	『동비토록』 (전라도 각 지방)	
	두등산 [頭嶝山]의 안산[案山]			완영에서 작성한 전라도 고부민란의 시초 (전라감영)	
백산 [白山]			『갑오약력』 (정석모, 전주) 『동도문변』 (최영년, 전주) 『금성정의록』 (이병수, 나주)		갑오내란실기-동학 당의 상황, 백산의 교전 (일본)

12) 예컨대 일부 문헌에서는 ‘백산’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황토현 전투를 지칭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동도문변』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용어 혼용 및 오기는 황토현 관련 연구를 진행할 시 자료 해석에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1) 황토현, 황토고개, 황토재, 황토치, 황토산, 상봉, 상상봉, 하봉, 산기슭

전투의 배경이 된 장소의 명칭으로 ‘황토현(峴)’, ‘황토치(峙)’, ‘황토재(岾)’, ‘황토고개’와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 중 실제 전투에 참여하였던 자들의 기록에서 대부분 ‘황토현’에서 사용되어 이 전투를 대표하던 용어로 보인다. ‘동학군’측의 기록이었던, 「종리원사부동학사」에서 ‘황토현’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관군 측에서는 항토 의병으로 참여했던 ‘김기술’ 또한, ‘황토현’이라고 직접 언급하였고, 부안 대접주 김낙철의 동생이었던 ‘김낙봉’ 또한 ‘황토현’이라고 표현하였다. 또, 기쿠치 겐조가 취재하였던 ‘황토현’ 전투에서 살아돌아온 부상군 또한 해당 지역을 모두 ‘황토현’으로 직접 언급하고 있다.

한편, ‘황토현’ 이외에 ‘황토고개’, ‘황토재’, ‘황토치’와 같이 ‘고개’를 지칭하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특히, 황토현 전투가 벌어진 바로 인근에 거주하던 고부군 궁동면 석지리에 일평생 거주했던 고부의 ‘박문규’는 ‘황토(黃土)재’라고 표현하였다. 또, ‘오지영’의 『동학사』 초고본에도 ‘황토치(黃土峙)’라고 표현이 되어있다. 『임하유고』를 저술한 부안의 ‘김방선’과 『오하기문』을 저술한 구례의 ‘황현’ 또한 ‘황토치’ 표현한 바 있다¹³⁾.

또, ‘고개’보다 더 확장된 개념인 ‘산’으로 표현한 경우도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황현의 『오하기문』에서는 ‘황토치’로도 기술하였지만 ‘황토산’¹⁴⁾으로도 표현했다. 또, 고부에서 30리 정도 떨어진 줄포 인근에 거주하던 ‘파계생’이라는 필명을 쓰던 일본인이 저술한 「전라도 고부민요일기」 문헌이 있는데, 이 문헌은 당시 저자가 실제 관군의 패잔병과 만나게 된 일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는 관군과 동학군의 전투가 일어난 곳을 ‘황토산’이라고 언급¹⁵⁾하고 있다.

(2) 도교산, 두승산, 승두산, 두등산의 안산

관군 측 기록(『수록』, 『동비토록』, 『양호초토전기』, 『완영에서 작성된 문건』)에서는 전투지가 보다 포괄적인 단어, 즉 ‘산’으로 표현한 것이 많이 발견된다. 수록, 『동비토록』 등의 문헌에서는 ‘도교산(道橋山)’, ‘두승산(斗升山)’ 혹은 ‘승두산(僧頭山)’으로 나온다.¹⁶⁾ 또 신뢰도는 낮은 문헌으로 평가받지만, 완영에서 작성한 문건에서는 ‘두등산(頭嶺山)’의 안산(案山)’으로도 표현되어 있다. 또한, 관군 측 문서였던 ‘『동비토록』’의 ‘13일 진시 완백’ 문건에서는 “황토산이

13) 따라서 유생·지식인들의 기록은 전투지를 특정하는 데 혼란을 줄 수 있으나, 동시에 각 지역 사회에서 황토현 전투가 어떻게 기억되고 전승되

14) 황현. 『오하기문』. “7일, 관군은 적을 추격, 고부 황토산까지 왔다가 연달아 패하였다.”

15) 파계생. 『비서류찬 조선교섭자료』 중 전라도 고부민요일기 “아침 패주하여 온 병사들이 빈번히 배를 구하려고 애걸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얼마 안 있어서는 자신이 타고 있는 배에도 왔는데, 처음에는 어느 편의 군대인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언덕으로 도망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작은 길로 달음질쳐 오는 자 등 그 수가 200여 명이 되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30리쯤 떨어진 고부의 황토산(黃土山)에서 격전이 벌어졌는데 경군이 대패하여 사상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걸어서 도망친 병졸은 겨우 몸만 빠져나왔다는 것이다. 도망쳐 온 패잔병들은 이날 아침 우연히 세미(稅米)를 실으러 온 조선 기선에 구조되어 그날 인천으로 출발하였다.(해제 : 황토현 전투와 패잔 정부군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16) 두승산이 도교산이라고 불렀다는 의견도 있는데, 두승산의 다른 이름은 영주산 혹은 도순산 등으로 불렸다. 이런 의견은 다른 지명에서는 찾을 수 없고,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의 ‘해제’에서만 나온다.

바로 도교산”이라고 밝히는 대목도 확인이 된다.

(3) 백산(白山)

황토현 전투의 배경이 된 장소로 ‘백산(白山)’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다. 표현은 백산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내용은 황토현 전투를 이야기하는 문헌들이 존재해, 당시 사람들의 오기인 것이 분명해보인다. ‘백산’으로 표현한 기록의 저자들은 대부분 ‘전주 지역’ 출신 유생들과 일본 영사관 측 기록에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황토현 전투 당시 전라감사 ‘김문현’의 군사마였던 ‘최영년’이 저술한 ‘『동도문변』’ 중 「백산패적변」의 문헌이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문헌은 당시 황토현 전투의 패배에 관해 자신과 김문현에 관한 변호를 기록한 것인데, 전투가 벌어진 지명을 ‘백산’이라고 잘못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동도문변』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영년’은 ‘김문현’의 지시에 따라 황토현 전투 당시, 진영을 실제 방문하여 둘러보았고, 이에 대해 책임자였던 ‘이경호’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에서 황토현 전투의 상황과 진영과 전쟁 당시의 모습을 매우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갑오약력』을 저술한 전주의 유생 ‘정석모’, 『금성정의록』을 저술한 나주 출신 ‘이병수’ 또한 마찬가지로 ‘백산’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백산’이라고 기록된 일본 측의 기록은 ‘『갑오조선내란시말』’·『백산의 교전』’과 『동학당의 상황 중 ‘전주민란의 근황’』에서도 전투의 배경이 된 곳을 ‘백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추측컨데, 당시 전라감영 및 정부 측 공식 문건에 백산이라고 전달되면서 일본 측에도 백산으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착오는 앞서 밝혔듯 전주 지역에서 감영군이 동학군을 토벌하기 위해 백산으로 **최초** 출병하였는데, 여기에 따른 대표성으로 황토현 전투의 장소를 ‘백산’으로 혼동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본다.

3.2. 주요 지도 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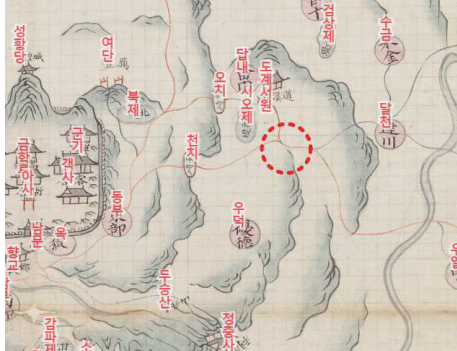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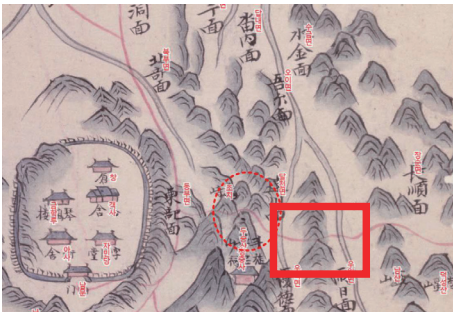
본 연구가 진행된 시점 (2025.10.01.)까지 2024년 보고된 『1934 조선사편수회 충청남도·전라남도 사료채방 북명서』 이외에 고지도 상에 황토현 전적의 위치에 지명이 정확하게 표기된 지도는 없었다. 고지도에 주요 사건이 일어난 장소 표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시대 작성된 과거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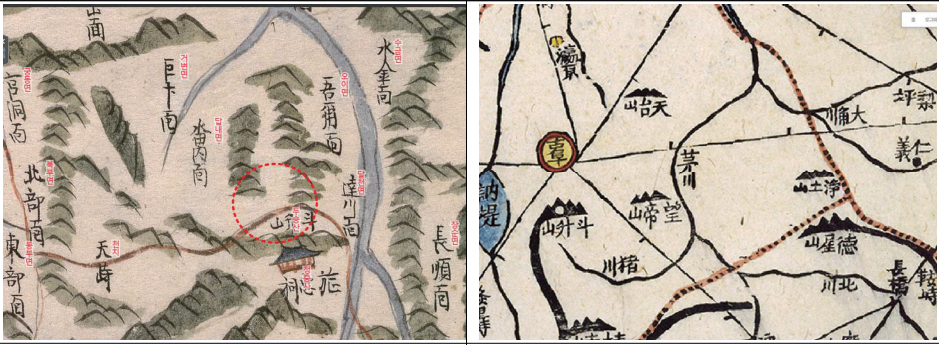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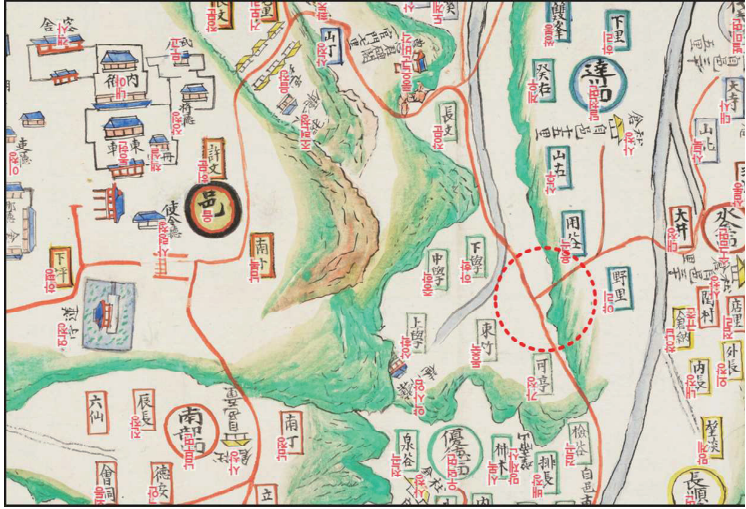
황토현 지역 인근 지역인 고부와 정읍의 경계 지역이 확인 가능한 지도들 중 가장 가까운 시기에 제작된 지도들을 분석하였다. 『비변사인방지도(備邊司印 方眼地圖, 1740년대)』 『광여도(廣輿圖, 1737-1776) 해동지도(海東地圖, 1750년대 초) 고부 지도』 『여지도(輿地圖 중 2권 조선 도별도, 1789-1795) 『지승(地乘,

1776-1787)』 중 『고부군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1861), 『1872 지방지도(1872年 郡縣地圖, 고부)』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조선시대 지도에는 황토현이라고 표현된 지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대부분의 지도에는 고부군 동쪽편을 '두승산' '과' '망제산' 등은 기입해놓은 모습이 발견된다¹⁷⁾. 이에 따라 왜 감영군이 이 지역을 표현할 때 '두승산', 두등산의 안산이라고 표현했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비변사인방지도를 보면 가정에서 고부로 넘어가는 고개의 표현으로 '천치'라는 부분이 기입되어 있다. 대부분 두승산 지류에 관한 그림 표현은 되어있었으며, 덕천천과 태고로, 정읍으로 뻗어져가는 길은 표기가 되어 있었다.

표 5 고지도 자료 검토결과

표현 부분	비변사인방지도(備邊司印 方眼地圖, 1740년대) 	광여도(廣輿圖, 1737-1776) 
결과	1) 황토현 지명 표기 X, 2) 천치와 도계서원, 달천면과 우일면을 잇는 도로가 모이는 곳이 현 사적지의 위치로 파악됨	1) 황토현이라는 지명 자체는 없음 2) 인근 지점 '두승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정충사가 함께 위치한 것으로 보았을 때 지도상으로 상당히 많이 축약되어 있음
	해동지도(海東地圖, 1750년대 초) 고부 지도 	여지도(輿地圖書 2권 조선 도별도, 1789-1795) 
	1) 황토현이라는 지명 자체는 없음 2) 인근 지점 '두승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정충사가 함께 위치한 것으로 보았을 때 지도상으로 상당히 많이 축약되어 있음.	1) 황토현이라는 지명 자체는 없음 2) 인근 지점 '두승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정충사가 함께 위치한 것으로 보았을 때 지도상으로 상당히 많이 축약되어 있음
표현 부분	지승(地乘, 1776-1787) 중 고부군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18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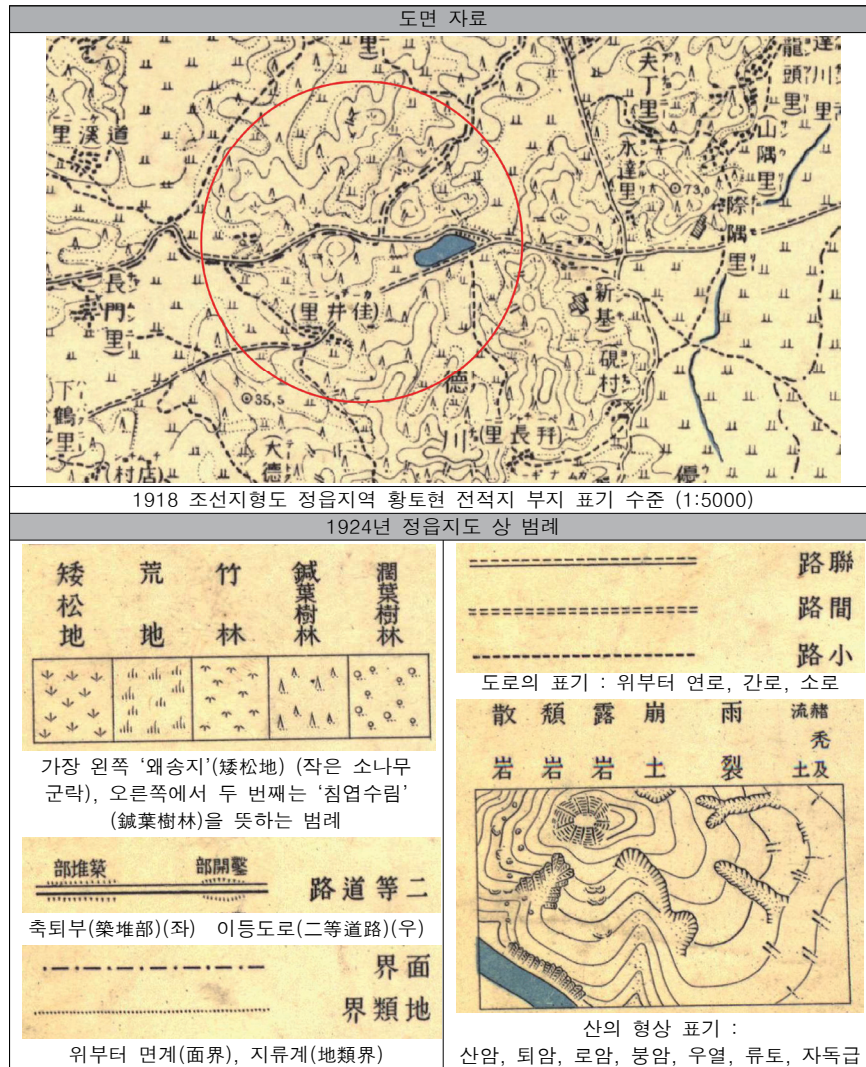
17) 그러나, 도교산이라는 명칭은 확인할 수 없다.

	
결과	1) 황토현이라는 지명 자체는 없음 2) 인근 지점 '두승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정충사가 함께 위치한 것으로 보았을 때 지도상으로 상당히 많이 축약되어 있음 1) 황토현이라는 지명 자체는 없음 2) 마찬가지로 '두승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음 두승산, 망제산(현 망제봉) 등이 표기되어 있음
표현 부분	1872 지방지도(1872年 郡縣地圖, 고부) 
결과	1) 황토현이라는 지명 자체는 없음 2) 시목, 가정, 동죽, 우덕면, 등 주변 지형과 지명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표기되어 있으나 황토현 지명 표기 없음

(2) 조선지형도(1914~1918)

일제가 작성한 조선지형도는 황토현 전투가 있었던 1894년으로부터 20년 지난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지형지물을 근대화된 방식으로 1:50,000 축척을 통해 작성되어 있다. 전투 시점과는 20년 가량 시간 차이는 감안해야겠으나, 가까운 시점의 지형, 수목대, 지물 등을 매우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지형도에는 침엽수림, 강, 못, 건물 및 마을의 위치 등이 파악가능하다. 다만, 1914년 행정통합조치로 행정구역이 현 시점 그리고 조선시대 '고부군 우덕면'이었을 당시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서 파악해야 한다

표 6 1918 지형도 정읍지도



해당 지도의 범례를 기반으로 당시 존재했던 '지류계'등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대상지 일대의 등고 및 표고가 나타난 지도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그래픽 화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지도상에서 현재 황토현 전적 봉우리가 등고선 형태로 확인되며, 태고선이 과거 간선도로 기능을 했던 '연로'로 표현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 1915 지적원도

조선토지임시조사국이 제작한 1915년 지적원도 또한 유효한 자료인데, 앞서 설명한 지형도는 '하천', '수중'과 '등고', '건물'에 집중한 반면, 지목이 적혀있어 그 땅에서 당시 사람들의 활동을 매우 세밀하게 유추할 수 있다. 야산과 사람이 사용하던 필지를 구분할 수 있다. 또 행정구역의 경계를 설정해놓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구역이 확인 가능하다. 다만, 1894년 당시의 기록과 행정구역 상 차이가 이를 확인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1914년 행정통합 조치로 인해 정읍시로 편입되면서 그 체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달천면으로 편입되어 상학리, 하학리, 우덕리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을 살펴 보아야 한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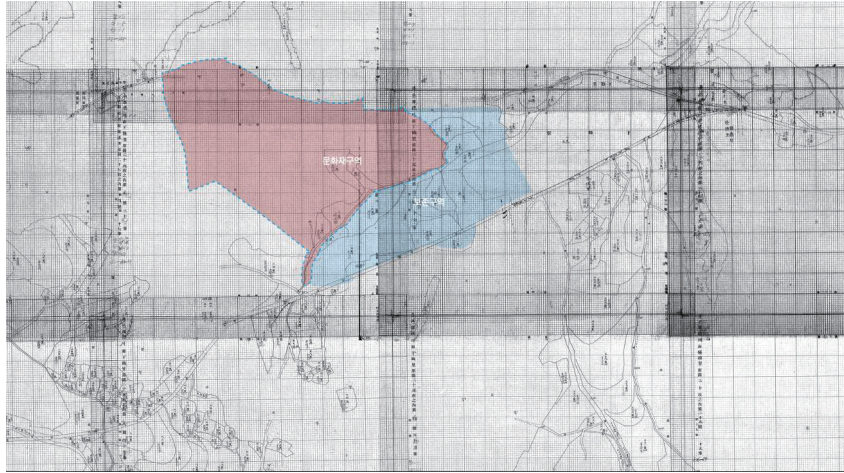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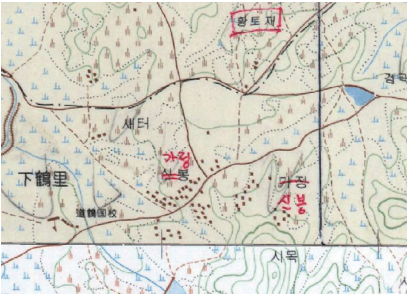


그림 2. 황토현 전적 인근 1914~1915 지적도 취합 이미지
(출처 : 지적아카이브에서 취합하여 연구진이 이미지 합성 진행, 해당 지역은 덕천면 하학리, 상학리, 우덕리, 신월리, 이평면 도계리 등 다섯 개 지역이 겹쳐 제작)

18) 망제리 인근까지 조사가 필요하나 2025년 국가정보자산센터 화재로 인해, 해당 자료의 구독이 일시적으로 불가하여, 해당 자료는 학술발표대회 당일에 추가 보완하도록 한다.

그림 3 1956 항공사진, 전적지 인근에 논물이 있었던 곳이 확인가능하다.

(5) 1960, 70, 80년대 지도

표현부위	1960년대, 표기수준 25K 	1970년대, 표기수준 25K 
	1) 황토재의 이름이 현재 사적지 북쪽에 표기	1) 황토재 표기가 여전히 대상지 북쪽에 표기

- 19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제공하는 ‘흙토람’은 토질과 토양, 경사등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이다. 이를 통해서 해당 지형이 어떤 곳인지 지형을 확인해보면, ‘두승산’, ‘백산’, 그리고 ‘천태산’은 ‘암쇄토’로 표현되고, ‘망제봉’부터 ‘황토색(적황색)’으로 된 토양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 산악지와 급경사지(붉은색, 주황색)로 판명되는 곳은 ‘두승산’, ‘망제봉’과 ‘매봉’, ‘시루봉’ 일대이며, 현 사적지 영역은 ‘구룡지’(녹색)로 표현된다.

(7) 현대 수치지형도 기반 표고분석



그림 4 황토현 전적과 인근 주요 봉우리들의 표고

현재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과 남부 망제봉부터 황토현 전적이 있는 매봉, 시루봉, 사시봉, 봉우리들이 하나의 산세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봉은 100m~111m, 사시봉 영역은 90m, 소리개재 인근 봉우리는 85m, 아울러, 시루봉 102m 정도의 표고를 보인다. 천곡 인근 봉우리는 115m로 표기되어 있다. 황토현 전적 기념탑이 존재하는 영역의 봉우리 고점은 50m, 그 동측편 봉우리는 45m의 표고를 나타낸다. 참고로, 평지부는 16m, 망제봉은 235.1m, 동죽산은 223.2m에 해당한다.

3.3. 문헌상 기록된 동학군-관군의 동선과 진형

다음은 동학군과 관군의 진영 및 전투 장면, 이동 동선에서 드러난 주요 묘사를 검토하였다.

(1) 전쟁 이전 각 군의 주요 이동 동선

- 동학군 : 동학군은 두 부대로 갈라져, 부안을 점령하였던 전봉준·손화중이 있는 본대와 김개남이 있었던 태인 부대 크게 둘로 갈라져 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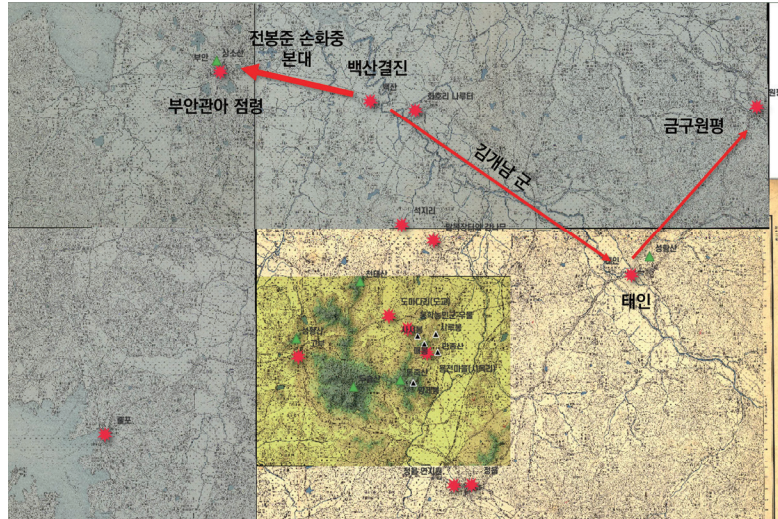


그림 5 동학군 주요 동선 추정 1 (백산 결전 이후 부안, 태인 점거). 저자가 QGIS상 표기.

본대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백산으로 이동하였다가, 감영군과 조우하였고, 이에 거짓 패한 척을 하며 남하하여 “천태산을 넘어” “황토현의 높은 봉우리”로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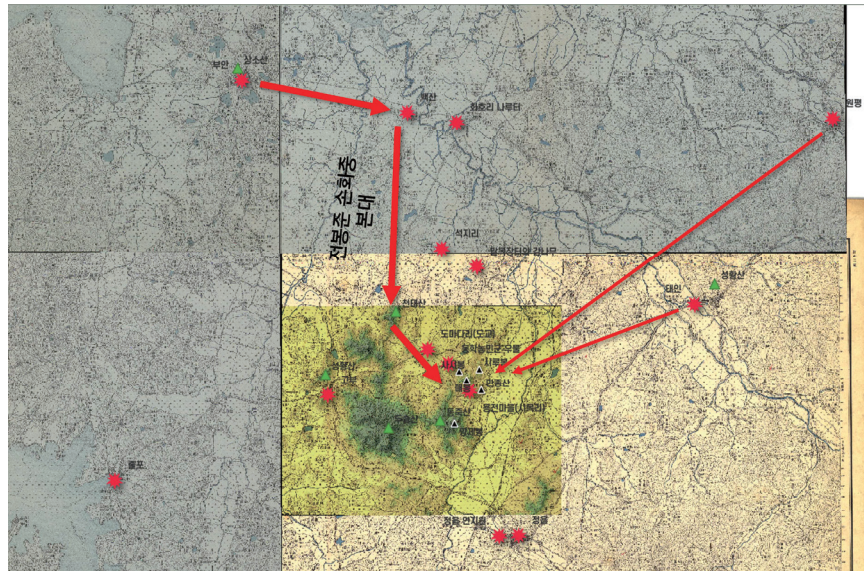


그림 6 동학군 주요 동선 추정 2(감영병 출병 후 황토현 도교산 합류). 저자가 QGIS상 표기.

아울러 태인과 금구로 진격했던 동학군은 용산 등에서 숙영하고 황토현 진으로 합류했다.

- 관군 : 감영군 본대도 백산으로 출병하였다가, 남하하여 ‘본대’를 따라 “고부군의 넓은 도로를” 통해 추격하였으며, “고부군 궁동면 석지마을”을 지나 황토현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오지영, 『동학사』; 박문규, 『석남역사』). 또 ‘태인’과 ‘줄포’, ‘고부’, ‘남원’, ‘담양’ 등에서도 부상군이 황토현의 관군 영진으로 합류하였다 (과계생, 「전라도 고부민요일기」; 오지영, 『동학사』; 김기술, 『김기술 문서』; 기쿠치 겐조, 「보부상 취재기록」). 고부와 줄포의 군대의 경우, 고부를 지나 황토현 기준 서측편에서 진입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남원과 담양의 원병의 경우 황토현을 기준으로 남동 측면에서 진입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즈음, 전봉준이 투입한 보부상 가장군이 함께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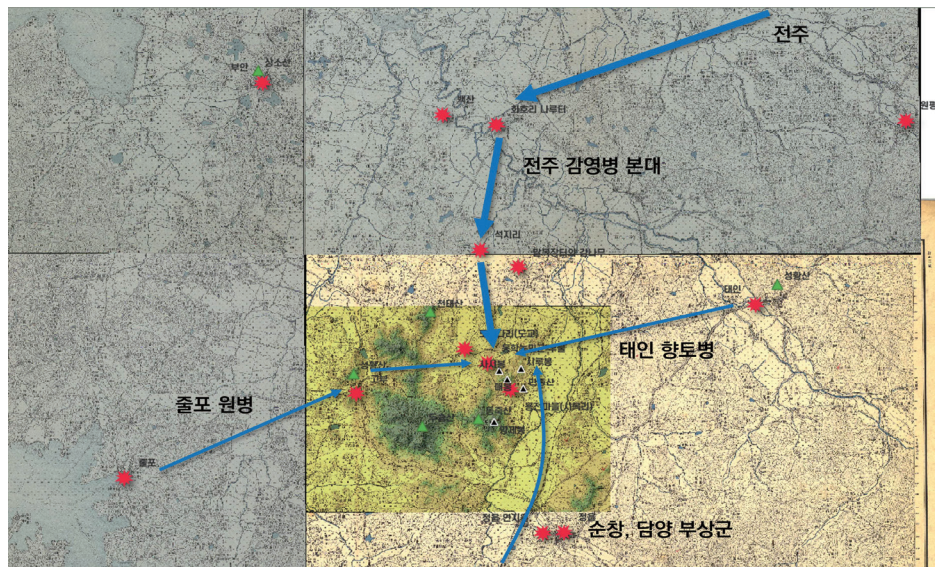


그림 7 관군의 중요 추격 동선 추정 (감영병 출병 후 황토현 도교산 합류).

(2) 동학군 및 관군의 진형에 관한 묘사

- 동학군 : 높은 산에 웅거, 가채와 흰색 베를 쌓아 만든 토성

“동학군은 높은 산”에 진영을 펼쳤으며, “또 산 위에 진을 치고 밖으로는 흰 베를 둘러싸고 몰래 토성(土城)을 쌓은 뒤에 안에 마른 풀을 깔아 그 아래에 몸을 숨기고 포를 쏘았다”고 하며, “깊으로 가성을 만들었다”고도 기록되어 있다(『동비토록』中 15일 진시 전라감사의 비밀전보; 과계생, 「전라도 고부민요일기」) 또 류재길(2014)에 따르면 세 봉우리를 점거하여 진을 쳤다가 그 중 한 곳의 불을 꺼 관군을 유도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오지영, 『동학사』; 류태길(2014); 조광환(2020)).

- 관군 : 낮은 곳, 평지, 좌측 진영, 후미에 부상군

관군은 평지에 진을 치고, 동학군의 진지보다는 지형이 낮은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상봉 및 상상봉으로 표현된다. 또 “중봉에 접근하기 어려워 거리가 초원한 상봉에 진을 구축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오지영, 『동학사』; 최병현, 「종리원 사부동학사」). 또한, 나루터로 가는 좁은 입구를 파수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 소나무를 베어 불을 환하게 켤 수 있는 곳이어야 했다. 이경호가 있던 본대 중심으로 “좌익에는 이재섭-김달관, 후미에는 유병직을 필두로 한 부상군을 배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최영년, 「백산패적변」). 즉, 감영군 본대는 평지에서 좁은 입구를 파수하며, 후방에는 낮은 봉우리가 입지하여 이 언덕에 부상군 부대가 언덕에 진을 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3.4. 전투 전개 중 주요 지점과 지형의 모습에 관한 표현

문헌과 구전에는 전투지 지형의 모습에 대해서도 표현이 있다. ‘손소락등’, ‘솔밭같이 생긴’, ‘엮어놓은 쟁반’ 등이라는 ‘황토현 북방 소나무 숲’에 관한 묘사도 나온다. 또 주변에 ‘밭갈이를 끝낸 논물을 받아놓았다’ ‘찹찻이 쌓인 바위산에서 떨어졌다’, ‘피내보’ 이런 표현들과 언급들이 실제 지형과 자료들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그 자료를 종합한 것이다.

(1) 1차 사료에 언급된 지점 및 지형

- ‘궁동면 석지마을’

『석남역사』의 저자 박문규는 자신이 살던 ‘마을’에 동학군을 추격하던 ‘관군’이 당도하였고, 관군을 위해 식수를 마련해주었다는 기록을 남겼다. 이 마을의 이름은 석지마을로 ‘고부군 궁동면’에 위치하는 곳으로 현재 주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로, 이는 ‘화호리 나루터’(현재 명확한 위치 존재 X) 및 백산 부근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평야 중간에 위치하는 곳이며, 현 황토현 전적 위치의 서북쪽에 해당한다. 이 위치는 관군이 본대를 쫓아 평지의 큰 도로를 따라 남하하였다는 『동학사』에서의 오지영의 서술과 동선상 부합하는 장소이다.

- ‘너른 들녘과 넓게 펼쳐진 물’

관군의 진지는 평지였으며, 봄철이라 밭아놓은 물이 매우 넓게 펼쳐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황현’의 『오하기문』에서는 “또 산 아래 너른 들녘에는 봄갈이를 끝내고 물을 받았는데, 아득하니 넓었다. 패잔병들은 물을 보고 뛰어들었지만 물은 깊었고, 진흙은 질어 허우적거리다가 내리치는 창칼에 맞아 피가 땅을 적시고 논물을 붉게 물들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전투지 일대에 못, 저수지, 제 등이 인근에 함께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황토현 전적 일대에는 ‘제’들이나 ‘못’들이 많이 발견되어 사실일 것으로 보인다.

- ‘도로변에서 이루어진 전투’

황현의 『오하기문』에서는 “관군이 버린 군수물자가 도로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 전투지 인근에 주요 도로가 위치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황토현 전적이 위치한 곳은 고부-태인을 잇는 ‘태고선’(연로, 당시 간선도로 역할)이 지나가는 곳이며, 북으로는 말목장터와 도계를 잇는 도로선 또한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이다.

- 황토현 북방 소나무 숲과 동쪽의 작은 냇강

기쿠치 겐조의 황토현 전투 참여 보부상 취재기록에 따르면, 보부상의 도주로를 표현 시 ‘황토현 북방 소나무 숲’을 지나 목숨을 건졌으며, 동측으로 도주한 다른 부상군은 냇강을 만나 건너지 못하고, 태인에서 합류하던 동학군에게 격퇴당했다고 전한다. “나는 황토현 북방 소나무 숲 가운데 숨었다가 겨우 길을 찾아 백산 서쪽 해안까지 달아나 배편으로 아산 방면으로 나와 목숨을 건졌다. 동방으로 달아난 자는 동학군 타 부대의 습격을 받았고, 도처의 수리(水利) 크리이크로 인해 건너지 못해 7일 미명경까지 패망, 살해당했다” (기쿠치겐조, 보부상취재기록). 문헌 상 실제 황토현 전적의 위치상에서 북측에는 소나무 대 수림이, 동측에는 냇강이 있으며, 태인현에서 합류하던 동학군이 당도하기 적절하게, 태고선 도로가 황토현 동측으로 이어져있다.

- 바위 낭떠러지

「종리원사부동학사」에 기술된 내용을 살펴보면 “두승산 동측 여러 층으로 쌓인 바위 낭떠러지로 무너져 도망가니 사상자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더라.”로 기록되어 두승산 동쪽에서 낭떠러지로 뛰어내려 사망한 자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관군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주했고,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흩토람에서 파악한 사시봉의 동측면이나 매봉, 시루봉 등 급경사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검사봉’(劍死峰)과 ‘손소락등’(孫小落登)

고부 출신 박문규의 『석남역사』에 따르면, 관군은 ‘검사봉(劍死峰)’에 진을 쳤다가 패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다만, ‘검사봉’이 어디인지는 현재 문헌과 지도상으로는 파악이 불가하다. 인근에 1872 지방지도, 고부군에 ‘검곡’(檢谷)이라는 지명이 우덕리 근방에 기입되어 있으나, 한자가 다르고 그 위치 또한 정확한 지점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역사지리정보서비스, n.d)²⁰⁾.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실제 지명 및 구전 등 향토자료를 더욱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또 관군이 진을 친 황토치의 산봉우리에 대해서 황현은 『오하기문』에서 ‘손소락등’(孫小落登)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 또한 현재 지명에

20) <https://kyuhgis.snu.ac.kr/> 에서 ‘검곡’ 검색

서는 확인이 불가하여 향토자료 및 구전과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

- ‘술밭같이 생긴 산’, ‘쟁반을 뒤엎어 놓은 것 같았다’.

산의 모습을 표현한 정족(鼎足) 즉, 술밭같이 생겼다고 표현한 부분이 있다. 이 말 또한, 동학군이 진을 치고 있던 산의 봉우리를 표현한 것인지 지도 상 세 부분이 돌출되어 나온 모습을 표현한 것인지는 현재 있는 자료로는 알 수 없다. 또, 일본군 자료에 따르면 전투의 진형을 묘사할 때 마치 ‘엎어놓은 쟁반’ 같이 생겼다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 아래에서 설명할 사시봉 또한 유사하게 생겼으며, 먼 발치에서 황토현의 전체 산세를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 표현이 백산과 혼동되었던 것일 수 있어,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기존 동학농민혁명 데이터 베이스상 구전 기록

- ‘사시봉’²¹⁾

사시봉은 ‘동학군 진지’로 유력하게 언급되는 곳이다. 황토현 전적 남쪽, 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뒷편에 존재하는 봉우리이다. 매봉 서측, 망제봉 북측에 존재하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적 정보에서는 “황토현 전투 당시 진압군은 황토재에, 동학농민군은 사시봉에 진을 치고 있었다. 현재 사시봉에서 전투 당시 사망자들의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증언이 있어 유해 발굴의 필요가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 사시봉은 사유지로서 측사와 방목장, 과수원 등에 둘러 쌓여있어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한다.

- ‘동학군 우물’²²⁾

가정마을에는 1864년 조성된 우물이 또한 존재한다. 이 우물은 동학군이 식수와 취사에 사용하였었다는 마을 어르신들의 증언이 존재한다. 위치는 사시봉 위치 서북쪽 방향으로 약1km 이내 거리에 매우 가까이 존재하고 있다.

- ‘피내보’²³⁾

황토현 전적 근처 망제리에 살고 있던 최관도 후손 유족 최낙진의 증언에 따르면 과거 마을에 큰 전투가 있었던 것 같으며, 어릴 적 ‘피내보’라고 부르던 보

21)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n.d). “정읍 사시봉 동학농민군 주둔지”. 동학농민혁명 아카이브-유적지정보. URL <https://1894.or.kr/main/?menu=95&mode=view&no=310&keyword=%EC%82%AC%EC%8B%9C%EB%B4%89>

22)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n.d). “정읍 덕천면 동학농민군 우물”. 동학농민혁명 아카이브-유적지정보. URL <https://1894.or.kr/main/?menu=95&mode=view&no=311&keyword=%EB%86%8D%EB%AF%BC%EA%B5%B0%20%EC%9A%B0%EB%AC%BC>

23) 김양식. (1997). 다시피는 녹두꽃 중 최관도 증손 낙진 증언. 동학농민혁명 아카이브-증언록. URL <https://www.e-donghak.or.kr/archive/?menu=135&mode=view&no=15>

“그런데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와서 지휘를 하는 거야. 동학 때 우리 마을 앞에서도 엄청난 싸움을 했던 것 같아. 왜 그런고 하면, 우리 마을 밑에 피내보라는 보가 있었다고. 그전에 우리가 들을 때는 피내보 피내보 무심코 들었는데, 근간에 어느 사학자 보고 물어봤더니 옛날 **동학 때 그 앞에 피가 내를 이루어 내려와서 피내보래. 만석보 자리에서 상류 쪽으로 한 육 키로 올라와서 피내보라는 데가 있다고. 우리 어려서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버렸어.**”

가 있었는데 현재는 없어졌다고 전한다. ‘만석보로부터 상류 쪽으로 6km 즈음 위치에 있었으며, 지금은 없어졌다’고 전하는데, 현 사적 영역 인근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내 복원된 못지가 있는 곳으로 추정된다. 이 장소는 1918 지형도 및 1915 지적원도 상에도 못지가 크게 형성되어 있었으나, 1956년 항공사진에서도 확인이 된다. 그러나, 1960-1980년 지도를 확인해보면 점차 축소되었다가 오늘날에는 매립되어 없어졌다. 최낙진 씨의 증언과 유사하게, 실제 지도상 거리를 측정해보면 만석보 유지비로부터 상류 방향으로 5.8km 거리에 위치한다. 아울러, 항공사진 분석에서 확인가능한 것처럼 우천 시 황토물이 아래로 흘러 보를 이루던 물이 모여있는 곳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만약 사시봉과 황토현 전적 봉우리에서 격렬한 전투가 이뤄져 사망자들의 피가 내처럼 흘러 아래 지(池)에 모였을 경우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른 주변의 제들일 수도 있겠으나, 오히려 과거에는 표기되지 않았다가 존재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피내보’로 불렸을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황토현 전적 동측에 존재했던 보가 유력해보인다.

- 도마다리(도계교)

‘도마다리’ 혹은 ‘도계’라고 불리는 조그마한 다리는 도계리와 하학리 경계이자 황토현 전적의 서측 부분 태고로가 실개천인 덕천천을 가로지르는 곳에 위치한 다리로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옛다리가 존재한다²⁴⁾. 조광환(2020) 또한 도교산의 위치가 도마다리와 관련 있을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본 연구자 또한 ‘도교산(道橋山)’이 황토산’이라고 불린 것으로 보아 도계교가 위치한 근방의 산으로 불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²⁵⁾. 이 다리는 고부와 태인을 이으며, 현 황토현 전적을 지나는 ‘태고선’과 덕천천이 만나는 교통상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4. 충청남도·전라남북도 사료채방 복명서 (조선사편수회, 1934) 자료 분석

다음은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사료채방 복명서 자료에 관한 분석이다.

4.1. 지도상 ‘황토치’에 표기 내용

다보하시 기요시는 ‘황토치’를 고부 동죽리에서 망제리로 이어지는 길로 적어 두었다. 다만, 고부-태인으로 가는 태고로를 표현하다가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는

24) 뿌리기픈. (2010). 우리고장, 정읍이야기-도마다리와 도계마을. 티스토리 블로그 글에서 발췌. <https://ppuri1.tistory.com/16900472>

25) ‘도교산’의 명칭에서의 도교의 한자가 ‘道橋’로 ‘길 도’와 ‘다리 교’자를 쓰고 있으며, 인근에 도계리도 존재한다.

1918년도 지형도에 태고선은 매우 굵게 표현되어 있는 것과 대조된다.



그림 8 다보하시 기요시의 사료채방서

(붉은색 황토치(黃土峙)와 현 사적지 위치 표기는 저자가 작성)

4.2 '황토치'에 관한 주요 언급내용

왕현종의 연구(2024)에서 사료채방서의 원문을 번역하여 수록해두었는데, 이 부분들 중 황토치에 관한 내용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고부면 사무소에 가서 면장 은필성씨의 안내를 받아 부안군 백산면 백산에 도착하였다. 백산은 약 46.7미터의 구릉으로 동진강 일대의 옥야가 내려보이고, 갑오동학당비란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만석보(萬石湫, 정읍면 이평면(梨坪面) 두전리(斗田里 부근에서 북쪽의 용북면(龍北面)에 이른다. 옛날에는 담내면(荅內面)이라 칭하였다), 동도(東徒)와 전주감병이 처음으로 충돌한 지역인 황토치(黃土峙, 덕천면 동죽리, 망제리에 이르는 도로에 위치한 고개로서 망제봉의 북부에

있다)가 손짓하여 부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에 관해서는 은필성 면장과 백산의 노인 조상근으로부터 당시의 상황을 청취했다.”

4.3. '황토치' 사진 자료

다보하시 기요시는 7번 그림에서 황토치를 바라본 사진을 수록해두었는데, 이 사진은 '백산'에서 '황토치'를 멀리서 바라본 채로 사진을 찍은 것이다. 따라서, 황토치를 직접 방문하였다기보다 당시 고부면장이었던 은필성과 노인 조상근으로부터 백산 위에 선 채로 원경에서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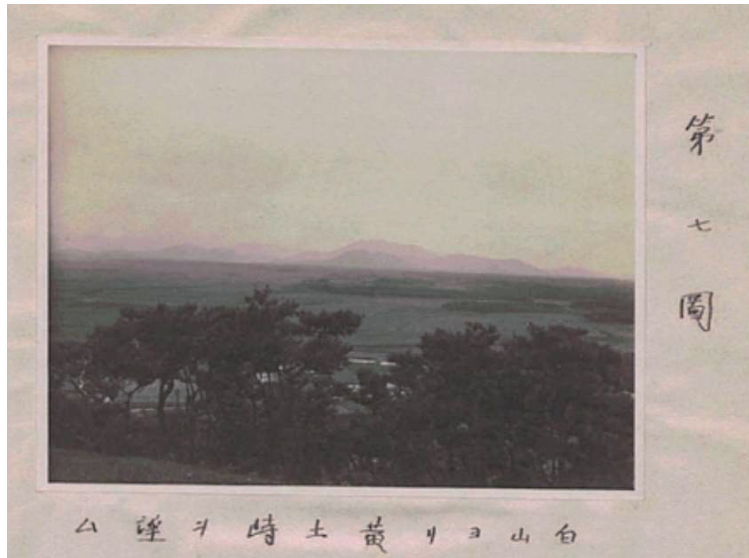


그림 9 다보하시 기요시의 사료채방서 내 사진

“7번 그림 -백산에서 황토치를 바라본 사진”이라고 쓰여있다.

4.4. 채방서 자료 분석 결과

전체 내용을 종합하여 확인해보면 다보하시 기요시가 문헌상에서 표현한 문장 “손짓하여 부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란 ‘백산’을 기준으로 동학의 주요 사건이 있었던 ‘만석보’와 ‘황토치’가 눈에 보일만큼 가깝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다보하시 기요시와 답사자들이 황토치를 직접 방문하였다기보다 당시 고부면장이었던 은필성과 노인 조상근으로부터 백산 위에 서서 원경에서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기입한 위치라기보다 멀리서 관망한 상태에서 지도에 표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직접 언급한 “황토치(黃土峙, 덕천면 동죽리, 망제리에 이르는 도로에 위치한 고개로서 망제봉의 북부에 있다)”라는 설명과 함께 도로선과 함께 위치를 기입해놓은 것은 망제봉과 동죽산 사이로 흘러나오는 지류의 해당 고개 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지도 위치와 비교해보면 ‘소리개재’ 아래 ‘천곡사지 석탑’과 ‘천곡’, ‘천곡제’가 있는 부분이다. 현 사시봉과 약 600m 거리 정도 떨어져있는

곳이다.

판단컨데, 분명히 사료상 분명하게 기입되어있기는 하지만, 다보하시 기요시가 먼 발치에서 원경에서 바라보고, 당시 백산 면장 및 지역 어르신에게 듣고 기술했다는 점에서, '천곡'이라고 이름이 존재하는 곳에 정확하게 이 지점을 '황토치'였다고 규정하기는 아직 선부르다고 판단한다. 설명의 맥락으로 보아, 망제봉 북부 도로 사이에 다수의 봉우리와 고갯길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다보하시 기요시와 은필성 면장이 언급된 지역한 사시봉 및 매봉 일대를 아울러 지칭한 것일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5. 황토현 전투 전개 과정과 위치 고증 종합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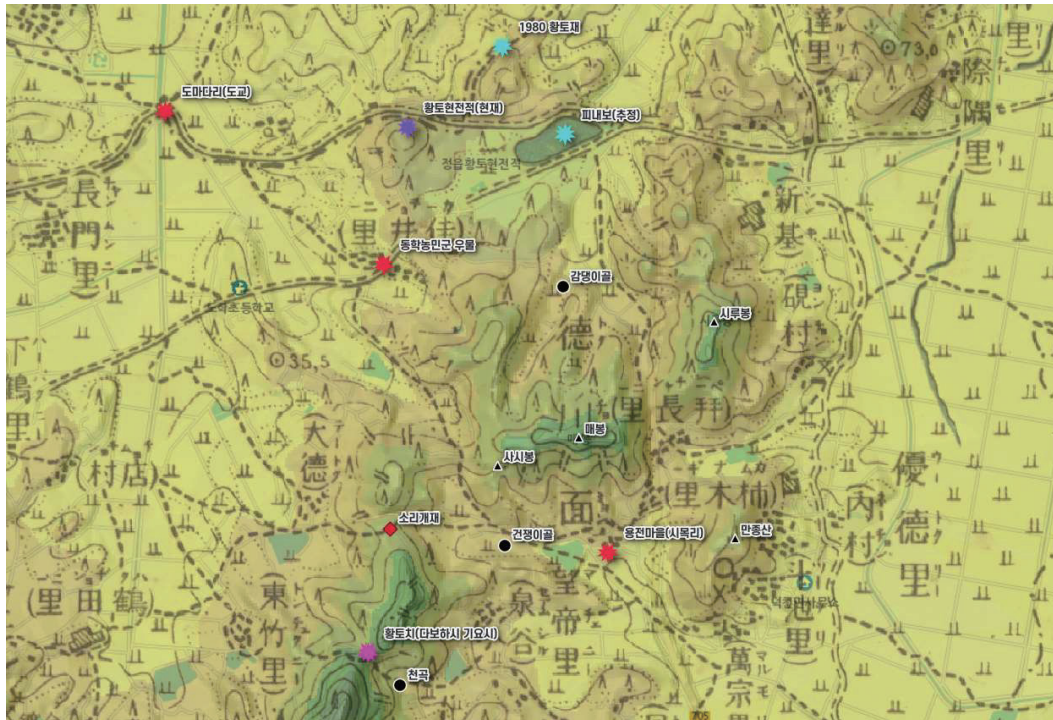


그림 10 주요 위치 표기 종합도

(분홍색 부분이 다보하시 기요시가 표기한 부분, 푸른색은 저자가 새롭게 제기하는 문제 부분이다. 산 중 녹색이 진해질 수록 높은 고도를 의미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주요 위치를 표기하고, 논란이 불거진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논란 부분 중심으로 재검토 결과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5.1. 황토현 전투의 재검토

전개과정 재검토를 통해 문헌을 종합하여 언론 및 학술논문에서 의문이 제기된 것에 관한 본 연구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1) 누가 먼저 공격하였는가? : 관군이 동학군 진지를 먼저 공격

문헌을 종합해보면, 관군 측과 동학군 측 모두 관군이 동학군을 야습하여 선제 공격 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총대장이었던 이경호의 호령을 듣지 않고, 그 부장들(이재한과 김달관) 등이 공을 세우기 위해서 산 위를 공격했고, 이를 알고 있었던 동학군이 오히려 역습했기 때문에 동학군 진지에서 먼저 전투가 먼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²⁶⁾ 마찬가지로 실제 패잔병을 직접 마주했고, 전투 당시 주변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들은 일본인 ‘과계생’도 관군이 먼저 공격한 것으로 동일하게 전한다. 어찌되었던 간에 동학군 진지로 관군이 먼저 돌격하였고, 역습당하였으며, 많은 관군이 사살당하였다. 동학군 진지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사시봉에서 유해가 나온다는 증언은 문헌과 맥락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전투는 황토현이 아니라 사시봉에서 이루어졌나? : 두 장소가 그 장소가 맞다면, 사시봉(동학군 진지)도 맞고, 황토현(부상군 진지)도 맞다.

‘사시봉’에서 전투가 이뤄진 것은 이미 황토현을 연구한 학자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자꾸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는 **단 한 봉우리에서 전투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밝혔듯이, 우리는 사시봉 한 곳이 황토현의 모든 전투가 일어난 한 곳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문헌상 살펴본 것과 같이 관군과 동학군은 ‘서로 다른 다수 봉우리’에 진을 쳤다. 동학군은 ‘중봉’(혹은 하봉), 관군은 ‘상봉’ 및 ‘상상봉’에 진을 쳤다고 표기된다. 또한, 김기술 및 후미에 있던 보부상 부대의 증언을 따르면, 선제공격의 사실을 모른채 잠을 자다가 습격을 받고 궤멸되었으며, 사방으로 도주하였다. 그러므로 보부상 부대가 있던 곳 또한 전투지이다.

관군 본대의 일부가 동학군 진지를 습격하였으나 이내 동학군이 반격하여 사면을 에워싸 격퇴하였다. 아울러, 부상군이 잠자고 있던 곳도 함께 공격해서 부상군 또한 격퇴당했다. 황토현 전투는 이 전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이다. 만약, 현재 이 장소들이 실제 각 군의 진지가 맞다면, 어디 하나가 틀렸다가 아니라 두 장소 모두 전투가 이루어진 격전지이다. 이런 사실은 황토현 전적 관련 설명에서도 사실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기존 학자들은 ‘사시봉’을 동학군이, 현 사적지 일대가 ‘보부상 부대’가 진을 쳤던 장소로 이미 인지하고 있다.

(3) 문헌 종합 검토 상 황토치와 사시봉, 그리고 황토현 전적과의 관계. 전투 상황 상 큰 문제가 없음

더욱이 황토현 전적 남측으로 동학군 주둔지였던 ‘사시봉’이 존재하고, 인근에 동학군이 식수를 구했던 ‘가정 마을 내 동학군 우물’이 존재한다. 또 ‘태고로’가

26) 동학사 초고본에서는 오히려 가장군이 이를 앞서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찌되었건 관군이 선제공격을 하였다.

지나 도로가 확보되어 있고, 현 황토현 전적 사적지 동측 편에 피내보로 추정되는 '지(池)'²⁷⁾가 존재했었기 때문에 『오하기문』에서 서술하고 있는 도로, 넓고 깊은 물의 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화호리 나루터로 가는 좁은 길을 파수하기 위한 적절한 곳이며, 넓은 들이 있던 곳이다. 또, 부상군의 패주로 북편으로 '소나무 숲'으로 들기 편하고, 동측으로는 작은 냇강을 만나고 동측면에서 합류하던 태인 군대를 마주하기에 적절한 곳이다.

다만, 다보하시 기요시가 언급한 장소와 위치는 이보다 망제봉에 붙은 더욱 남쪽이며, 현재 자료로 파악컨대, '사시봉'은 조금 더 북쪽인 매봉 서측 편이라는 차이가 존재한다. 두 거리는 약 600m이며, 천곡이 아니라 다보하시 기요시가 언급하는 문장이 해당 지역을 이야기한다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는 서술이다.

5.2. 황토현 지명에 관한 확장된 이해의 필요성

그렇다면, 이렇게 황토현 관련 장소 진위와 논의가 불거지는 이유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듯 하다. 하나는, 주요 정보들이 황토현의 범위를 너무 좁게 이해하도록 되어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현 사적지 위치를 중심으로 황토현이 소개될 때 '황토로 된 작은 언덕'으로 소개되어, 마치 이 하나의 봉우리에서만 전투가 이뤄진 것처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읍시 공식 홈페이지를 비롯한 주요 문건에서도 황토현이라는 말이 '황토로 된 작은 언덕'이라고 소개한다. 기사에서 문제를 삼은 부분도 격전지가 이 언덕이 아니라 '사시봉'이 아니냐는 논지이다. 현 사적 영역이 낮은 언덕 부분에만 지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런 오해를 더욱 심화시킨다.

그러나, 문헌과 학자들이 전하는 바와 같이 황토현은 단순히 한 봉우리가 아니라 여러 봉우리와 고개를 포함하는 지역 일대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 『동학사』, 「종리원사부동학사」, 『수록』, 『동비토록』 등에서 전투를 표현할 때에 동학군-관군의 진지를 하봉-상봉, 혹은 중봉-상봉-상상봉으로 기입하고 있어, 황토현을 여러 봉우리로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겠다. 또, 다보하시 기요시의 북명서에서 황토치를 망제봉 바로 북쪽 '도로에 존재하는 고개'로 표현하고 있다. 또, 1960-1980년도 지도에서는 '황토재'는 현 사적 영역보다 훨씬 북쪽으로 기술되어 있을 뿐더러, 1915년 지적원도 상에서 황토현 전적을 포함한 남북 일대 모두가 (山, 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렇게 황토현 전투지를 중심으로 남북 모두 '황토치'라고 불렸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본 저자의 견해이다.

이런 점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황토현이라는 곳은 황토산, 황토재, 황토치로 모두 불리면서 '다수의 봉우리'를 아우르는 '고개', '산' 등 더 넓은 영역과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편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런

27) 池, 못 지. 물을 모아둔 곳. 해자. 성곽의 주위로 둘러 있는 못. 물길. 도랑

점은 본 연구가 새로이 밝혀낸 사실이 아니다. 1차 사료와 조광환(2011), 조성운(2013), 조광환(2020)등 황토현 전투의 재구성을 연구한 자료들에서 모두 황토현 전투의 영역 전체를 여러 봉우리로 이해하고 서술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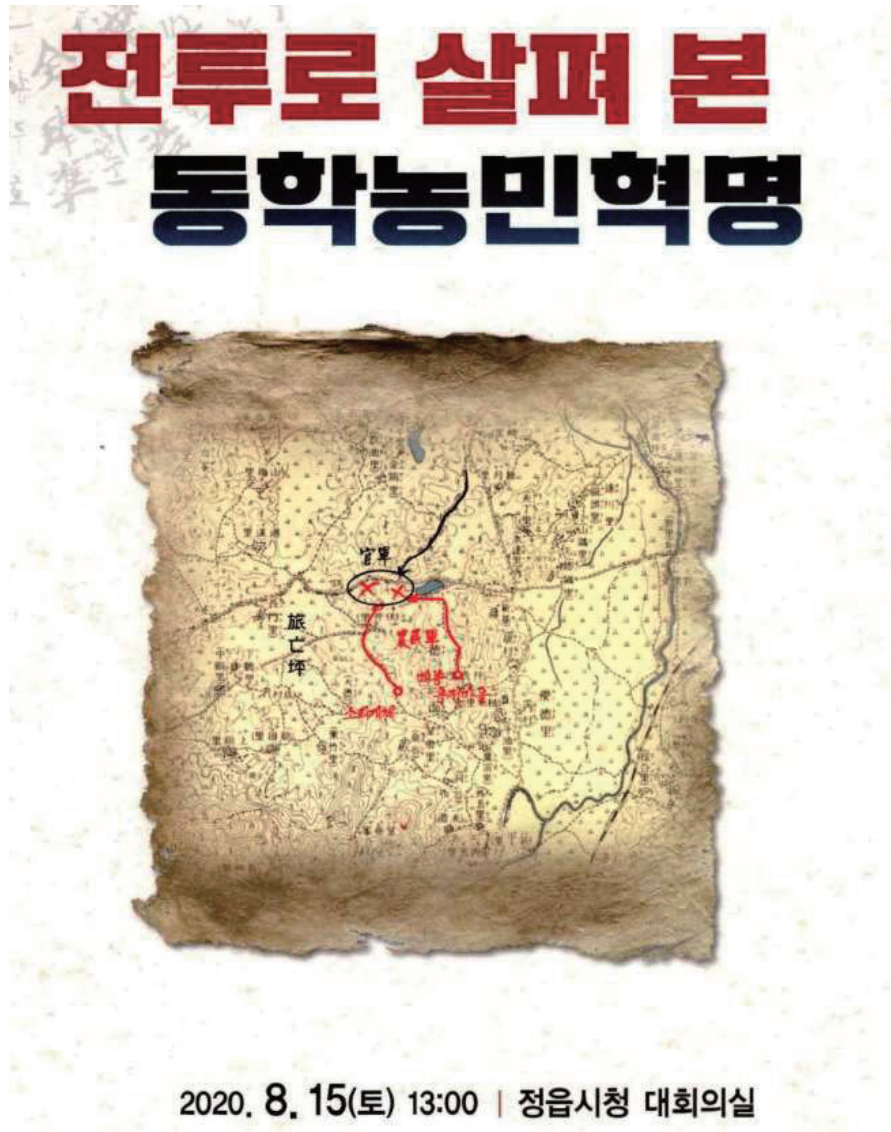


그림 11 2020년 학술대회 표지 이미지 발췌.

조선지형도 1918(1924) 지도를 활용하여 제작한 모습. 현대 학자들 또한 황토현 전투가 현 사적영역 뿐만 아니라 전 방위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상이한 의미가 발생하는 것은 ‘현(峴)’, ‘치(峙)’, ‘재(岾)’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로부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말에서 ‘현(峴)’, ‘치(峙)’, ‘재(岾)’는 “언덕, 높은 언덕, 우뚝 솟다”를 뜻한다. 그러나, 고개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고개란 “산이나 언덕을 넘어 다니도록 길이 나 있는 비탈진 곳”, “길이 나 있어서 넘어 다닐 수 있는” 곳으로 표현한다. 즉, 봉과 봉 사이가

장 낮은 부분에 길이 형성된 부분이 ‘고개’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더욱이, 인근 지역의 치(峙) 혹은 재(岵)의 지명을 가진 곳은 대부분 고개길을 표현하는 지목을 가지고 있었다. 1914년 조선지형도에서 두승산 서쪽 고부 관아로 넘어가는 ‘천치’(天峙)라는 지명이 명확하게 존재한다. 또, 망제리에서 상학리로 넘어가는 곳은 ‘소리개재’, 우덕리 용전마을에서 감냉이골로 매봉과 함께 넘어가는 고개이름을 ‘매봉재’가 있다. 이처럼 ‘재’와 ‘치’는 인근 지역에서도 ‘봉’과 구분하여 불리기도 하였다. 따라서, 황토치란 단순히 봉우리만 솟아 있는 곳이라기보다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평지보다는 높은 능선 중 길로 사용되는 곳들 중 가장 완만한 곳을 의미하거나, 고개 전체를 의미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²⁸⁾ 즉, 점으로 이해하기 보다 선과 면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황토현, 황토치, 황토고개, 황토산이라는 장소의 개념이 단순히 한 봉우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두승산과 연결되어 있는 우측 지류 ‘고개’와 ‘산’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였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는 전투지 영역이 너무 넓었다. 문헌에서 드러나듯, 황토현 전투의 전개는 군 단위 지역을 이동하였고, 과거 면(面) 단위 영역에서 이루어진 전투였다. 황토현 전투는 즉, 하나의 봉우리 수준이 아니라 일대 산, 평지, 마을, 도로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에 비해 이렇다 할 유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명과 구술에 의존하다보니 실제 전적지를 증명할 유구, 유해가 아직 출토된 바가 없어 이런 논의가 불거진다고 본 저자는 생각한다. 따라서 문헌 근거로 판단컨데, 동학군의 물자 노획과 관군의 수계 이후 많은 상황이 정리되었지만, 일대에 관한 지표조사가 진행된다면 더욱 분명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6. 결론 : 향토 지명 조사 및 사시봉 일대에 관한 유해 및 전쟁 흔적에 관한 추가 지표조사의 필요성

이를 종합한 본 연구자의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자는 ‘다보하시 기요시’의 기록이 권위 있는 사료로 언급되기는 하나, 원거리에서 전해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채방서라는 한계가 있어 오늘날까지 축적된 학술 성과와 구전을 전면적으로 뒤집을 만큼 강력한 사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전투는 일대 지역의 전방위에서 이루어졌으며, 문헌상에서 복수의 봉우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망제봉 북쪽에서부터 황토현 전적 전체 영역이 황토치, 황토현, 황토산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사적지 영역이 기존 학자들의

28) 실제로 ‘고개’라는 뜻은 서양어로 번역하면 ‘mountain press’를 의미하여 길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봉우리와 현, 고개, 재, 치는 길을 포함하고, 산, 악, 그리고 봉 등 높은 지역은 우리나라 지명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되기도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들 모두 봉우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봉우리 사이와 사이를 잇는 길을 포함한 완만한 능선들이다.

견해에 따라 부상군 진지로서 문헌 상에서 표기된 내용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 기존 사적지를 해제할 근거까지 되지는 못한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더욱 정확하게 황토현 지역이 두승산 동측에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해주는 소중한 사료라고 생각된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의견과 새 사료를 통합하여 망제봉 북쪽에서 황토현 전적 북쪽에 이르는 일대 전체, 즉, 두승산 동측 지류 전반을 ‘황토치’, ‘황토산’으로 불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 근거로, 북명서 자료는 망제봉 북쪽 특히, 1915년 지적원도에서 일대 모두를 산으로 표기하고 있었다는 점, 1960-1980년 지도에 황토재가 기입되어 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판단했는데, 이 또한 당시 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지도 자료일텐데 이를 간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가까운 시점에 왜 현 황토현 지역 북부 또한 황토재라고 기입했는지 또한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명이나 구전에 대한 더욱 철저한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 대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황토현 전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표조사가 실시된다면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보하시 기요시 사료의 등장은 ‘망제봉’과 ‘황토치’를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실제 전투가 일어났던 범위를 구체적으로 좁히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는 곧 동학군 진지로 추정되는 사시봉 일대의 발굴 필요성을 한층 구체화시켜주는 사료이면서, 다행히 망제봉까지 조사범위가 확장되지 않아도 됨을 시사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자가 지도에서 시각화한 자료를 보면, ‘사시봉’을 비롯해 ‘천곡’, ‘소리개재’, ‘매봉’, ‘시루봉’과 더불어 이름 없는 다수의 봉우리와 고개가 확인된다.

지표조사는 주요 범위를 엄선하여 ‘금속탐지’를 중심으로 진행할 것을 권한다. 문헌 상에서 사상자들이 많았을 뿐더러, ‘포’를 주고 받았으므로 당시 사용되었던 ‘탄환’, ‘화살촉’, ‘대포알’, ‘창’, ‘검’ 등의 출토가 예상된다. 또 ‘토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어, 그런 부분이 발견되었을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전사자에 관한 수계가 이뤄진 것으로 많이 이뤄져 핵심적 증거를 발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속에 관한 탐지’ 조사를 먼저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무작정 매입하고 발굴하여 지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과 같이 전투지로 여겨진 특정 영역을 정하고 금속탐지를 통한 지표조사로 계속 확인해가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헌으로나 증언으로나 동학군 진지로 ‘사시봉 일대’가 유력해보이므로, 일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된다면 황토현 전투에 관해 실제 진형이나 형세, 어느 방향을 서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유구들이 발굴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이므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무리하게 사시봉 매입을 추진하기보다, 반드시 재단 혹은 공공이 소유한 토지부터 시행하는 편이 좋아보

인다.

아울러, 지표조사를 진행하고 성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적 확대 지정'하는 것은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 오히려, 국공유지 기준 향토문화재 차원으로 별개의 유산으로 바라보고 지표 조사 선행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황토현 전적지는 문헌 상으로 현 정읍지역의 덕천면 일대를 아우르는 매우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있다. 따라서 전적을 유지하고자 이 전적을 모두 사적으로 지정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임을 이해했으면 한다. 더욱이, 사적 지정의 본질적 취지는 '사적 원형 유지'와 '사적 가치의 증진'을 위하여 이를 관리하는 것인데 (국가유산청, n.d; 김철주, 2013.), 여기서 더 넓은 영역을 사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많은 제약사항이 따른다. 무엇보다도 인근 주민들의 현재 삶과는 매우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투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부터 순차적으로 지표조사를 진행하고, 여러 탐지가 이루어지고 실제 유구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는 구체적인 영역이 정해졌을 때, 본격적인 철차를 진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다보하시 기요시'가 기입한 영역은 '천곡사지 석탑'이 있는 '천곡' 인근이며, 매봉동측 편 '시루봉'은 '우덕산성' 등이 위치해, 이미 국가 및 향토 유산(문화재)로 지정된 땅들이 도처에 존재한다. 전투의 영역이 전방위로 펼쳐져 있었으므로, 이런 인근 지역에 가능한 영역부터 금속탐지를 통한 지표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의 황토현 사적지도 주요한 지표조사 대상지가 될 수 있겠으나, 사적지와 기념 공원 일대는 이미 1963년 기념탑 조성 및 1982년 성역화 사업 과정에서 이미 과거 지형이 크게 변형되었다. 당시 국가기록원에 남아있는 성역화 당시 현장 사진과 사업 과정 문건을 보면, 소나무 식재와 무궁화동산이 조성되고, 2천 기가 넘는 묘를 이장시켜, 오히려 성역화를 통해 원래의 지형을 확인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 사적지 일대에서 전투 흔적을 찾기는 다소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해당 시기 군사 및 역사 전문가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경호가 친진영이 최영년에 의해 문헌상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우리나라 지형, 지세 등을 통합하여 파악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실제 어떤 봉우리가 전투의 지역이었는지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본 조사 결과가 황토현 전투지에 관한 이해 증진과 정비 방안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I. 1차 자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 근대사료DB <https://db.history.go.kr/>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아카이브.

(1) 동학군측

- 오지영. (n.d). 『『동학사(東學史) 초고본』.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사료아카이브.

URL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index&code=prd_0002

- 최병현. (n.d).

「종리원사부동학사(宗理院史附東學史)」. 『남원군종리원(南原郡宗理院)』.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사료아카이브.

URL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_0166r_002_001

- 김낙봉.(n.d). 「갑오(1894년) 4월 3일(甲午四月初三日)」. 『김낙봉이력(金洛鳳履歷)』.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사료아카이브. URL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_0037r_006#

(2) 관군측

- 「13일 진시 완백 [十三日辰時 完伯]」. 『동비토록』(東匪討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사료아카이브.

URL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_0029r_031

- 「15일 진시 전라감사의 비밀전보 [十五日辰時 暗電惠堂宅完伯]」. 『동비토록』(東匪討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사료아카이브.

URL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_0029r_033

- 「영문에서 보낸 기별 [營寄]」. 『수록(隨錄)』. (1894).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사료아카이브.

URL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_0024r_001_006

- 『양호초토등록(兩湖招討騰錄)』. (1894).
- 『양호전기(兩湖電記)』. (1894).
- 「완영에서 작성한 전라도 고부민란 시초(1894년 4월)」. 『동학농민혁명 관련 고문서(東學農民革命 古文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아카이브 URL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_0183_006#

(3) 지역유생

- 최영년. (n.d). 「백산패적변(白山敗績辨)」. 『『동도문변』(東徒問辨)』.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사료아카이브.

URL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_0032r_005#

- 김재홍. (n.d). 「1894년 4월(甲午四月)」. 『영상일기(嶺上日記)』.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사료아카이브.

URL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_0007r_011

- 정석모. (n.d). 「1894년 봄(甲午春)」. 『갑오약력』(甲午略歷).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사료아카이브.

URL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_0026r_002

- 박문규. (n.d.). 「1894년 1월(甲午年正月)」 『석남역사』 (石南歷事).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사료아카이브.

URL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_0020r_003#

- 김방선. (n.d.). 「1894년 9월(甲午九月)」 『임하유고』 (林下遺稿).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사료아카이브.

URL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_0021r_001#

- 김기술. (n.d.). 「태인 고현내면의 백성 김기술 [泰仁古縣內面 民 金箕述]」. 『김기술문서』 (金箕述 文書).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사료아카이브.

URL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_0062r_045

(4) 일본측

- 외솔회. (1974, 6). 동학 혁명 실화 자료 - 황토현(黃土峴) 전투 기록. 나라사랑, 15, 209-209. (1974). (기쿠치 겐조(菊池謙讓). (1894). 『갑오조선내란시말』 황토현 전투 보부상 취재 기록과 동일))
- 과제생. (무년). 「전라도 고부민요일기」. 『비서류찬 조선교섭자료(秘書類纂朝鮮交涉資料)』.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신국역총서16. URL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_0212r_006

•

II. 고지도 및 지형자료

(1) 조선시대 지도

-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고지도. <https://kyudb.snu.ac.kr/>
- 『비변사인방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 (1740년대).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 『광여도(廣輿圖)』. (1737 - 1776).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 『해동지도(海東地圖)』. (1750년대 초).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 『여지도(輿地圖)』. (1789 - 1795).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 『지승(地乘)』. (1776 - 1787).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 김정호. (1861).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 『1872년 지방지도(郡縣地圖)』. (1872).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2) 지적원도

- 국가기록포털. 지적아카이브. <https://theme.archives.go.kr/next/acreage/viewMain.do>
-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1915). 『전라북도 정읍군 덕천면 우덕리 지적원도』 (0 - 30).
-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1915). 『전라북도 정읍군 덕천면 하학리 지적원도』 (0 - 25).
-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1915). 『전라북도 정읍군 덕천면 상학리 지적원도』 (0 - 19).
-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1915). 『전라북도 정읍군 덕천면 망제리 지적원도』 (0 -

- 32).
-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1915). 『전라북도 정읍군 덕천면 신월리 지적원도』 (0 - 22).
 -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1915). 『전라북도 정읍군 이평면 도계리 지적원도』 (0 - 28).
- (3) 지형도
- 조선총독부. (1914 - 1924). “정읍지도”. 『조선오만분일지형도(井邑 群山三號 陸地測量部 大正13年)』.
 -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 (중이지도 중 과거지도, 1960, 1970, 1980). 1956 항공사진. 국토정보플랫폼 <https://map.ngii.go.kr/mn/mainPage.do>

II. 2차 자료

- (1) 학술논문
- 왕현중. (2024). 충청남도전라남도자료채방북명서(조선사편수회, 1934), 동학농민혁명 연구, 2, 349-387
 - 조광환. (2011), 황토현 전투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 전북사학회. 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역사적의의. 전북사학회 정읍시. 2011
 - 조성운. (2013), 황토현전투의 전개와 역사적 의의. 한국민족운동사학회.(77). 2013.12
 - 조광환. (2020), 황토현전투의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의. 동학농민혁명 126주년 기념 학술대회.
 - 홍상표. (2023). 1894년 황토현 전투의 재구성. 2023년 제2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 (2) 단행본
- 신순철, 이진영(1998). 『실록 동학농민혁명사』. 서경문화사
- (3) 토양환경지도
- 국립농업과학원. 흙토람, 토양환경지도. <https://soil.rda.go.kr/>

토론 1

황토현 전투의 전개 과정과 전투지의
위치 고증에 대한 토론문

신 영 우
충북대 명예교수

이 발표문은 ‘황토현 전투의 전개과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황토현 전투지의 위치 고증’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부분은 ‘황토현 전투지의 위치 고증’이다. 즉 황토현 위치의 확인을 넘어서서 전투를 벌였던 공간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중심으로 토론 내용을 정리하려고 한다.

1. 전개과정을 검토하면서 살펴본 선행연구

발표자는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하는 역사학 전공자가 아니지만 황토현전투에 관한 1차 자료를 비롯해서 관련 논문과 고지도를 검토해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이런 작업은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해야 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한국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축적된 주제이다. 철학과 문학을 비롯해서 정치학과 사회학 등 다양한 전공자가 이 주제에 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 성과에 비추어보면 황토현전투를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그렇지만 주요 연구는 여러 사료를 소개하고 분석해서 전투 상황을 재구성했다.¹⁾

그래서 역사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황토현전투 전후의 실상은 바로 찾을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서 운영하는 ‘동학농민혁명 아카이브’ 때문이다. 누구나 주제어를 입력하면 각종 사료를 알 수 있고, 함께 탑재한 사료의 번역까지 볼 수 있다.²⁾

발표자는 사료 기록과 전투지 이름 표기 등을 비교해서 정리하였고, 고지도와 역대 지도 및 토양도 등을 비교해서 전투지 일대의 자연환경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이 같은 접근은 새로운 방법으로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 조광환, 「황토현 전투의 전개 과정과 역사적 의의」 『전투로 살펴본 동학농민혁명』(동학농민혁명 126주년 기념 학술대회)

2) 이 발표문을 보면서 ‘동학농민혁명 아카이브’의 역주와 같은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동학농민혁명 자료를 참고하려는 사례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인데 번역된 사료를 그대로 이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카이브에 수록된 사료는 여러 가지이다. 실제 경험을 쓴 기록이거나 전문 내용의 전제라도 오류가 적지 않다. 발표자가 지적한 최영년의 『동도문변(東徒問辨)』의 백산패적변(白山敗績辨)과 같이 황토현과 백산을 구별하지 못한 기록도 있지만 연구자는 이를 감안해서 사료를 활용하고 있다. 관련 사료의 동학농민군과 관군, 또는 보부상의 수는 과장이 많아서 대부분 믿기 어렵다. 또 동학농민군의 행군과 이동 등에 관해서도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동학농민군 참여자와 무남영 및 보부상 등의 수

황토현전투에 참여한 동학농민군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우금치전투 등 마지막까지 전봉준 장군이 이끌던 수는 4,000명이었다. 1차봉기에서 고부관아 점거와 백산집회에 참여한 수는 얼마인지 추정하기 어렵다. 백산에서 부안으로 가서 결집한 수가 부안 고부영광 무장 홍덕 고창 등의 깃발을 가진 500명 정도이고 정읍 등지에서 각각 수백 명씩 가세했다면 적어도 1,0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에 여러 지역에서 더 합세하여 그 수가 더 많았을 것이다.³⁾

진압군의 수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전라 감영군의 정수는 400명이었다.⁴⁾ 전원 출진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그 대부분이 파견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충청도 남부 군현과 전라도 여러 군현에서 모은 별초군과 보부상을 합하면 그 수도 1,000명으로 대략 추정할 수 있겠다.

적어도 쌍방 수천 명이 숙영하거나 전투를 벌인다면 그 공간이 넓어야 했을 것이다. 이를 테면 황토현에 1,000명 정도의 병력이 숙영할 때 설치한 장막의 수나 면적 등이 어느 규모였을까?

3. 동학농민군의 전투방식

토론자는 동학농민군의 전투방식에 관해 논문을 작성한 적이 있다. 주로 고지에 올라가서 공격하는 진압군과 맞서 싸우는 방식을 취했다. 그럴 경우 승산이 높았다. 성벽이 단단한 청주성과 홍주성을 아래서 올려다 보고 싸운 전투는 희생이 많았다.

다음은 북적농민군에 한정된 전투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3) 이런 규모의 병력이 화승총 등의 무장과 행군, 그리고 군량 확보와 식사 마련 등은 어려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관아와 장터, 마을과 하천 등지에서 무기나 식량 등 확보와 식사 준비를 하고 있다.

4) 황토현전투 당시 각사등록 등에 나온 전라감사의 공식 직함은 전라도관찰사 겸 순찰사 친군무남영외사 위무사(全羅道觀察使 兼 巡察使 親軍武南營外使 慰撫使)이다. 친군 무남영은 1893년 8월 14일부터 칭하게 된다. 『일성록』과 『고종실록』은 전라 감영의 병대 정액이 400명이라고 했다.

- ① 행군 도중 조우해서 평지에서 싸운 괴산전투(10월 6일)
- ② 평지와 야산에서 싸운 대교전투(10월 23일)
- ③ 삼면 공격을 받은 이인전투(10월 23일)
- ④ 고지를 오르며 공격했던 효포전투(10월 24, 25일)
- ⑤ 고지대를 공격한 최대 전투인 우금치전투(11월 8일, 9일)
- ⑥ 높은 산에서 공격한 연산전투(11월 14일)
- ⑦ 낮은 산에서 싸운 논산전투(11월 15일)
- ⑧ 원평 뒷산에서 싸운 원평전투(11월 25일)
- ⑨ 읍내 산위에서 방어한 태인전투(11월 27일)
- ⑩ 용산 고지에서 싸운 영동 용산전투(12월 12일)
- ⑪ 숙영지 낮은 지역에서 싸운 보은 복실전투(12월 17일, 18일)

이 사료 기록을 검토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전투지를 확인하면 그 면적이 매우 넓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동학농민군은 전투를 경험하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 전투방식도 가장 피해를 적게 입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것은 역사상 모든 전투에서 중요시했던 것으로 고지대에 올라가서 공격하는 상대를 내려다보고 싸우는 것이었다. 처음 벌어진 황토현 전투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싸우는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토론자는 주요 전투지를 답사해서 여러 전투 상황을 확인한 바가 있다. 고지에 진을 치고 싸운다면 그 전선이 좁을 수 없었다. 쌍방 수천 명이 모여서 회전했을 경우 커다란 산줄기를 따라 넓게 전투장소가 분포하고 있었다. 1차봉기 당시 벌어진 황토현전투, 장성 황룡촌전투, 전주 완산전투의 현장을 재구성해도 동일할 것이다.

특정 지명에 한정해서 전투지를 좁게 보아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우금치전투는 논산쪽에서 공주로 들어가는 우금치를 중심으로 견준봉 일대와 이인에서 북상하는 서쪽의 봉황산 일대, 그리고 동쪽 효포로 가는 길 일대의 전역에서 벌어진 전투였다.

4. 황토현 전투지의 위치 고증

발표자는 1934년에 작성한 「충청남도·전라남북도사료채방복명서(忠淸南道·全羅南北道史

料採訪復命書)」를 검토하고, 황토현 전투를 특정 고개에서 벌어진 전투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봉우리와 고개를 포함하는 지역 일대라고 하였다. 전투지역에 관한 이 같은 파악은 동의하게 된다. 여러 사료에 기술한 하봉 - 상봉, 중봉 - 상봉 - 상상봉이란 용어도 이런 이해가 적절한 것으로 뒷받침한다.

두승산 동쪽으로 내려간 산줄기인 망제봉과 매봉, 그리고 시루봉 일대에서 황토현전투가 벌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패산한 무남영 병대와 보부상 등이 퇴각한 곳은 두승산 서쪽 산줄기라고 했다.

그러나 황토현이라는 지명을 “다수의 봉우리’를 아우르는 ‘고개’, ‘산’ 등 더 넓은 영역과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여러 봉우리와 야산들을 포괄하는 지명으로 고개를 사용한 사례는 나오지 않는다.

당 시 고부관아에서 우덕면의 면임이나 면서원이 주재했던 마을로 가는 지름길이 황토현을 거쳐가는 길이었다. 그보다 작은 고개가 있지만 망제봉과 매봉 사이의 이 고개를 넘어야 두지마을로 갈 수 있다. 현재는 새길이 나면서 고개가 많이 깎여진 것으로 보인다.

황토현과 같은 고개는 전국에 많이 있다. 금강에서 공주 감영으로 들어가는 고개가 하고개이다. 우금치전투 당시에 봉황산을 공격하던 동학농민군이 하고개 아래까지 진격했다가 수 많은 희생자를 낸 곳이다. 구불구불 여러 고개를 지나가지만 가장 높은 고개가 하고개이다. 이처럼 하나의 지명에 특정 고개라는 이름이 붙는다.

황토현 일대에 지표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는 동의한다. 동학농민혁명사상 중요한 전투지와 집단매장지를 정밀하게 학술 발굴한 사례가 드물다. 황토현 일대의 지표조사와 그에 이어진 정밀 발굴은 시급하다.

5. 황토현 전투지의 사적지 확대 관련 의견

「충청남도·전라남북도사료채방복명서」에서 황토현 위치와 함께 백산과 만석보 등을 알려준 사람이 당시 고부면장 은필성(殷弼成)과 백산의 조상근(趙尙根), 고부의 갑오년 경험자 송국섭(宋國燮)이다.⁵⁾ 비교적 정밀한 지도를 그려서 표시한 위치가 현재 확인한 가장 명확한

5) 이 세 사람은 이 주변 마을에 세거해온 은씨 조씨 송씨를 찾아서 족보 등을 조사하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근거가 된다. 이 복명서의 기록을 부정하는 다른 기록은 나오지 않았다.

현재 황토현 사적지에 있는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의 건립 시기는 1963년이다. 동학농민혁명 발발 69년 후에 세워진 것이다. 이 작은 야산에 기념탑을 세우고 기념행사를 해왔으나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지 않았다.

당시 생존자 가운데 갑오년 경험자도 있었을 것이고, 경험자들이 자녀들에게 황토현전투 현장을 알려준 사례도 있었을 것이다. 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것은 현 사적지를 황토현 전투 지로 보아도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황토현전투가 전개될 때 산위에서 공격해서 내려온 동학농민군을 피해서 달아난 무남영 병대와 별초군, 또 보부상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을 것이다. 이들을 추격한 동학농민군도 사방으로 뒤쫓았을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현 기념탑이 있는 사적지와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위치한 일대도 전투지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황토현 전적지의 사적 지정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사적지를 포함해서 지표조사와 발굴이 진행될 일대를 추가해서 지정하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충실하게 발제문을 작성한 발표자의 동의 여부를 듣고 싶다.

토론 2

황토현 전투의 전개 과정과 전투지의 위치 고증에 대한 토론문

배 항 섭
성균관대 교수

○ <황토현 전투의 전개 과정과 전투지의 위치 고증>에 대한 토론을 맡은 배항섭입니다.

○ 이 발표문은 황토현 관련 다양한 연구 성과들, 그리고 확보 가능한 자료를 수합하고, 「조선사편수회 충청남도, 전라남도 사료채방 북명서」(1934) 등 새롭게 추가된 자료들을 망라하여 검토하고, 황토현 일대 지역과 지형 등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수합한 다음 QGIS를 활용하여 시각화함으로써 황토현 전투의 전개 상황, 각 지역 및 지형에 관한 재검토를 수행함으로써 문헌상 ‘황토현 전투’가 일어난 곳의 정소를 분명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왕의 논의들을 토대로 다양한 지도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황토현 전투지의 위치를 비정하는 데 좀 더 풍부한 자료들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치 고증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위치 비정의 신빙성을 튼튼히 뒷받침하기 위해 주변적 정황이나 농민군의 움직임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치밀한 이해와 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의문점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 4쪽.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월(음력) ‘고부농민봉기’에서 5월 8일 ‘전주화약 체결까지’를 1차 혁명으로, 같은 해 ‘5월 청일 양군의 상륙’이후부터 ‘12월 전봉준 장군’이 체포되기까지를 제2차 혁명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 대체로 9월 재봉기 이후를 ‘2차 혁명’으로 보는 것과 다릅니다. 또 농민군의 주체가 행위가 아니라, 청일군의 상륙이라는 외적 요인에 의한 시기구분이 될 수 있고, 전봉준 체포로 제2차 봉기가 일단락 된 것은 맞지만, 자칫 ‘영웅주의적’ 이해라는 오해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 5쪽. “제1차 혁명은 조병갑, 이용태와 같은 탐관오리들의 폭정이 계기였다. 보국안민, 제폭구민(폭제구민×)의 정신이 혁명의 촉발 계기였으며, 구태 타파, 평등 사회 개념을 가진 시민사회로의 이동의지의 피력함과 동시에 ……”

⇒ “시민사회로의 이동의지의 피력” 등의 표현은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글 전체의 신빙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5쪽. “폐정개혁, 집강소 설치, 신변보장을 철수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홍계훈이 이를 수용하면서 마침내 5월 8일 ‘전주에서 화약’을 체결하였다.”

⇒ 전봉준에 대한 「판결문」에는 “초토사는 곧 檄文을 성중에 투입하여 瑋準 등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어 그 목적을 달성하게 하겠으니 속히 도당들을 해산하라는 뜻을 諭達하였다. 그러나 봉준 등은 곧 轉運所 革罷事등 27개조를 내여 가지고 上奏하기를 청하였더니 초토사가 즉시 승낙”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동학관련판결문집』, 정부기록보존소, 1994, 29~30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8, 50~51쪽). 폐정개혁안 27개조를 국왕에게 상주해 달라는 요구, 신변보장과 관련해서도 ‘勿侵表’를 나누어주었다는 점 등은 기록에서 확인되지만, ‘집강소 설치’가 농민군의 ‘전주성 철수’의 조건이었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근거가 무엇인지요?

○ 6쪽 각주 5). ‘제2차 포고문’이라는 표현.

이글은 1894년 10월 공주를 향해 북상하던 전봉준이 논산에서 전라감사 박제순에게 ‘양호창의영수전봉준(兩湖倡義領袖全瑋準)’이라는 명의로 관군과 농민군이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일본군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힘을 합쳐 같이 싸우자는 취지로 보낸 상서(上書)이다. 발신 날짜와 장소를 명시한 이 글 말미의 “갑오 10월 ‘十六日’ 재논산(在論山) 근정(謹呈)”이라는 구절 위에 ‘제중의소(濟衆義所)’라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¹⁾

⇒ 이글을 ‘제2차 포고문’으로 보는 근거 내지 이유는 무엇인지요?

○ 7쪽~8쪽의 인물들에 대한 이해. 예컨대 그 중 정일창.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1권에 기록되어 있는 <전라도 고부민란의 시작점[全羅道古阜民亂始初]>이다.

“전녹두가 동학도 수천 명을 거느리고 3월 초에 부안읍에 들어가니 부안 수령이 잠시 피신하였다. 그러자 이상의 동학도들이 텅 빈 이 기회를 틈타 병장기를 수탈한 뒤 연이어 옥구(玉溝)·태안(泰安)·고부 등 읍의 병장기를 탈취하고서 고부군 뒤편 두등산(頭燈山)에 진을 쳤다. 전라도 관찰사가 이 일을 듣고 상장군(上將軍) 이재섭(李在燮)과 부장군(副將軍) 송사천

1) 『黃海道東學黨征討略記』, 『총서』 12, 356쪽. 영인된 『총서』에서는 도장이 보이지 않으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이병규 부장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원본(유리 사진)’을 확대하여 그것이 ‘제중의소’가 새겨진 인장인 것을 확인했다. 도장의 주변이나 글자 일부에 마모된 흔적이 많아서 이 도장은 오래 동안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宋泗川)에게 위임하였다. 사천은 전라 좌우도(全羅左右道) 보부상(左右商)의 도반수(都班首)이다. 임소(任所)의 사람 수만 명을 불러와 일시에 전라 감영의 병장기로 무장하고서 두등산의 앞에 있는 낮은 산(案山)에 도달해 녹두의 진영을 살펴보니 군중의 깃발과 검극(劍戟)이 눈서리처럼 엄하였다.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수차례 싸움을 걸었는데 날이 이미 저물기 시작했다. 적진에 격문을 보내니, ‘상장군 정일창(鄭一昌)의 나이는 14세이고, 부장 전녹두의 나이는 30세이며, 말장(末將) 이일해(李一解)의 나이는 30세이고, 모사(謀士) 노성범(盧聖凡)의 나이는 40세이다.’라고 격문에 답을 해 왔다. 송 사천이 군정(軍丁)을 거느리고 두등산에 오르니 때가 황혼이 되었다. 정일창이 장검으로 지휘하여 전투를 벌였는데, 송 사천이 적의 군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재섭과 도망치니 대군(大軍) 가운데 죽은 사람을 이루 다 셀 수 없었다. 적장(賊將)이 전라 감영의 병장기를 빼앗으니 7개 고을의 병장기가 탈취당했다. 그 가운데 몰래 숨은 병졸이 요행히 몸을 피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죽은 사람이 산처럼 쌓여 있고 흐르는 피가 천(川)을 이루고 있었다. 상장군 이재섭이 돌아와 군졸(軍卒)을 점고(點考)해 보니 죽은 사람이 914명이었다.”

⇒ 송사천(宋泗川)은 경상도 사천 수령을 지낸 경력의 소지자를 말하는 듯하지만, 뒤에서는 ‘전라 좌우도(全羅左右道) 보부상(左右商)의 도반수(都班首)’라 하고 있습니다. 또 “상장군 정일창(鄭一昌)의 나이는 14세이고, 부장 전녹두의 나이는 30세”라는 기록 또한 신빙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자료 비판이 필요합니다. 튼튼한 전거를 가지지 못하는 자료가 비판 없이 활용될 경우, 단 하나의 자료로도 역사상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황토현은 기왕의 연구들(조광환, 조성운 등)에서 밝히고 있듯이 다수의 봉우리를 아우르는 고개, 산 등 넓은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황토현 위치 비정을 유동성 있게 파악 필요. 양측이 진을 치고 있던 곳 포함, 전투 지역의 영역은 매우 넓었을 것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금티’ 전투와 유사. 우금티라는 고개는 특정되지만, 우금티 전투 영역을 매우 넓었습니다. (예, 송장배미-우금티만 하여도 3km정도, 그 반대 방향 오실-우금티는 2.5km)

○ 10쪽.

⇒ 황토현 전투지의 위치 확인을 위해서도 황토현 전투 날짜 및 농민군과 관군 측의 이동 경

로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합니다. 특히 농민군이 황토현 일대로 이동하고 모이기 시작한 시점, 관군과 보부상 등이 이동하고 모이기 시작한 시점 등을 정확히 비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부안의 농민군들은 4월 5일 부안 城隍山으로 옮겼다. 이날 정읍에서 올라온 농민군 수백 명도 여기에 합세하였다. 세를 불린 농민군은 관군이 협공을 꾀하자 4월 6일 아침부터 부안을 빠져나오기 시작하여 고부의 도교산으로 옮겨 주둔하였다.^{*2)} 이에 감영에서는 병정과 別抄軍과 裸負商을 도교산으로 파견하였으며, 농민군과 이들은 黃土峴에서 맞닥뜨려 4월 6일 오후 4시 경부터 접전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태인에 남아 있던 농민군들도 4월 6일 밤에는 고부 도교산으로 이동하여 그곳의 농민군과 합세하였으며, 다음날인 4월 7일 새벽 황토현 전투에서 농민군은 감영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 지금 4월 초 6일 진시(辰時), 오전 7~9시에 부안현 공형이 낸 문장(文狀)에서, “부안현감이 저들에게 곤욕을 당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며, 공형 또한 저들에게 주리를 틀리고 매우 맞아서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습니다. 주둔한 저들 무리들은 군기를 빼앗아, 그날 진시 무렵에 남쪽대로를 향하여 갔으며, 그들이 간 것은 아마도 고부군으로 향하는 길을 택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수록)

* 5일 경군은 李光陽 (감사의 처남)·李在奕·宋鳳岩 등 營兵 250명을 중견으로 하여 무려 7,000~8,000명의 고용병을 이끌고 동학군과 對陣하였고 명령을 전하여 줄포의 경군과 함께 합공하려고 하였다.(고부민요일기)

2) 태인과 부안에 있던 농민군이 고부 도교산으로 이동한 날짜와 시각에 대해서는 사료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어떤 자료에는 4월 7일에 이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4월 7일 새벽에 도교산 황토현에서 監營軍을 격파한 농민군은 곧장 정읍으로 향하여 오후 2시경에는 정읍 蓮池院과 茅川 강변에 둔취해 있었고(『隨錄』, 175쪽, 172쪽), 그 날 밤 8시에는 정읍 관아를 공격하였다(『隨錄』, 175쪽; 『兩湖剿討臚錄』, 166쪽). 따라서 『隨錄』과 『兩湖剿討臚錄』에 나오는 태인현감 洪冕周의 牒呈 내용 가운데 태인 인곡 북촌에 주둔해 있던 농민군이 고부 도교산으로 이동한 시각인 “當日 戌時”는 4월 6일 밤 8시로 보은 것이 타당할 것이다(『隨錄』, 172쪽; 『兩湖剿討臚錄』, 163쪽). 이때는 이미 고부 도교산 옆에 있는 黃土峴에서 부안으로부터 이동한 농민군과 영군 간의 전투가 시작된 다음이므로 태인에 있던 농민군도 이 소식을 접하고 합세하기 위해 고부 도교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또 4월 8일 고부군수 박원명이 보고한 첩정 가운데 태안과 부안에 둔취해 있던 농민군이 고부 도교산으로 이동하였다는 시각인 “昨日 午時” 역시 4월 6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隨錄』, 171-172쪽; 『兩湖剿討臚錄』, 163-164쪽).

* 6일 밤 줄포의 경군이 전선에 도달하였다. 한 발의 신호포가 울리면서 전투가 벌어졌다. 밤은 깊어가고 어둠이 짙어져서 판별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상한 것은 적진의 응사가 느린 것이었다. 10발을 쏘면 겨우 한 발을 응사하였다. 경군이 돌진하여 일거에 假城 (이때 동학군이 짚으로 가성을 만들었다)에 들어가자, 적이 이미 전후에서 탄환을 비 오듯이 쏘아 이광양 이하 장병 대부분이 죽어 사상자를 헤아릴 수 없었고 패잔병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허무하게도 황토산 언덕에는 선혈이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다. 그리하여 이곳으로 도망쳐 온 패잔병들은 그날 아침 우연히 稅米를 실으러 온 조선 기선에 구조되어 그날 인천으로 출발하였다.(고부민요일기)

** 4월 7일 아침 패주하여 온 병사들이 빈번히 배를 구하려고 애걸하였다. 매어 놓은 배를 나 먼저 타겠다고 닳을 올리고 출항하는 것을 보았다. 얼마 안 있어 내가 타고 있는 배에도 왔다. 처음에는 어느 편인 군대인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했다. 언덕으로 도망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작은 길로 달음질쳐 오는 자 등 그 수가 200여 명이 되었다. 얼마 안 되어 내 친구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사건 내용을 말하는데, 어젯밤 이곳에서 30리쯤 떨어진 고부의 黃土山에서 격전이 벌어졌는데 경군이 대패하여 사상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걸어서 도망친 병졸은 겨우 몸만 빠져나왔다는 것이다. 전투 상황을 들어보니 다음과 같다.

** 4월 초 7일 오시(午時)에 낸 금구현의 보고에, 저들 무리들이 고부 황토산 영진으로 진을 옮겼다고 하며, 또 황토산 아래에 진을 쳐서 신시(申時) 무렵 접전을 하였고, 그날 동이 틀 때에 패주하여 도망쳐서 각처로 흩어졌다고 합니다.(수록) => 신시는 4월 6일 오후 4시일 수밖에 없음

*** 4월 초 8일 인시(寅時)에 낸 정읍현의 보고에 저들 무리 수천 명이 4월 초 7일 미시(未時)에 고부의 경계에서 이곳에 도착하여 정읍현의 경계 연지(蓮池) 모천(茅川) 강변에 모여 있다고 하였습니다. 술시에 곧바로 읍내로 향하였다고 합니다.(수록)

○ 왜 ‘동학농민군’ ‘농민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동학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지요?

○ 9쪽. 東鶴史 → 東學史 등

주제발표 2

황토현 전적의 기념사업 추이

발표 조 광 환
동학역사문화연구소 소장

I. 시작하는 말

황토현 전적은 현재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3번지 일대에 위치한 해발 35.5미터의 황토로 이루어진 언덕으로, 동학농민군이 관군을 상대로 최초의 전투를 벌여 최대의 승리를 거둔 역사적인 장소이다.

1894년 4월 7일(양력 5. 11), 황토현 전투의 승리로 인해 동학농민군의 사기가 크게 높아졌으며, 관망하고 있던 각 지역의 백성들이 자신감을 얻고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하게 되어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은 조선정부와 일본군에 의해 철저히 진압되었고 결국 일제강점기로 접어들면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평가는 일제와 관찬 사료, 그리고 유림의 기록에 나오는 ‘동학란’ 또는 ‘동학당의 난’ 등으로 왜곡되고 평가절하 되어 왔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도 일부 학자들은 일제의 사상 통제를 피하기 위해 비록 ‘동학란’이란 명칭을 썼지만 그 의미를 새롭게 평가하기도 하였는데 김제 출신의 역사학자인 김상기가 대표적이다. 김상기는 『동학과 동학란(東學과 東學亂)』이라는 제목으로 1931년 동아일보에 36회에 걸쳐 연재하였으며 이를 묶어 1947년 대성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간행하였다. 이 책에서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전봉준으로 말미암아 표현된 고결한 혁명사상은 조선민중운동사상에 일대 선구를 이루었다”고 하였다.

해방 이후 1950년대를 거치면서 반봉건 반외세의 기초위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1958년 김용섭의 「전봉준공초의 분석」이란 논문이 대표적이었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4·19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재조명의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하여 동학농민혁명의 문학적 형상화 작업에서 가장 획기적인 성과로 꼽히는 신동엽의 서사시 「금강」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런 분위기에 고무되어 1963년 10월 3일 뜻있는 인사들에 의해 정읍 황토현에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 건립되었다. 이 탑의 건립으로 동학농민혁명이란 사건이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부정적인 시각 대신 긍정과 관심이 커지는 이른바 세인들의 인식의 전환도 가져왔다. 또 이 탑의 건립을 계기로 동학농민군의 황토현 전투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여러 사업이 1983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지금에 이르렀다.

이에 본 발표문은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건립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지난 60여 년 간 다양한

주체에 의해 추진되어온 황토현 전적 기념사업의 전개과정과 현재 남아있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시설 현황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황토현 전적 기념사업의 단계별 구분과 현황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은 동학농민군의 황토현 전투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1983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일대에 조성되었다. 황토현전적지를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은 총 4단계에 걸쳐 이뤄졌다.

1단계 사업의 시작은 1963년 10월 3일 황토현에 동학농민군의 승전을 기념하는 최초의 조형물인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 건립되면서부터였다.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 건립을 계기로 1967년 12월, 전북지역의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를 발족하여 이듬해인 1968년부터 매년 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개최하여 왔다.

2단계, 1980년 5월 11일 제13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개최되었을 당시 야당 지도자인 김대중이 참석하여 정치발언을 했다는 구실로 전두환 신군부세력은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인 이희우를 구속하였고 1980년 12월 1일에는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도 강제로 해체시켰다.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를 해체한 신군부는 민간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억압하는 한편 취약한 정권의 정통성을 동학농민혁명과 연계함과 동시에 지역 민심 수습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에 나섰다.

1981년 2월, 전두환은 영광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한 뒤 정읍군에 들러 당시 정읍군수실에서 기관장 및 지역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자리에서 “전봉준은 우리 전(全)씨이기도 하며 위대한 군인이었다.”라며 전봉준 장군 유적지 성역화 사업의 연차적 추진을 약속했다.

전봉준 장군 유적지 성역화 사업은 1983년 12월부터 시작되어 황토현 동남쪽 기슭에 황토현기념관이 자리하게 되었다. 1987년 12월에는 전봉준동상이 건립되었으며 1992년 12월에 사당(祠堂)인 구민사(救民祠)가 건립되었다.

3단계 사업은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역대 정권에 의해 왜곡되어 온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바로잡고 그 정신사적 가치에 걸맞은 기념사업을 위해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현 황토현 일대에 교육관과 전시관 등의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2004년 3월 5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었고 2004년 5월 11일,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번지 일대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새로 개관되었다. 전라북도청에서 관리사업소를 두고 관리·운영해 오다가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동학농민혁명에 관련된 각종 책자와 문서, 무기, 생활용품 등을 전시·보존하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건립인 것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은 2014년부터 32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30만1천329㎡ 규모에 전시실, 추모관, 연구동, 연수동 등으로 조성되었다. 공원 중앙에는 전국 아흔 개 지역에서 탐관오리와 외세 침략에 저항해 분연히 일어난 동학농민군을 상징하는 아흔 개의 ‘울림의 기둥’이 세워졌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개원과 더불어 2022년 6월 25일, 정읍시는 그 동안 친일작가 작품이란 지적을 받아온 전봉준 장군 동상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동학농민군 행렬을 형상화한 작품인 동학농민군 군상(群像)을 ‘불멸, 바람길’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설치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4단계로 진행된 황토현 전적 기념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하여 관련 기록과 참여자들이 남긴 회고록 및 증언 등을 통해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이와 관련해서 그간 왜곡되어 왔거나 자칫 묻혀버릴 수 있는 숨어있는 내용을 찾아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1. 1단계 사업 :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건립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은 1960년대 이전까지는 전무한 상태였다. 기념사업의 시작은 현 사업부지에 위치한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 1963년에 세우지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의 건립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3년 초 전북일보 편집부장 겸 문화부장 이치백은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명예교수인 김상기를 취재하였다.¹⁾ 이 자리에서 김상기가 이치백에게 동학농민혁명을 높이 평가하면서 관

1) 『최현식과 동학농민혁명사 연구』, 2006. (사)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도서출판 갈채, 119쪽. “그가(이치백) 서울대학교 역사학과의 김상기 박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기념탑 건립에 관한 의견이 최초로 나왔다고 알려져 있다.”

심을 가져보라 하자 이에 이치백은 신문에 연재할 글을 부탁하였다. 그 후 김상기는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글을 200자 원고지로 30매 정도를 써주었다. 이글은 전북일보에 사흘간 연재되었는데 마무리로 혁명의 의의와 더불어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물을 건립을 제안하면서 글을 맺었다.²⁾

이후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3년 7월 어느 날 오후 7시, 전주 어느 주점에서 우연히 김인(金仁) 전라북도 도지사를 만나 합석한 자리에서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물 건립 얘기를 꺼냈다. 이에 김인은 즉석에서 전화를 걸어 도공보실장 문필명에게 지시를 내렸다. 다음날 오후 3시경 당시 농협 도지부장 황의선(黃義善), 정읍군수 유범수(柳凡秀), 전라북도 공보실장 문필병(文弼炳)이 전북일보 이치백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 자리에서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하 기념탑)을 세우기로 이야기를 모으고 건립추진위원회를 조직했다.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당시 전북대학교에 재직 중인 가람 이병기(李秉岐)를 선임하고 부위원장에는 황의선(전라북도 농협지부장), 박용상(朴龍相·전북일보사 사장), 황면주(黃冕周·전주지법 부장판사, 향토사학자) 등으로 정하였다. 고문에는 김인(전북지사), 김상기(金庠基·서울대 명예교수), 이홍직(李弘植·고려대 교수)을 추대하였으며 유범수, 문필병, 이치백 등 실무추진위원을 두었다.³⁾

그 후, 수차례 임원회의를 거쳐 1963년 10월 중순까지 정읍 황토현에 기념탑을 건립할 것을 결의하고 곧바로 추진하였다.⁴⁾ 처음에는 건립 장소 선정을 놓고 이견이 있었다. 최현식은 “전주에 기념탑을 세우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안한 장소는 완산칠봉이었다. 완산칠봉이라면 관군이 야포를 설치하고 동학군을 향해 쏘아댄 곳이었기 때문에 전혀 터무니없는 발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동학혁명의 발원지에 세우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쪽으로

2) 『황톳재의 함성』, 2001. (사)갑오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천지문화사, 178쪽. “내가 이같이 동학혁명기념탑 건립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동빈 김상기 박사께서 수차에 걸쳐 이 사업에 협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던 차 김인 지사를 만나서 이야기 해 본 것이 의외로 일이 순조롭게 풀려 마침내 이 일이 성사된 것이다.”라고 회고하여 기념탑 건립에 관한 최초의 의견은 김상기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3) 이치백, 『새전북신문』, 2010.05.20.기사, 「전북의 기억(37) 황토현 갑오동학혁명 기념탑 건립」

4) 『황톳재의 함성』, 179 쪽, 이치백은 정읍 황토현에 건립해야한다는 최초의 주장을 한 사람은 황면주였다고 밝히고 있다.

마침내 뜻이 모아져 최초의 전투 승리를 기념하는 의미로 황토재를 떠올린 것이다.”라고 하였다.⁵⁾

기념탑 건립기금은 전북도, 도 농협, 정읍군에서 각각 백만 원씩 내놓기로 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교통체신위원장이었던 박두선(朴斗先)장군(정읍 입암출신)이 박정희 의장에게 건의하여 백만 원을 얻어와 총 4백만 원의 기금이 마련됐다.⁶⁾

이에 대해 당시 서울신문 정읍주재기자였던 최현식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건립을 위한 재정은 주로 추진위원회에서 각계의 후원금을 얻어 마련했지만(당시 기념탑을 건립하는 과정에는 공화당도 음으로 양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특히 그해에는 형식적이거나 민정 이양을 위한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화당으로는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념탑은 그런 공화당에게 전라도 중부권의 표를 집결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그런 정략적 계산에 따라 20만원이라는 거금을 공화당은 그 사업에 희사했다.”⁷⁾

즉, 기념탑 건립을 위한 재정은 주로 각계의 성금을 통해 마련했지만 당시 형식적이거나

5) 『최현식과 동학농민혁명사 연구』, 120쪽.

6) 이치백의 위의 글. 그러나 이에 대해 이치백은 다른 언론인 전북중앙(2010. 04. 06)에 다음과 같이 기념탑건립 기금을 4백만 원이 아닌 4천만 원으로 밝혔다. 이는 기억의 혼동으로 보이며 4백만 원을 잘못 말한 것으로 보인다. “1963년 서울대 문리대 학장을 지낸 김제 백산 출신 김상기 교수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 동송동 관사에서 만나자고. 김 교수는 우리나라 국사학계의 거물이야. 나중에 갑오혁명기념사업회 회장도 지낸 분이지. 그래서 이튿날 서울로 갔지. 만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을 펼치는데 전북 일보가 자료나 문헌 수집 등을 좀 도와달라는 거야. 전북이 혁명의 발상지이기 때문이지. 당시로서 동학혁명을 다룬다는 것도 역시 혁명적이었지. 그래서 김 교수에게 부탁해 전북일보에 기획 기사를 3회 연재하기도 했지. 그런데 그해 6월 도청 앞에 지금도 영업하고 있는 ‘행원’복도에서 도 단위 기관장들과 모임을 하던 김인 도지사를 우연히 만났어. 김 지사는 경북 상주출신으로 현역 군인이었지만 서울공대를 졸업한 엘리트로 다른 군인들보다 사고가 트였던 것 같아. 김 지사에게 말했지. ‘이제 시대가 바뀌어 동학혁명은 말 그대로 혁명이란 난이 아니다. 혁명 발상지인 정읍에 기념말뚝하나 박자’고. 흔쾌히 승낙을 하더군. 다음날 오후 3시께 당시 농협도지부장이던 황의선(예비역 중령, 전남), 정읍군수 유범수(예비역 중령, 완주), 공보실장 문필병(후일 부안, 임실군수 역임)등 세 사람이 신문사로 찾아왔지. 바로 그 자리에서 기념탑건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지. 당시 농협, 전북도, 정읍시가 각각 1천만 원을 내놓았어. 이후 최고위원회에서 1천만 원을 보태 총 예산 4천만 원으로 탑을 세웠지. 최고위원회에 있던 정읍출신 박두선씨 도움으로 1천만 원이 더 내려왔지. 아무튼 그해 10월에 열렸던 당시 제막식에 5만 명이 참가했을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어. 바로 이 기념탑 건립으로 인해 이영춘, 김해강, 신석정 등 쟁쟁한 분들이 탔던 ‘전북문화상’을 받는 영광도 누렸다네.”

7) 『최현식과 동학농민혁명사 연구』, 121쪽.

민정 이양을 위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정략적 계산에 따라 공화당에서 일부 성금을 냈다는 것이다.

마침내 1963년 10월 3일 개천절을 기해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 1894년의 농민봉기를 기념하기 위해 18.94m의 높이로 세워졌다. 탑신부에 한자로 ‘제폭구민(除暴救民) 보국안민(保國安民)’, 기단부에 ‘갑오동학혁명기념탑(甲午東學革命紀念塔)’이란 글씨가 쓰여 있는데 강암 송성룡이 썼다.⁸⁾

탑 왼편에는 김상기가 지은 ‘갑오동학혁명기념탑 명문’이 새겨진 비가 있고 그 뒷면에는 ‘새야 새야 파랑새야’와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병신되면 못가보리’라는 구전 참요가 새겨져 있다. 탑 오른편에는 동학농민군 부조상이 있다.

이밖에 ‘갑오동학혁명의 노래’도 제정기로 하고 노래 글은 시인 신석정(辛夕汀) 선생, 작곡은 서울대 음악대학장 김성태(金聖泰) 교수에게 위촉했다. 이 노래는 기념탑 제막식 나흘 전인 1963년 9월 29일자 전북일보에 발표되었다.

〈갑오동학혁명의 노래〉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징을 울려라 죽창도 들었다
이젠 앞으로 앞으로 나가자
눌려 살던 농민들이 외치던 소리
우리들의 가슴에 어련히 탄다
갑오동학혁명의 뜨거운 불길
받들고 나아가자 겨레의 횃불
오늘도 내일도 더운 피 되어
태양과 더불어 길이 빛내자

8) 『항투재의 함성』, 178쪽, 이치백 님 대담 녹취록에서 “제폭구민, 보국안민 기념탑 글씨가 강암선생 글씨고 못 쓰신다 하시는 것을 내가 역할해서 받아다 썼고<이하 하략>”라고 하여 강암 송성룡의 글씨임을 밝히고 있다.

기념탑 건립사업은 순조로이 진행되어 마침내 1963년 10월 3일, 황토현 현지에서 제막식을 가졌다. 기념탑 제막은 이날 식전에 임석했던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과 이병기 회장이 나란히 서서 했다. 당시의 제막식 과정을 이치백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63년 10월 3일 개천절 날 황토현에 5만 명이 모였어. 오후 3시에 박정희 의장이 내려왔고 군정 때니 선거직전이지. 박정희 의장 축사에서 우리 아버지도 동학군이였다 이거여. 관군에 붙들렸으나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풀려나서 내가 태어나 오늘 여러분 앞에 섰다고, 대구 사람이고 천도교가 경주에서 시작했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 세 번을 말했어. 어떻게를 ...”

이상의 기념탑 건립과정을 종합해보면 처음 제안자는 역사학자 김상기였다. 김상기가 먼저 전북일보 기자인 이치백에게 만남을 요청하자 이치백은 서울 동승로에 있는 김상기의 숙소를 찾아가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상기는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을 펼치고자하는데 전북일보가 나서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이때 김상기가 말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이란 기념탑 건립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전주로 내려온 이치백이 사석에서 우연히 만난 김인 전북도지사에게 “**발상지인 정읍에 기념말뚝하나 박자**”는 제안을 하였다. 김인 지사가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자 기념탑 건립사업은 이내 급물살을 타 다음날 전북농협도지부장 황의선, 정읍군수 유범수, 전라북도 공보실장 문필병이 이치백의 전북일보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여기서 이들은 기념탑 건립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고 마침내 1963년 8월 25일 전주에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후 건립추진위원회가 전북일보에 기념탑 건립 취지 기사와 더불어 성금 모금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자 이에 공감하는 뜻있는 사람들이 성금을 기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사업의 결실이 맺어져 황토현에 1963년 10월 3일 1894년의 농민봉기를 기념하기 위하여 18.94m의 높이로 기념탑이 세워졌고 제막식을 개최하였다.

한편 기념탑 제막 전, 박정희의 대통령 출마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활동하던 박두선⁹⁾은 전북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념탑 건립 사업에 대한 정보를 박정희에게 전하며 이 사업에 동참

9) 박두선은 일본 도쿄항공대학과 국방대학원을 나와 1962년 공군 준장으로 예편한 뒤 국방부 인사국장을 거쳐 한국광업제련공사 사장을 지낸 뒤 1967년 민주공화당 소속으로 국회에 진출했다.

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호남 표를 의식한 박정희는 약간의 건립성금을 기부하고 개막식 행사에도 참석하여 기념사까지 하였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민간 중심으로 추진된 기념탑 건립사업의 전말을 잘 모르는 몇몇 인사들이 박정희가 건립성금의 일부를 기부하고 개막식 행사에도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기념탑이 박정희 정권에 의해 추진되고 건립되었다는 추측성 언급을 마치 사실인냥 단언하거나 심지어 언론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엄혹한 시절 모두가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했던 선배들과 성금을 낸 분들의 순수한 열정을 모독하는 발언임이 이 기회를 통해 밝히며 이와 같은 일이 또 다시 재발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

물론 “박정희 정권이 동학농민혁명을 반란에서 혁명으로 개념화하고 일정한 기념시설을 통해 표상화하고자 한 것은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동학혁명에서 혁명의 정통성을 찾고자 한 것이다.”¹⁰⁾라고 지적한 김양식의 말처럼 박정희 정권은 불법적인 5·16군사쿠데타를 동학농민혁명과 동일시하여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기념탑의 건립으로 이때까지만 해도 ‘동학란’으로 불려진 이 사건이 ‘혁명’으로 격상되는 계기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묻혀있던 동학 관련 자료가 새롭게 발굴되기 시작하였다.¹¹⁾

또 이를 통해 전국 각 동학농민혁명전적지에 동학농민군 후손이나 천도교 측에서 적극 나서 기념탑 등 조형물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10) 김양식, 202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개원의 의미와 미래비전」, 『동학농민혁명 미래의 중심이 되다』 31쪽.

11) 최현식의 앞의 책, 124쪽에 “당시 5·16 쿠데타세력은 자기들의 행동을 쿠데타가 아닌 혁명으로 미화시키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바로 그런 그들의 생각과 동학이 일정하게 접점을 찾아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학란을 동학혁명으로 격상시킨 겁니다.”라고 하였다.

12) 『황토재의 함성』, 183 쪽, 한명수님 대담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담겨있다. “그 뒤 더 발전적으로 할 줄 알았는데 황토현비만 건립하고는 그만이어서 2년 뒤에 황면주씨가 변호사할 때 단체를 하나 만들자고 했어. 처음에 이상비 씨가 배영중학교 앞에 살 때 김상성 씨 하고 얘기가 되어서 발기위원으로, 기념사업회 발기위원이 이상비, 김상성, 김순일 그리고 고인이 된 정읍사진관 했던 김기동 씨, 오재근 씨(정읍극장 전무) 등이 했어. 김상성 씨 집에서 만나다가 최초 모임을 정읍사진관 2층에서 했어. 그 후 2차로 발기인에 들어온 사람이 최동문 씨 그리고 성종환 씨 1년 후에 신태근 씨, 성병문 씨 등을 66년도에 추가를 했고 고성주 씨도 2차 발기위원에 들어왔고 이때 기념행사를 정읍여중 강당에서 간단히 했던 것 같아. 그 뒤 67년에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표1.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건립과 제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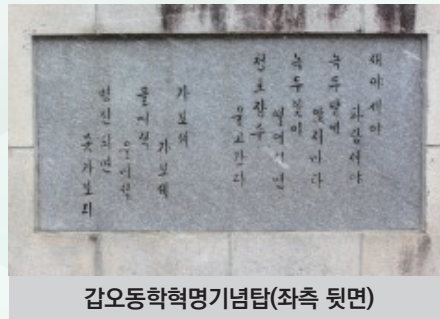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갑오동학혁명기념탑(우측 부조)



갑오동학혁명기념탑(좌측 비문)



갑오동학혁명기념탑(좌측 뒷면)



박정희 축사(출처: 국가기록원)



기념탑 앞 박정희(출처: 국가기록원)

2. 2단계 사업 : 갑오동학기념사업회 해체와 ‘전봉준장군 유적정화사업’의 시작

1) 갑오동학기념사업회 해체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건립이라는 목적이 달성된 이후 더 이상 추진되는 사업이 없었다. 당시 정읍에서 문학청년이었던 이상비(원광대 교수)가 몇몇 젊은이들과 함께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추진하려다가 동력이 약해 그만두었다. 1년 후 전공우가 최현식을 찾아와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 조직을 제안하였다.¹²⁾

마침내 1967년 12월 전북지역의 뜻있는 분들 30여 명이 참여하여 기념사업회를 발족하였

고 전용필이 초대회장에 선임되었다. 기념사업회의 건립 목적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였기에 제1회 ‘갑오동학혁명기념문화제(이하 기념문화제)’를 정읍농고 교정과 황토현 등에서 1968년 4월 25일~26일 양일간에 걸쳐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그러던 중 서울의 봄이라 불렸던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 일주일 전인 5월 11일 ‘제13회 갑오동학혁명기념문화제’는 또 하나의 작은 역사를 남기게 된다. 매년 ‘기념문화제’ 행사시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에 초청장을 발송했으나 이때껏 참석자는 없었다.

그러나 그 해 4월 당시 야당 정치지도자인 김대중이 참석의사를 밝혀오자 기념사업회 이사회에서는 야당 대표인 김대중(전 대통령)의 초청문제를 놓고 찬반논란이 벌어졌다. 끝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이희우 회장에게 최종결정을 위임하였다. 이희우 회장은 김대중을 초청하기로 결심하고 정읍 우체국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전주로 가서 초청장을 발송하였다.

비록 초청장을 보냈다 하지만 김대중이 실제로 정읍을 방문할지는 미지수였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김대중 측으로부터 기념문화제에 참석하겠다는 답신이 왔다. 1980년 5월 10일 언론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사 참석이 발표되자 정읍경찰서, 안기부, 보안대에서 이희우 회장과 최현식 등을 불러 초청철회 압력을 가하였다.

이러한 압력에 완강히 저항하자 결국 참석은 허락하되 축사를 5분 이내로 제한 할 것, 정치 구호 담긴 현수막 철거 등의 몇 가지 타협안을 내놓았다. 마침내 행사 날이 다가왔고 1980년 5월 10일에는 1974년 호남고속도로가 개통된 이래 가장 차가 밀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정읍으로 밀려들었다. 그날 저녁 6시경 이희우 회장과 최현식은 김대중이 묵고 있는 내장산 명동장 여관을 찾아갔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김대중에게 내일 행사장에 현수막을 걸지 않도록 해줄 것과 축사를 10분 이내로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침내 1980년 5월 11일 제13회 기념문화제가 정읍농고에서 개최되었는데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정읍농고 운동장에는 정치 구호가 담긴 수많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최현식과 기념사업회 임원들은 일일이 현수막을 떼어냈다. 이는 이후의 파장을 예상하고 이를 최소화하려는 고심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김대중의 당시 연설은 보안대장이 기념사업회 측에 전하기를 18분 동안 진행되었다고 하였다.¹³⁾ 김대중은 동학농민혁명의 현재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동학혁명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위대한 혁명입니다. 농민혁명의 정신을 계

승한 것은 3.1운동과 4.19혁명이고, 현재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그 정신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의 발언은 서울의 봄을 구가하던 민중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대변한 것으로서, 과거 박정희 정권의 역사인식에 대한 거부였고 신 군부의 집권행보에 맞선 것이었다. 결국 신군부세력은 이 일을 구실삼아 기념사업회 이희우 회장과 당시 정읍군수, 내무과장 등을 구속하였고 일주일 후인 5월 18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연행당하고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마침내 광주에서는 시민항쟁이 전개되었으나 신군부에 의해 잔혹하게 진압되었으며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정치는 암흑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기념제 행사가 끝나고 5월말부터 관계기관의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해 12월 기념사업회 문제로 논의하자고 정읍군수실로 기념사업회 임원진을 불렀다. 이 자리에서 박종록 신임 정읍경찰서장은 상부의 지시라며 기념사업회 해체를 요구하였다.

이에 기념사업회 측은 1970년 초반부터 황토현에 기념관의 건립, 추모비와 동상의 제막, 동학군들의 영혼을 모시기 위한 사당 건립 등을 계획했다며 이 사업 추진을 내세워 해체할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황토현 사업을 관(官)에서 맡아서 추진하겠다는 회유와 압박으로 결국 1980년 12월 1일, 기념사업회는 강압에 못 이겨 해체되고 말았다.

〈표2. 1980년 제13회 갑오동학혁명기념문화제〉



1980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김대중



기념행사에 참석한 인파



기념사를 하고 있는 이희우



최현식과 기념사업회 임원들

13) 최현식의 앞의 책, 212쪽.

2) ‘전봉준장군 유적정화사업’의 시작

기념사업회 해체 이후 기념문화제와 황토현 기념관 건립사업은 관변사업으로 이관되었고 황토현 기념관은 국민을 짓밟고 올라선 전두환의 손으로 건립되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펼쳐졌다. 그러나 이 또한 기념사업회 관계자 분들의 기본구상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념사업회를 해체시킨 신 군부는 민간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억압하는 한편 취약한 정권의 정통성을 동학농민혁명과 연계함과 동시에 지역 민심 수습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에 나섰다. 1980년 ‘전봉준 장군 유적 정화 기본계획수립’사업을 통해 기념탑 부근을 넘어 처음으로 전적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당시 사업은 남측의 넓은 대지를 기준으로 대규모 사업을 예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1982-83년도에 ‘전봉준선생 유적정비 1차 공사’사업이 진행되었다.¹⁴⁾

황토현 전적지는 1976년 4월 3일 전라북도의 기념물 제34호로 지정되었다가, 1981년 12월 10일 대한민국의 사적 제295호로 승격, 지정되었고, 2011년 7월 28일 고시로 현재의 명칭인 정읍 황토현 전적으로 변경되었다.

1981년 정읍군이 시로 승격되면서 명칭을 정읍에서 정주(井州)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정주시와 정읍군으로 행정구역이 이원화되는 바람에 기념문화제를 어디에서 주관할 것인지도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정읍군 덕천면에 황토현과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 있다는 이유로 정읍군에서 승계하였다.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이끌어 왔던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황토현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라고 정읍군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1981년 2월, 전두환은 영광원자력발전소 기공식에 참석한 뒤 정읍에 들러 당시 정읍군수실에서 지역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자리에서 “전봉준은 우리 전(全)씨이기도 하며 위대한 군인이었다.”라며 이른바 ‘전봉준 장군 유적지 성역화 사업’의 연차적 추진을 지시했다. 이러한 지시에 의해 황토현 동남쪽 기슭에 황토현기념관이 1983년 12월부터 건립되기 시작하여 1985년 마침내 완공되었다.(부지 63필지(150,597.7㎡)에 연면적 6,066.56㎡)

14) 『정읍 황토현 전적 종합 정비계획 수립 용역』, 2024,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읍시청 (문화행정국 동학문화재과), 170쪽.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황토현기념관으로 진입하는 첫 번째 시설은 제세문(濟世門)이다. 제세문은 ‘세상을 구제하는 문’이라는 뜻으로 황토현 전적 사역 진입을 위한 외삼문이며, 외부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기념관 입구이다. 3칸 형태의 평삼문으로 건립되어 있고, 지붕은 맞배지붕 형태이다.

〈표3-1. 황토현 기념관, 제세문〉



제세문(濟世門)



제세문 원경

황토현 구 기념관의 제세문(濟世門)을 들어서면 좌측에 ‘황토현전적지 정화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이 비는 사다리꼴 모양 위에 검정색 원형 석판을 전면과 후면에 덧대고, 음각으로 비문의 내용을 새겨 넣는 방식으로 건립되었는데 그 뒷면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다.

황토현전적지 정화기념비문(黃土峴戰迹地 淨化記念碑文)

“濟世安民(제세안민)과 倭夷殲滅(왜이섬멸)을 旗幟(기치)로 倡義(창의)한 甲午東學農民蜂起(갑오동학농민봉기)는 反封建(반봉건) 反侵略(반침략)의 農民戰爭(농민전쟁)으로서 韓國近代史(한국근대사)에서 찬연히 빛난다. 위대한 先覺者(선지자) 全瑋準(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農民軍(농민군)은, 東學(동학)의 조직과 힘을 통하여, 王朝末(왕조말)의 구조적인 矛盾(모순)을 개혁하고, 外勢(외세)를 驅逐(구축)하며,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높은 理想(이상)을 具顯(구현)하기 위하여 封建社會(봉건사회)의 解體(해체)와 民族(민족)의 力量(역량)을 結集(결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겨레와 나라의 앞날을 위하여, 자신을 불사른 농민들의 自主精神(자주정신)은, 近代的(근대적)인 民族意識(민족의식)을 胎動(태동)시켜 義兵戰爭(의병전쟁)으로 그 命脈(명맥)이 달았고, 뒷날 三一運動(삼일운동)으로 이어지는 抗日救國鬪爭(항일구국투쟁)의 큰 줄기를 이루었으니, 그 정신은 앞으로도 民族運動(민족운동)의 號召(호소)로서 우리 가슴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民族正氣(민족정기)를 드높인 先烈(열사)들의 거룩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全斗煥大統領(전두환대통령)의 諭示(유시)로 큰 싸움터였던 이곳을 淨化(정화)하고 碑(비)를 세운다.”

1987년 10월 1일

國史編纂委員會(국사편찬위원회)

委員長(위원장) 朴永錫(박영석) 지음

書藝家(서예가) 權甲石(권갑석) 씀

이 비와 유사한 양식이 강화도와 제주도 삼별초항몽유적비에서 발견된다. 이 비문은 여러 차례 수난을 겪기도 하였다. 답사 객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전두환대통령’과 ‘정화’라는 글귀에 돌로 쪼아놓거나 긁어놓기 일쑤였다. 그때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새롭게 보수하였고 결국은 그마저 둔기로 쳐서 여러 조각을 내 버렸다. 그리고 근처 하수구 빗물받이로 방치되어 있다가 보존가치가 있다는 여론에 의해 현재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다.

〈표3-2. 황토현기념관, 황토현전적지정화기념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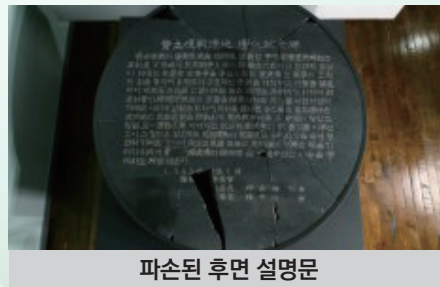
황토현전적지정화기념비(전면)



황토현전적지정화기념비(후면)



긁힌 후면 설명문



파손된 후면 설명문

제세문을 지나면 내삼문인 보국문(輔國門)이 나온다. 보국문은 제세문과 마찬가지로 3칸 형태의 평삼문으로 건립되어 있고, 지붕은 맞배지붕 형태이다. 그리고 보국문을 들어서면 우측에 황토현기념관(구 기념관, 137㎡)이 나온다. 황토현기념관은 1983년 유적 정화사업 당시 첫 번째로 지어진 건물이다. 기념관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조, 지붕은 팔작지붕 형태에 시멘트 기와를 얹은 형태로 건립되어 있다. 형상은 전각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단청으로 외부가 치장되어 있다.

〈표3-3. 황토현기념관과 전두환 기념식수〉



기념관



전두환 기념식수

시설물 내부에는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기록화 4점’이 주요 전시물로 있다. 기록화를 그린 이의주 화백은 1926년 전북 전주 태생으로 70년대 이후 부산에 뿌리를 내리고 미술교육과 창작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서양화가로 남원 만인의충, 부산 충렬사의 역사기록화를 그렸다. 부산대, 동아대교수를 역임한 그는 국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을 지냈고 국전 대통령상, 늘원문화상, 국민훈장 석류장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표3-4. 황토현기념관 내부 그림〉



기념관 내 역사기록화(3월 농민봉기)



기념관 내 역사기록화(집강소)



기념관 내 역사기록화(척왜 9월 봉기)



우금치전투(일본군과의 격전)

1985년 11월 15일 호남선 복선철도화가 완공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정읍에 온 전두환은 정읍군청을 순시하여 황토현에 강당과 동상, 사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을 듣고 다시 제2차 사업을 약속하였다.

국가기록원 자료에 의하면 1985년 11월 29일 청와대 회의실에서 ‘전봉준장군 유적 정비 관계관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는 청와대 비서관, 내무부와 문교부 국장,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실장, 문공부 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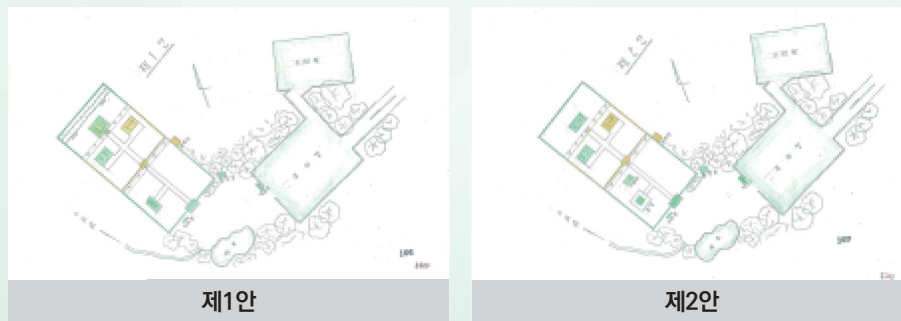
회의 내용은 주로 유적 정비에 따른 재원 마련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문공부와 전북도가 70대 30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청와대 비서관 오모씨는 “**각하**지시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말씀이 일본은 없던 것도 만드는데 우리는 있는 것을 잘 조성하여야 할 것이니, 이 유적지는 문공부가 주관하고 다른 부서가 협조하여 잘 정비하도록 하고, 이 유적지는 90년 전 항일전쟁의 차원에서 보존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고 언급하였다.

또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김대중의 저서를 내보이며 “**전봉준 장군과 동학란에 대한 역사**

적 정의가 선결문제로 김대중 등 반체제 사람들이 민중선동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였다. 그리하여 강당과 동상 건립이 시작되어 1987년 완공을 보게 되었다.

원래 기념사업회 쪽에서는 ‘전봉준 선생 동상’ 자리에 사당을 지으려고 하였다. 외삼문과 내삼문을 거쳐 중앙에 사우가 들어서는 것이 전통적인 사당의 모습이다. 정부는 제1안으로 중앙에 ‘전봉준 선생 동상’을 설치할 계획을, 그리고 제2안으로 사당을 건립할 배치도를 놓고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제1안을 선택하였다. 황토현 기념사업이 ‘전봉준장군 유적정화 사업’이란 이름 그대로 전봉준만을 중심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¹⁵⁾

〈표3-5. 황토현기념관 설계도면(출처: 국가기록원)〉



당시 중앙일보(1987.12.10.)는 「전봉준장군 유적 정화 마무리」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¹⁶⁾

“민족정신 교육도장이 될 녹두장군 전봉준 장군의 유적 정비사업이 마무리되어 9일 준공식을 갖고 일반인에 공개됐다. 동학접주 전봉준 장군은 조선조 고종31년 (1894년)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에 항거, 「제폭구민」과 「척양척왜」를 외치며 동학교도와 농민들을 이끌고 민중혁명을 일으켰다.

20만 이상의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희생된 채 실패로 끝난 이 혁명은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민중운동으로 꼽히지만 조선조 이래 반란으로 규정, 음지에 묻혀 있다가 60년대 들어 「동학혁명운동」으로 정의, 햇빛을 보게 되었다.

문공부와 전북도는 86년 총 사업비 62억4천2백만 원을 들여 전봉준 장군 유적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착수했다. 주요사업은 7천7백14평의 전적지 경역 내 기념관 맞은편에 한식 맞배지붕의 강당 (40평)을 짓고 전봉준 장군 영정을 봉안했다. 기념관과 강당 뒤에 높이 2.9m의 좌대에 몸체높이 2.7m의 전봉준 장군 동상을 세우고 동상 좌우편에 동학군의 활동 벽화와 관련 기록을 새겨 놓았다.

황토현 전적지 입구에 2천8백85평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정문인 외삼문을 신설했으며 그 앞에 1천1백 평의 광장을 두어 공간을 확보하고 광장 앞에 5백 평 규모의 연지와 산책로를 닦아 놓았다.”

〈표3-6. 황토현전적지 개막식〉



황토현전적지정화사업 조감도



황토현전적지정화사업 계획도



황토현기념관 개막식에 참가한 최현식



전봉준선생 동상

1987년에 건립된 ‘제민당(濟民堂, 135㎡)’은 기념관 맞은편에 있다. 제민당은 계획상 강당의 용도로 지어졌으며, 주요 구조는 목구조이다. 지붕은 맞배지붕에 시멘트 기와를 사용하였고 측면부에 풍판을 덧대 상부 목구조를 보호하고 있는 형식으로 조성하였다.

내부 오른쪽 벽면에는 전봉준 영정(全琫準 影幀)이 걸려 있으며 나머지 벽면에는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에 대한 사진들이 액자 형태로 약 20 여점이 걸려있다. 전봉준 영정은 ‘인물화의 대가’로 평가받았던 정형모(鄭炯謨) 화백의 작품이다. 정형모는 1935년 강릉에서 태어나 수원에서 성장하였다. 그는 한산도 충무사에 봉안된 이순신 장군 초상화(1978년 작)와 권율 장군 영정 등을 그렸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國葬) 영결식 때 사용된 대형(215×151cm) 영정을 그렸으며 역대 대통령 초상화 중 전두환, 김대중, 이명박 대통령의 초상화도 그렸다.

제민당의 전봉준 영정은 양반만이 착용한다는 정자관(程子冠)을 쓰고 있어서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근엄한 표정을 한 양반 유생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제민당은 현재 ‘규장각소장자료전시관’으로 병행하여 동학의 주요 1차 사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기념관은 정읍시에서 운영해오다 1998년 10월 26일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국

15) 최현식의 앞에 책, 225쪽. “원래 기념사업회에서는 전봉준을 포함해 손화중과 김개남의 3인상을 제작할 계획이었지만 전봉준 동상만이 제작된 것도 그랬고”라고 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16)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80214>

비 지원을 받아 전라북도가 중심이 되어 새 기념관 조성과 함께 관리 운영을 해왔다.

〈표3-7. 황토현기념관, 제민당과 전봉준 영정〉



제민당(濟民堂)



전봉준 영정

한편, 1988년, 최현식은 뜻있는 사람들을 모아 ‘사우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황토현에 동학농민군 선열을 모실 사우(祠宇)건설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전라북도와 김원기 국회의원 등을 통해 재원 마련을 도모하였다. 마침내 김원기 의원의 노력으로 2억 원이라는 재정이 확보되어 1992년에 황토현 기념관에 ‘구민사(救民祠, 57㎡)’라는 사우가 건립되었다.¹⁷⁾

구민사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 양식으로 내부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위패를 모시기 위한 위패 봉안대들이 정면 및 좌우 측면에 함께 배치되어 있다. 위패 전면에는 제향 및 제례를 진행할 수 있는 분향대와 초 등이 놓여 있다. 위패는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에서 제작·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378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표3-8. 구민사〉



갑오동학선열사우건설추진위원회 결성식



구민사(救民祠)

이때 정읍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문화제를 민간주도 시·군 합동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는 1991년 5월 9일 정읍지역 내 민주단체(정읍농민회, 대우전자부품 노조, 정읍아산병원 노조, 책사랑, 황토마루, 전교조 정주·정읍지부, 한겨

17) 『황토재의 함성』, 166쪽.

레신문 정읍지국)가 중심이 되었다. 이들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강연회를 개최하고 민간주도 시·군 합동 기념문화제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의 시민 서명 작업을 전개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4년 4월 8일, 시·군 통합 정읍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구성되어 1995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주도로 동학농민혁명기념문화제가 추진되고 있다.

3. 3단계 사업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

1995년 6월 3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대중이 정읍을 다시 방문하였다. 당시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회장인 최현식과 함께 황토현 구민사에서 참배를 마치고 기념식수를 하였다. 15년 만에 황토현에 방문한 김대중은 언제 이런 사업을 했냐며 새롭게 단장한 시설에 놀라웠다. 이 자리에서 최현식은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이 하나 있다며 황토현에 수련원을 건립하고자 하니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였다. 김대중은 당연히 정읍에 지어야 한다며 염려마시라고 약속하였다.¹⁸⁾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이 당선되어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이후 1998년 8월 25일 대통령초도방문이 이뤄졌고 이 자리에서 동학기념관건립 지원을 약속하였다.

1998년부터 추진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설립사업은 문체부의 관심사업으로 기본계획이 추진되었다. 1999년 행정자치부와 문광부에서 박물관 사업으로 국비가 30% 반영되어 총243억 원(문광부 117억, 특별교부세 90억, 도비 36억)의 공사비가 투입되어 2004년까지 1단계 사업이 진행되었다.

마침내 2004년 3월 5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 되었고, 전북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에 10만평 부지에 건물 1,871평(전시관 2개 층 1,155, 교육관, 강당 등 467) 규모의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건립되어 2004년 5월 11일에 개관되었다.¹⁹⁾

18) 『황토재의 함성』, 173 쪽. 그러나 1995년 지방선거는 6월 30일이 아닌 6월 27일에 있었다.

19) 지수걸, 2015, 「국가의 역사독점과 민중기억의 유실」, 『역사비평』110호, 역사비평사, 179쪽. “특별법 제정 이후 동학농민전쟁과 관련된 여러 전적지들이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었고, 동시에 여러 지역에 기념시설이나 기념물들이 만들어졌다. 현재까지 국가사적지로 지정된 곳은 황토현 전투 사적지(295호), 우금티 전투 사적지(387호), 장성 황룡 전투 사적지(406호), 장흥 석대들 전투 사적지(498호) 등이며, 기념시설로는 2004년에 개관된 황토현의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등이 대표적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크게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동학농민혁명교육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3,816.56㎡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현재 9종의 448점이 전시되고 있다. 또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어린이전시실, 녹두학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설전시실은 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비롯한 다양한 유물, 사진·자료 등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과 의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기획전시실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다양한 유물과 자료, 예술품 등을 전시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매년 2회 주제별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린이전시실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전시공간으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대형 그림들과 다양한 전달매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쉬운 이해와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성하였다. 녹두학당은 다목적 공간으로 어린이 대상 교육체험이 이루어지거나, 관람객 휴게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중 동학농민혁명교육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1,543.76㎡ 규모로 농민의 생활터전인 초가지붕을 입면형태로 응용하여 건립되었다. 현재 283석의 대강의실, 중강의실, 소강의실(4개실), 영사실로 구성되어 동학농민혁명 관련 각종 교육 행사 및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한편, 특별법 제정 이후 대정부 창구의 일원화를 위해 전국 16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대표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2004년 9월 20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설립 발기인 총회를 거쳐 같은 해 11월 25일 문화광광부로부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다.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부지의 기존시설에 대한 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이 맡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2009년까지 전라북도에서 관리사무소를 두고 운영해왔으나 2010년 12월에 기념재단은 전라북도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전라북도로부터 기념관을 수탁 받아 2011년 1월부터 운영(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32조)하고 있다.

20) 김양식의 앞의 글 34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보충하여 표로 재구성함.

〈표4.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연혁20〉

일시	내용	일시	내용
1963.10.03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건립	2004.03.0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1981.12.10	‘황토현전적지’ 사적 제295호 지정	2004.05.11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개관
1983.12.31	‘황토현기념관’ 건립	2011.01.0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라북도로부터 기념관 수탁 운영
1984.10.15	‘보국문’ 건립	2012.03.23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
1987.06.30	1차 정비사업 완료	2013.08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조성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
1991.12.17	2차 정비사업 완료	2014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설계공모
1995.01.01	관리사무소 명칭을 ‘정읍시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로 개칭	2016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종결보고서 작성
2002.12.25	관리사무소 명칭을 ‘정읍시 동학선양사업소’로 개칭	2022.05.11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개관
2003.03.29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관리사업소’ 개소	2022.06.25	전봉준장군동상 철거, 불멸, 바람길 동학농민군 군상 건립

〈표5. 김대중 기념식수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김대중 기념식수 표식



기념식수를 마치고 나오는 김대중1



기념식수를 마치고 나오는 김대중2



동학농민혁명 교육관과 전시관

4. 4단계 사업 :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황토현전적지는 1894년 동학농민군이 최초로 관군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역사적인 장소다. 1981년 12월 사적 제295호로 지정됐다. 이 일대에 2014년부터 모두 3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0만1329㎡ 규모로 기념공원을 조성됐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은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 관

한 특별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라북도 정읍시를 중심으로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황토현전적지 일대에 유적지 정비와 시설확장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설립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의 내용은 전라북도 정읍시 황토현전적지 인근 대지면적 336,992㎡에 유물관, 숙박시설, 묘역, 유물보관소, 연구소, 체험관, 야외광장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²¹⁾

2014년 기념공원 사업 추진에 앞서 2013년도에 기획재정부가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조성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을 의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설계공모(2014)를 거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기본 및 실시 설계 종결보고서(2016)가 작성되어 사업이 추진되었다.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내에는 전국 90곳에서 일어난 동학농민군을 상징하는 아흔 개의 울림의 기둥(2022)을 비롯하여, 추모관(2022), 박물관(2022), 연구동(2022), 연수동(2022), 야영장 및 캠핑장(2022), 카페테리아(2022) 등의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다.

〈표6. 황토현기념관 시설 건립년도 표기와 기념공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시기에 정읍시 주관으로 ‘불멸, 바람길’이라는 제목의 동학농민군 군상이 건립되었다. 이미 이 장소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사정권 시절인 1987년 10월에 세워진 ‘전봉준선생 동상’이 있었다. 이 동상은 높은 화강암 받침대 위에 짙은 청동색으로 높이 6.4m, 좌대 3.7m, 형상 3.7m 크기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인 김경승(1915~1992)이 제작하였다.

21) 『2013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2013. 8.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전봉준선생 동상’의 몸체는 격문을 들고 투쟁에 앞장선 농민군 지도자이지만 머리는 죄수처럼 맨상투로 만들다 보니 몸체와 머리가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경의 부조에 새겨진 동학농민군 모습 어디에도 목숨 걸고 싸움터로 나가는 비장한 농민군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 역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논란이 많은 작품이란 혹평을 받았다.

특히 반일투쟁에 앞장선 동학농민군 지도자를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조각가가 제작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모순이기 때문에 ‘전봉준선생 동상’을 철거하고 새로운 조형물 제작을 통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²²⁾

이에 정읍시는 기존의 ‘전봉준선생 동상’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국민의 뜻을 모아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높일 수 있는 동상 형태의 조형물 ‘불멸, 바람길’이란 제목의 새 동상을 2022년 6월 25일 건립하였다.²³⁾

22) 박준성, 2009, 역사학연구소, 「1894년 농민전쟁 기념 조형물의 추이와 과제」, 102쪽, 『농민전쟁 115주년 기념 학술대회 농민전쟁 새로운 시각과 전망』, “김경승에게는 엄혹한 우리 근현대사의 전개과정에서 시대의 모순과 과제를 해결하려 온몸을 던져본 삶과 사상이 없다.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가까이 지냈던 흔적도 눈에 띄지 않는다. 그에게는 1894년 목숨 걸고 치열하게 싸웠던 농민군의 투쟁의지, 농민전쟁의 의미, 전봉준 장군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형상화 할 수 있는 실천과 경험이 없었다. 전두환 정권의 권력과 김경승의 권위는 쉽게 손잡을 수 있었으나, 그들에 의해 제작된 동상에는 역사는 사라지고 그들을 닮은 형체만 남아 있다.” 라고 평가하였다.

23) 1차 공모에서 5명의 조각가가 선정되었으며, 2차로 5명이 모형작품을 제출받아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평가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임영선(가천대 교수)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임영선 교수의 작품인 이 조형물은 구한말 고부현에서 봉기한 동학농민군의 행렬 이미지를 부조(평면 위에 높낮이를 만들어 표현)·투조(평면상에 불필요한 여백을 뚫어 표현)·환조(3차원의 입체 표현)의 기법을 활용해 제작한 군상 조각이다. 사람인(人)의 형상으로 작품들을 배치해 동학의 인본주의 사상을 표현했다. 또 특정 인물을 강조해 높은 좌대 위에 설치하는 권위적·일방적 형식을 벗어나 행렬 선두에 선 전봉준 장군의 크기·위치를 농민군과 수평적으로 배치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갓을 쓰지 않고 들고 가는 전봉준 장군의 동상은 신분제의 차별을 없애고 불합리한 사회적 모순을 개혁하려는 혁명가 의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표7. 불멸, 바람길 작품제안서와 드론 사진〉



Ⅲ. 나오는 말

황토현 전적과 주변 공간의 역사적 상징 장소로서 의의

1894년 3월 26일,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의 동학농민군이 백산에 집결했다는 소식을 들은 전라감사 김문현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전라감영군과 보부상군 2,300여 명을 출동 시켰다. 1894년 4월 6일 아침, 동학농민군이 도교산(道橋山, 현재 도계리 도학초등학교 뒷산)에 집결하자 백산으로 출동했던 전라감영군은 그 뒤를 추격하였다.

동학농민군이 현재 정읍시 덕천면 우덕리 용전마을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사이에 있는 봉우리인 사시봉(謝矢峯 또는 死屍峯)에 진을 치자 뒤를 쫓던 전라감영군은 1894년 4월 6일 해질 무렵, 황토현에 이르러 진을 치고 머물게 되었다. 동학농민군 측은 이날 밤, 관군의 야습을 예측하여 병력을 주위 요처에 잠복시켜 놓고 본진을 비워 두었다.

예상대로 관군과 보부상 연합부대는 어둠을 틈타 동학군 진영을 습격해 왔다. 이때 관군 측에서는 전라중군 김달관과 초관 이재섭이 공을 세우고자 함께 도모하여 앞을 다투어 나가 공격하였지만 매복했던 동학농민군들이 사방에서 공격해 왔다.

동학농민군의 역습에 관군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으며 살아남은 병사들은 본진으로 도망

쳤으나 그들 또한 전날 백산에서 부안으로 이동했던 동학농민군의 일부 부대가 매복해 있다가 공격하여 전멸을 시키다시피 하였다. 이어 동학농민군들은 그 여세를 몰아 황토현의 관군 본진을 급습하였다.

우영관(右領官) 이경호(李景鎬)는 병사를 이끌고 혼자서 진을 지켜 가슴에 총을 맞고 얼굴에 창을 찔려 사망하였으며 서기 이은승과 담양의 수성별장 국인묵도 함께 사망하였다. 태인의 전 감역인 유병직은 이미 행부보상(行負褫商)의 반수(班首)였는데, 여러 상인들을 통솔하여 스스로 영관이 된 후 군대의 뒷전에 있다가 창과 칼에 찔려 사망하였다.

보부상(褫負商) 도반수(都班首)인 송병호 등 보부상들은 변변찮은 무기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였다. 탄약 수송 임무를 담당하던 신영대관 이재한과 유판군은 도망을 쳤고 교장 백찬경과 육용규 등도 도망하여 관군과 보부상 연합군은 크게 참패하였다.

한편 전라도 태인현 고현내면(古縣內面)에서는 유생 김기술을 중심으로 한 100여 명이 민보군을 조직하여 태인 현감 홍면주를 만나 무기를 제공받아 황토현으로 출전하였으나 새벽녘에 동학농민군의 기습을 받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치고 말았다.

1894년 4월 7일, 황토현 전투의 승리로 인해 동학농민군의 사기가 크게 높아졌으며, 관망하고 있던 각 지역의 백성들이 자신감을 얻고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하게 되어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은 치밀한 계획과 조직으로 전개된 전국적인 항쟁이었다. 이렇듯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인 민중항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동학사상과 조직망, 그리고 지도부의 사전 계획과 준비 등의 다양한 요소가 작용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반 대중이 용기를 내어 항쟁의 대열에 직접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포고문이나 격문보다도 황토현 전투의 승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 역사 속에서 민중들이 정부군을 상대로 해서 이토록 큰 승리를 거둔 적이 있는가? 고부농민봉기 이후 동학농민군과 관군이 맞붙은 최초의 전투이자 동학농민군이 대승을 거둔 황토현 전투야말로 역사성 면에서 살펴보면 혁명의 불길이 전국으로 확산되게 한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황토현’은 문자 그대로 황토로 이루어진 언덕이란 뜻이며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명이었지만 이 사건 이후로 ‘황토현’은 이곳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사에 있어서 황토현이 지니는 역사적 상징성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 황토현 전투는 전봉준의 동도대장 깃발 아래 김개남, 손화중, 최경선, 김덕명 등 각 지역 동학농민군 부대가 하나가 되어 관군과 직접 격돌하여 최초로 승리를 쟁취했다는 면에서 그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와 같이 황토현 전투가 지닌 역사성과 상징성으로 인해 1963년 10월 3일 전국 최초 동학 관련 조형물인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 건립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곳의 역사적 의미를 인식한 정부는 2004년 황토현 전승지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교육관을 건립하였고, 2010년 동학관련사업을 총괄하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설치하였다.

2022년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이 완공되어 정읍 황토현은 1894년 황토현 전투 이후 현재까지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2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5월 11일)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1894년 4월 7일에 있었던 황토현 전승일(戰勝日)을 양력으로 환산한 것으로 국가로부터 그 상징성을 공인받은 것으로 그 의미를 더한다. <끝>.

※ 참고문헌

- 중앙일보, 1987.1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80214>
- 『황토재의 함성』, 2001. (사)갑오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천지문화사.
- 『최현식과 동학농민혁명사 연구』, 2006. (사)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도서출판 갈채.
- 박준성, 2009, 「1894년 농민전쟁 기념 조형물의 추이와 과제」, 『농민전쟁 115주년 기념 학술대회 농민전쟁 새로운 시각과 전망』, 역사학연구소.
- 이치백, 『새전북신문』, 2010. 05. 20. 기사, 「전북의 기억(37) 황토현 갑오동학혁명 기념탑 건립」.
- 이병재, 『전북중앙』, 2010. 04. 06. 기사, 「이치백 전북향토문화연구회장」.
- 『2013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2013. 8.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 지수걸, 2015, 「국가의 역사독점과 민중기억의 유실」, 『역사비평』 110호, 역사비평사.
-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전시용역 현장설명회」 자료, 202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정읍황토현전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자문회의, 2023, 정읍시청 (문화행정국 동학문화재과).
- 김양식, 202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개원의 의미와 미래비전」, 『동학농민혁명 미래의 중심이 되다』.
- 『정읍 황토현 전적 종합 정비계획 수립 용역』, 2024,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읍시청 (문화행정국 동학문화재과).
-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https://www.1894.or.kr>

토론 1

정읍 황토현 전적의
기념사업 추이에 대한 토론문

김 양 식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

이 발표문은 1963년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건립부터 2022년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준공에 이르는 60여년의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의 추이를 4단계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황토현’이 명실상부하게 동학농민혁명을 대표하는 상징공간이자 역사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음을 논증함으로써, 황토현의 역사적 위상을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

발표내용은 풍부한 자료와 사실을 바탕으로 정리되었는 바, 특별한 이의는 없다. 다만, 동학농민혁명 상징공간이자 역사문화공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황토현’의 의미를 좀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황토현 전적지 기념사업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억과 기념을 둘러싼 투쟁의 또다른 현재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정부 주도의 위로부터의 기억·기념과 민간 주도의 아래로부터의 기억·기념 사이의 주도권 다툼이 지난 60여년 황토현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그 과정은 곧 민의 승리로 귀결된 한국 현대 민주주의 투쟁사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1960년대에 시작된 황토현 기념사업을 좀더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발표문에서는 김상기가 처음 기념탑 건립을 제안하고 그것을 전북 인사 중심으로 구성된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건립추진위원회’ 주도로 1963년 10월 3일 기념탑이 세워진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더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는 당시 객관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5.16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는 혁명의 역사적인 정통성을 동학농민혁명-3.1운동에서 찾고자 하였고, 민간에서도 기존의 ‘동학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1962년 전후로 활발히 나타났다. 천도교에서는 1947년 2월 9일부터 ‘동학혁명’ 기념식을 거행해 왔을 뿐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최초의 영화인 ‘동학란’이 1962년 7월에 전국 극장에서 동시 상영되어 흥행을 이루었다.

1963년 2월 15일 발표된 2차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집필지침도 1894년 역사적 대사건을 동학농민운동으로 규정하였으나, 실제 1964년 3월부터 사용한 검인정 국사교과서 상당수가 ‘동학혁명’으로 기술하였다. 1963년 동학란을 동학혁명으로 바라본 시각이 교과서에 반영된 것이다.

이처럼 1962-1963년 시대적 상황은 동학란을 동학혁명으로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학계는

물론 민간에서도 활발히 일어났는데, 이는 박정희 군사정권의 이해관계와도 맞아 떨어졌다.

마침 1962년 6월에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협회’가 창립되었다. 여기에는 김상기, 이선근, 신석호 등 23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당대 최고의 역사학자들이다. 전북일보 이치백기자가 1963년 초에 김상기를 방문하였을 때 기념물 건립을 제안한 것도 협회 차원에서 사전 논의가 이루어졌으리란 추정은 무리가 아니다. 다만, 이 협회 창립이 군사정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1963년 7월에 전북에서 결성된 ‘갑오동학혁명기념탑 추진위원회’(위원장 이병기)의 기념탑 건립은 보다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 설명이 있었으면 한다.

특히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동학농민혁명 기억과 기념투쟁에서 민이 주도권을 잡고 민간의 의지가 반영되는 역사적 과정을 명확히 해명하기 위해서는 기억투쟁을 둘러싼 상호관계를 균형있게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서는 기념탑의 조형미, 기념탑 집자(보국안민/광제창생), 명문(김상기 지금) 등도 아울러 분석해야 기념탑의 역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황토현 역사문화공간의 변화〉



둘째, 황토현 역사문화공간에 대한 이해이다.

위 그림이 말해주듯이, 황토현 역사문화공간의 중심과 영역은 박정희→전두환→김대중정

부로 변천하면서 기념탑에서 기념공원으로 확대 이동하였다. 한 마디로 황토현의 동학농민혁명의 핵심 전적지이자 한국 현대사에서 독재와 민주의 기억 상징공간 내지 정치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공간 이동과 확장은 동학농민혁명 기억투쟁의 산물이자 지난 60년 동학농민혁명 기억과 기념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만큼, 중요한 황토현의 공간성과 정체성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공간 이동과 확장은 곧 민간에서 주도한 동학농민혁명 기억투쟁의 승리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황토현의 기념 서사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이다. 이는 황토현의 의미를 새롭게 새기는 것이자, 그 서사가 드라마, 연극, 영화 등과 같은 다양한 매개체를 만나면서 융합콘텐츠로 발전하여 황토현을 새로운 차원에서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다시 말해 황토현에 대한 공간 이해는 황토현 스토리텔링 서사를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전두환정권에서 추진된 2단계 황토현 사업은 ‘전봉준 장군 유적지 정비사업’이라는 사업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상 위로부터의 ‘영웅 서사’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이는 김대중정부 이후 철저히 해체되어 동학농민혁명이 가지고 있는 혁명적이고 민중적인 서사로 표상화됨으로써, 황토현의 역사적 정체성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런 서사가 명확히 드러날 때 2022년 건립된 ‘불멸, 바람길’ 동학농민군 군상의 기념기호 역시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역사문화공간이란 특정 장소, 건축물, 시간의 켜, 기억, 이야기 등의 공간요소가 함축된 복합개념이다. 따라서 황토현이 지난 60년 동학농민혁명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간 요소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황토현이 역사문화공간으로서 그 의미를 풍부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장소와 기념시설 외에 지난 60년 축적된 무형의 시간의 켜를 들추어내어 보존하고 여러 기억들을 모으고 이야기를 수집하여 아카이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앞으로도 황토현 역사문화공간이 지속적으로 시대 변화에 조응하여 진화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현단계 과제일 수 있다.

황토현 아카이빙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겠으나, 발표자는 누구보다도 황토현에 대한 기억과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서도 고견을 듣고 싶다.

토론 2

정읍 황토현 전적의
기념사업 추이에 대한 토론문

박 준 성

역사학연구소 연구원

조광한 선생의 ‘황토현 전적의 기념사업 추이’는 황토현을 중심으로 한 기념사업을 1단계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건립, 2단계 전봉준장군 유적정화사업, 3단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 4단계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순으로 꼼꼼하게 정리한 글이다. 기념사업의 추이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발표다. 특히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건립과정에 대해서 배경과 추이를 좀더 자세한 알 수 있게 되었다. 발표문은 사업의 추이를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정리하였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다. 토론자는 동학농민혁명 역사기념 조형물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 달이 머다하고 황토현 전적지를 찾아 역사기행을 안내하고 있다. 각 시기마다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하여 그동안의 경험과 답사 참가자들의 반응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사업 결과에 대한 해석을 첨가하여 의견을 제시해 본다.

○ 1894년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에서 1984년 4월 6일-7일 전개된 황토현 전투와 승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커다란 역사적 사건이었다. 2019년 2월에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5월 11)도 1894년 4월 7일 황토현 전승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정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갑오동학혁명기념탑, 전봉준장군 유적지 정화사업 공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답사할 때 황토현 전투 때의 농민군 매복지, 관군 주둔지, 전투지를 알려주는 표식은 보기 어렵다. 황토현 기념사업이 전개되어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이 조성될 때까지 골짜기가 계속 복토되어 황토현이 고개라고 실감하기 어렵게 되었다. 고개는 능선의 중간,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 낮은 곳에 있기 마련이다. 1963년에 세운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은 농민군 투쟁의 승리를 기념하여 세운 최초의 조형물이며, 농민군 승리를 상징하는 대표 조형물이다. 탑이 세워진 곳은 작은 봉우리 꼭대기다. 황토현 전투와 관련하여 어떤 연관성에서 지금 위치에 세우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우금티 동학혁명 위령탑도 직접 전투가 치러진 곳과는 무관하다. 탑만 보면 탑이 세워진 곳에서 활동과 전투가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기념탑은 어떤 역사조형물 보다 공간의 위치를 알려주는 이정표 같은 기능도 있으므로 현장성이 중요하다. 승리의 전적지에 세워진 기념탑 앞에 제사를 놓은 것도 걸맞지 않다. 탑의 형태는 육중한 수직의 기둥이 우뚝 솟은 모양이다. 좌우 균형의 받침대 위에 세운 높은 수직 기둥으로 이루어진 탑은 1800년대 유럽 군국주의의 산물로서 국가주의, 남성중심주의, 권위주의의 형상이다. 대체로 성기 모양으로 형상화된 남성중심주의가 국가주의 권위주의와 결합하여 은연중에 수직의 질서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평적인 평등한 세상을 꿈꾸었

던 농민군의 지향을 고려하면 국가주의, 남성중심적 권위주의의 상징인 수직의 높은 탑도 문제가 있다. 그때의 탑에 대한 인식은 높고 수직이고 커야한다는 것이었다. 그때는 모두가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하나 그러한 수직의 탑이 내포하는 의미나 문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그런 형태의 탑이 여전히 재생산 되고 있기 때문이다.

○ 갑오동학동학혁명기념탑은 전북도, 도농협, 정읍군에서 각기 100만원, 박정희 의장 100만원 총 400만원의 기금과 공화당에서 20만원을 보탬다고 한다. 최현식 선생은 공화당에서 낸 20만원을 ‘거금’이라고 표현 했는데 발표자는 박정희가 낸 100만원을 ‘약간의 건립 성금 기부’ 정도로 서술하고 있다. 기금의 비중 표현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비민간 기금 외에 갑오동학동학혁명기념탑 조성에 참가한 민간인들이나 성금 액수의 비중은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거의 없던 1963년 사회 분위기에서 민간의 참가 의의나 성금은 숫자의 크기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건립된 탑의 실체는 기금으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건립에 사용된 중요한 기금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현역 군인이었던 김인 도지사, 농협도지부장 황의선(예비역 중령), 정읍군수 유범수(예비역 중령), 박정희 성금을 주선했던 박두선(예비역 공군준장) 등의 면모를 볼 때 ‘민간 중심으로 추진된 기념탑’이라고 강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전두환정권이 주도한 ‘전봉준장군 유적정화사업’은 민간 주도로 진행되던 기념사업을 무력화시키고 권력이 역사를 장악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유적 정화사업은 ‘전봉준 장군’을 중심에 둔 영웅중심의 기념사업이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농민군은 ‘정화사업’의 대상이 아니었다. 외삼문인 제세문, 내삼문인 보국만 같은 구조는 이순신 장군의 기리는 아산 현충사와 같은 사당을 축소한 모양새다. 그 중심에 높은 좌대 위에 우뚝 선 전형적인 영웅의 형상인 봉준 장군의 동상을 크게 세웠다. 친일 미술행적으로 문제가 있던 김경승이 만들었다. 이처럼 ‘정화된 유적지’에 추모 공간으로 의미를 더 보탠 것이 1988년 ‘사우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1992년에 건립된 ‘구민사(救民祠)’라는 사우이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위패와 봉안대가 모여져 있는 제사 지내는 건물이다. 전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정화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승리의 전적지를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조성한 것이 문제였다. 지금은 전봉준 장군 동상은 철거되었다.

전봉준 장군 동상이 있던 그 자리에 2022년에 동학농민군 군상 ‘불멸 바람길’이 조성되었

다. 제1차 동학농민혁명 참가 농민군,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가 농민군이 제일 앞 자리에 서 있는 전봉준 장군을 향해 사람 ‘人’자를 이루고 있는 군상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역사 기행 할 때 차가자들에게 인기 높은 역사조형물이다. 단체 기념촬영은 물론 마음에 드는 농민군 옆에서서 인증 사진을 찍기도 한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 둘러보면 진취적인 농민군의 행진 대열이 추모의 담장 안에 갇혀 있는 꼴이다. 역설적으로 전봉준 장군의 동상을 그대로 두고 권력에 의해 장악된 역사 유적지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공부하는 ‘모범공간’으로 활용하는 편이 나았겠다. 농민군의 군상은 담장 밖 너른 공간 한 곳에 조성했으면 훨씬 더 역동적인 조형물이 되었을 것이다.

○ 황토현기념공원 안에 시기를 달리하여 조성된 기념사업의 결과물들 가운데는 내용이 중복되거나 혼재되어 혼란스럽다. 2004년 개관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2022년에 세운 박물관은 한번 가서 두 곳을 한꺼번에 다 볼만한 뚜렷한 특징적인 차이가 없다. 1992년 건립된 구민사와 2022년 건립된 추모관은 대표적인 중복이다. 각지역 동학농민군을 상징하는 아흔 개의 울림의 기둥(2022)은 죽창으로 형상화하였다. 그 앞에서 답사자들이 자신의 출생지나 연고지에서 일어난 농민군 활동지역을 찾아본다. 농민군의 무기는 대체로 ‘죽창’으로 표상화된다. 그러나 대나무가 없던 지역의 농민군들은 죽창을 사용하지 않았다. 전국 각 지역의 농민군 활동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죽창 하나로 대체하는 상투적인 표현방식도 검토가 필요하다.

○ 1894년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감영군과 싸워 승리한 황토현 전적지는 그 동안 시기와 주체를 달리하면서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황토현 전투의 의의 뿐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을 알리는 기념 사업의 근간을 만들었다. 가장 큰 성과는 사업의 실체가 현실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 사이에 사업의 문제나 한계도 적지 않았다. 황토현을 중심으로 하는 기념사업의 문제를 요약해서 정리하면 그동안의 사업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황토현 전투의 실체를 실감하면서 추체험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황토현 전적지는 황토현 전투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동학농민혁명 전체를 포괄하려다 보니 황토현 전적지의 실체는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지역마다 유적지를 정비하고 기념 조형물을 세울 때 그 곳에서 일어난 사건의 성격은 물론 계절과 지역의 특성도 살려야 한다. 역사 유적지나 기념 조형물은 그곳에 그런 형상으로 있어야 할 이유를 담아야 하고,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한다.

주제발표 3

정읍 황토현 전적
종합 정비계획안 발표

발표 백 진
서울대학교 교수

정읍 황토현 전적 종합정비계획안 발표

학회 발표

2025.10.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백진 교수

 서울대학교 건축도시이론연구실

목차 a table of contents

1	종합정비계획의 개요	p. 3
2	종합정비계획의 배경	p. 7
3	황토현 전적의 현황 파악	p. 12
4	종합정비계획의 전략 및 구상	p. 28
5	종합정비계획안	p. 48
6	대안계획의 제안	p. 52

Part 1

종합정비계획의 개요



Part 1 종합정비계획의 개요

과업의 개요 소개

용역명

정읍 황토현 전적 사적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문화재명

정읍 황토현 전적(사적, 1981. 12. 10.)

과업기간

2023.07.10 ~ 2024.01.05 (180일)



황토현 전적 항공사진

과업의 필요성

- 정읍 황토현 전적은 동학 농민군이 전라감영군과 싸워 승리한 역사의 현장이지만 승리의 메시지를 부각하는 기념시설이 아닌 유교식 추모공간으로 조성되면서 본래의 의미가 퇴색 및 변질
- 동학농민혁명 최초 · 최대의 승리를 부각할 수 있는 전승지로서의 공간 구성이 필요
- 1963년 갑오동학혁명기념탑, 1987년 정읍 황토현 전적, 2022년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등 점진적으로 기념공간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정읍시, 전라북도,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종합적인 공간 계획 없이 필요에 따른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 공간 구성의 부조화 발생
- 농민혁명의 의의에 부합하지 않는 구성과 혼란스러운 동선 정비 필요
- 옹기기념관(1983년) 및 제민당(1987년) 등은 시설의 노후화로 본래 기능이 상실되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종합정비계획 수립 필요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 2024년

계획기간 : 2024년~2034년

(단기 2년, 중기 5년, 장기 10년)

공간적 범위

정읍 황토현 전적 및 그 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역

내용적 범위

동학농민혁명 최초 전승지 의미 부각 및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등 주변 지역과 연계 방안 수립 등



정비 대상지 영역

5

정읍 황토현 전적 종합정비계획 과업 추진 경과

- ✓ 정읍 황토현 전적 현황 분석
- ✓ 정읍 황토현 전적 일원의 시기별 정비사업 경과 조사 및 문제점 분석
- ✓ 정읍 황토현 전적과 유사한 국내외 사적지(전승지) 정비사업의 사례 조사·분석 및 시사점 도출
- ✓ 1987년 정비한 정읍 황토현 전적의 오늘날 활용 가치 분석

23.07.14 착수보고

- ✓ 동학농민혁명 최초 전승지 의미를 부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 갑오동학혁명기념탑, 정읍 황토현 전적,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의 연계 방안 마련

23.10.18 중간보고

- ✓ 수정 보완 사항
- ✓ 정읍 황토현 전적과 정읍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연계 방안 마련
- ✓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등
- ✓ 연차적 사업계획 제시(1차(2년), 2차(5년), 3차(10년) 등) 및 재원 조달 방안 마련
- ✓ 정읍 황토현 전적 종합정비계획의 향후 계획 수립

24.01.04 최종보고

- ✓ 최종 보고 후 수정 보완
- ✓ 사례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보고서 최종 작성

24.06. 과업완료



6

Part 2

종합정비계획의 배경



Part 2 종합정비계획의 배경

계획의 주요 목적

사적의 정비는 사적의 보존 및 가치증진이 가장 우선이나 동시에 그 가치 이해 및 증진, 교육적 활용 등도 고려

사적정비의 목적	주요 내용(김철주, 2013, 사적의 보존관리와 정비의 이해)
사적의 보존	- 사적은 진정성과 역사성, 장소성이라는 가치를 인정받아 지정된 문화재로, 원형을 보존하여 후세에게 물려준다는 대전제 조건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하다. - 발굴조사 후 복토와 성토 그리고 전다식제로 보존한 유구의 경우에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사적 내 지상에 노출된 역사적 건축물과 구조물 역시 지속적인 보존처리와 수리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지상의 역사적 건축물과 구조물, 지하 유구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정비를 통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적의 가치 이해 및 증진	- 지상의 건축물 또는 건조물의 경우에는 수리와 보존 처리를 통해 가치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또한 발굴조사에 의해 규명된 지하 유구는 곧바로 복토나 성토를 하게 된다. -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사적이 가진 가치를 나타내기는 상당히 어렵다. 사적은 다양한 정비기법을 통해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객관적 가치를 나타낼 수 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적이 가진 가치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나타내기 위해 취하는 방법이 사적 정비라 할 수 있다.
교육적 활용	- 사적은 해당 지역의 역사를 알려주는 자랑스러운 문화재이자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문화유산으로서 지역문화의 중심에 서 있다. 또한 다양한 유적 및 유구와 이야기 그리고 이와 연계된 유적지에는 교육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 이처럼 사적을 교육적인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비를 통해 가진 가치를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내고, 전시관이나 박물관 등을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사적의 효용성 증대	- 사적으로 지정된 구역 또는 역사적 건조물 및 구조물은 보존과 관리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매입된 토지는 특별히 관리하지 않는 한 공지로 남겨져 지역의 황폐화를 가져온다. 발굴조사에 의해 드러난 유구 및 유구의 가치를 공유지로 남겨놓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비를 실시한다. 사적의 정비를 통해 지역의 활성화와 경제적인 가치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유택한 생활을 위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의 활력 공간, 휴식의 장소	- 정비된 사적의 활용도는 지역 주민의 50퍼센트를 넘는다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심 또는 지역에서조차 잘 정리되고, 숨이 있는 유적공원이나 개발에서 벗어나 자연이 보존되고 있는 사적은 지역 주민에게 휴식과 만남, 커뮤니티의 중심이자 활력을 더해주는 장소로서 가능하게 된다.
지역 활성화	- 역사적 배경을 가진 사적은 정비를 통해서 가치를 드러내게 되며, 정비된 사적은 볼거리와 지식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많은 사람이 방문하게 만든다. 또한 사적을 중심으로 관광객의 방문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이 필요해진다. 이로 인해 널리 알려진 사적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준다.
관광 자원과의 연계	- 정비된 사적은 지역의 문화자원으로서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지역의 개별 사적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연계시켜 한 지역 전체를 유적 벨트로 구성하는 사례도 많아 지고 있다. 개별 사적에 대한 이해보다는 지역 전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호기심을 자극하여 적극적인 관광자원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역사적 장소성, 원형 보존

다양한 정비기법을 통해 가치를 증진

사적정비 편람 + 사적의 보존관리와 정비의 이해(김철주, 2013)

8

황토현 전투의 역사적 사건과 전적의 역사라는 이중의 역사성 이해

	이중의 역사성	시기	내용
황토현 전적에 대한 배경이해	황토현 전투에 대한 역사	1894	1894년 4월의 전투까지의 사건 경과에 대한 파악 - 전투의 과정, 격전지의 위치 등 상세한 배경 파악 - 승전의 의미에 대한 이해
	황토현 전적을 둘러싼 역사	1963 ~ 현재	1963년 박정희 의장에 의해 건설된 초기 기념탑 이후 현재까지 이뤄진 황토현 전적 주변의 기념 사업에 대한 파악 - 다종의 사업들이 가진 역사적 의미 파악 - 중복된 사업으로 인해 벌어진 현황 문제 파악

→ 정수환 연구원 발표 참고

9

황토현 전투는 현 문화재 구역 및 그 일대 전체의 사건으로서 이해



4월 6일 야간의 배치도 (예상)



4월 7일 새벽의 배치도 (예상)

1963년 이후로 수차례 진행된 전적 및 인근의 계획

연도	내용
1963년	박정희 의장에 의해 황토현 언덕 위에 최초로 갑오동학농민혁명 기념탑 설립
1978년	전라북도에 의해 탑 복축 광장 및 진입계단 조성
1981년	국가 사적 지정 이후 전두환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전봉준 장군 유적정화 사업 진행
1984년	기념탑에서 남서측 산기슭 일대로 대상지가 정해졌으며, 1차 공사로 진행, '기념관' 과 복축 담장 조성
1987년	전봉준장군 유적정화사업이 준공(연못, 광장, 주차장, 보국문, 제세문, 제민당(강당), 전봉준 장군 동상 및 황토현 전적 정화 비 건립 → 당시 영웅을 추대하는 전형적인 기념 공간의 모습으로 완결)
1990년	동학농민군 참여자 위패를 모시는 '구민사' 를 사당 형태로 건립, 동상을 기준으로 서측에 추가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
2004년	동학농민혁명 기념관과 교육관이 사적지 남측 영역에 준공
2013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계획
2016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설계 완료
2022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준공,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 일대가 일부 복원, 1987년 조성된 전봉준장군 동상을 작가의 친일행적과 고증 논란에 의해 철거 및 이전, 새로운 동상을 건립하여 설치

- 인물/사건 중심의 유적으로 별도의 유구와 건조물 없이 대지만 존재하는 황토현 전적 →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적인 장소로 여겨져 각 정부에 의해 추진된 기념 사업의 장소로 사용 → '편의 부대 시설' 및 '부속물' 들만 계속해서 건립되는 방식으로 정비
- 현재 사적지 내부 시설들의 기능이 외부에 있는 시설들의 기능과 중복되어 활용도가 점차 떨어짐 → 90년대 이후에는 목조로 축조된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

11

Part 3

황토현 전적의 현황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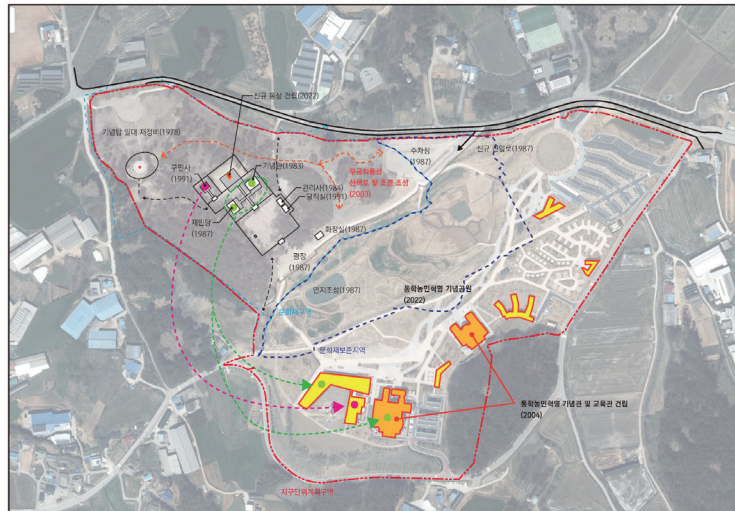


Part 3 황토현 전적의 현황 파악

정비경과 분석

전적 일대에서 벌어진 기념 사업은 다양한 현황 문제로 귀결됨

〈황토현 전적〉 일대 정비의 시대적 변화



- 1990년대 공사로 〈황토현〉은 현재의 형태를 갖추.
- 산책로 및 무궁화 동산 일대는 2000년대 초 조성 완료

[현재상]

- 30~40여년 지난 현재, 목조 건축물 관리 및 초기 한식을 모사한 콘크리트 기념관 건물의 노후 및 관리상 어려움으로 향후 유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황토현 전적〉 남측 대지에 본격적 기념사업이 진행되며 현 〈전적〉 내 건물과의 프로그램 중복으로 사용성이 하락
- 기념탑 인근 및 조정공간의 20여년간 관리 어려움으로 전반적 관리계획 필요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교육관 (2004)

- 신기념관(2004) 건립으로 구기념관(1983)의 콘크리트조의 전시공간 대체.

현재는 신기념관의 전시 콘텐츠 역시 박물관(2022)년과 중복됨

2)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2022)

- 박물관(2022) 내 추모관 건립으로 3000여명의 동학농민혁명 참가자(현, 구민사 내 인원 포함)를 위한 추모공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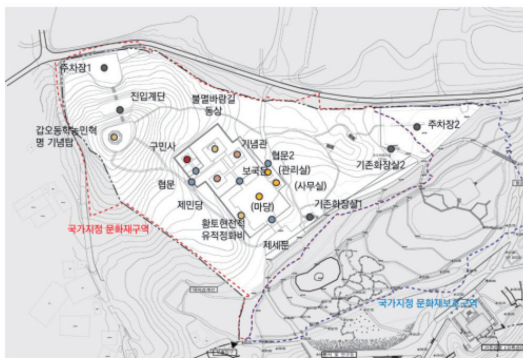
2022년 항공사진

13

Part 3 황토현 전적의 현황 파악

건축물 현황 분석

사적 내 주요 건조물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며, 부속물만 존재



- 주요 건조물 없음
- 부속물 : 구민사, 제민당, 보국문, 제세문, 관리실1,2, 화장실1,2 등

NO	건물명	규모	건축 연월일	구조	지붕	비고
1	구민사	56.42	1991	목조	목조지붕+시멘트기와	
2	구민사삼문	15.00	1991	목조		
3	기념관	137.44	1983	철근콘크리트조		
4	제민당	135.00	1987	목조		
5	보국문	28.00	1983	목조		
4	제세문	47.52	1987	목조		
5	관리사무소	50.49	1984	목조		
6	당직실	54.59	1991	목조		
7	화장실-1	52.50	1987	시멘트 벽돌조	판넬	
8	화장실-2	48.60	1991	시멘트 벽돌조		
계		576.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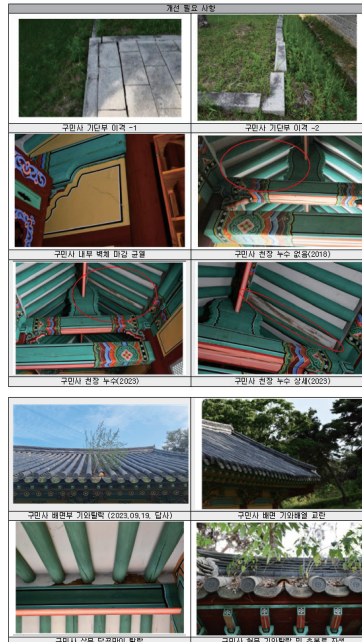
건축물대장, 2023년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정기조사 보고서 참고하여 재구성

구분	내용(조사자 의견)
주요 건조물	창하/배수
	탈락/파손
	관열, 각 부재 간 벌어짐
	지리문, 이끼류 등 오염
	구조적 변형(기울기, 처짐 등)
	기타사항
부속물	제세문에서 벽체 마감 탈락, 당골막이의 탈락이 확인됨
	보국문 기단의 벽체 돌출이 확인됨
총핵	제민당의 벽체 마감 탈락, 당골막이 탈락이 확인됨
	구민사 삼문의 당골막이 탈락이 확인됨
조사자 종합의견	구민사의 기단 외벽, 벽체 마감 균열, 지붕 기와열 교환, 기와 흘러내림, 창문 누수 등이 확인됨
	구민사 인근 담장의 외구토 마감 탈락, 초문류 자생 등이 확인됨
조사자 종합의견	구민사 천장 누수, 기와열 교환 및 기와 흘러내림에 대한 긴급조치 필요
	구민사, 구민사 삼문, 제세문, 보국문, 관리사, 함문, 담장 등에서 확인되는 경미보수 사항에 대한 조치 필요

보존정책과 2023 정기조사보고서

14

사적 내 편의/부대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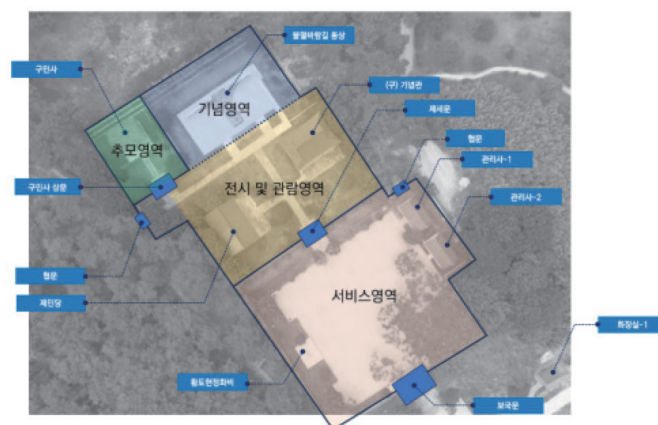


제세문
벽체 마감 및 당골막이 탈락
관리사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소 이동 후 방치
보국문
기단 박석 들뜸
기념관
콘크리트조 건물 내 부족한 전시 내용과 오래된 콘텐츠
제민당
창호, 주춧돌, 벽체, 당골막이 등 의 탈락
구민사
천장 누수, 기와열 교란, 기와 탈 락 등의 훼손 발생 - 조성 후 30 년 지나 강화다짐 하자 혹은 결로 로 인한 부분 손상 의심 => 해체 후 검사 필요

출처: 2023 사적정기조사보고서 + 7월 및 9월 연구진 답사사진

15

그늘, 음수대 및 휴게 벤치가 부족하고, 가로등이 가동되지 않음



- 전체적으로 사적지와 공원 일대 모두 넓은 평지로 이뤄져 있어 그늘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늘막이 필요함
- 사적지 전반적으로 적절한 위치에 음수대가 없음
- 사적지 내부 휴게 벤치가 설치될 필요가 있음
- 사적지 산책로를 따라 과거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현재 가동이 안되는 상태임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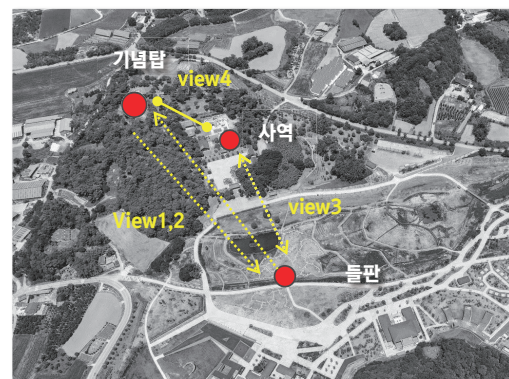
낮은 인지성과 여러 출입구로 인한 동선의 혼선



- 사적 영역은 기념공원과의 동선 연계성이 떨어져 시각적 인지와 동선의 유도가 어려우며,
- 전반적인 동선과 출입구가 정리되지 않아 혼선을 야기함

17

주요 영역 간 연계성, 인지성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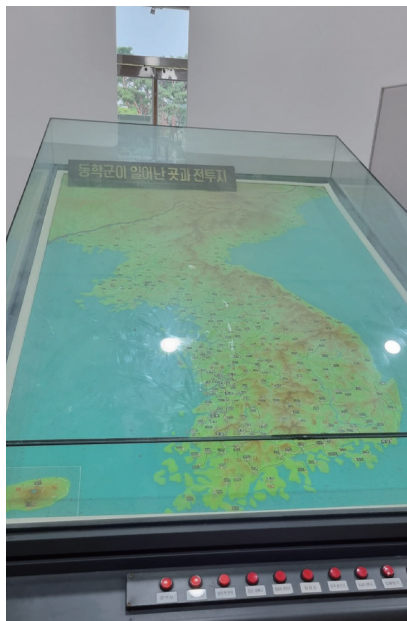
기념탑 가는 협문 협소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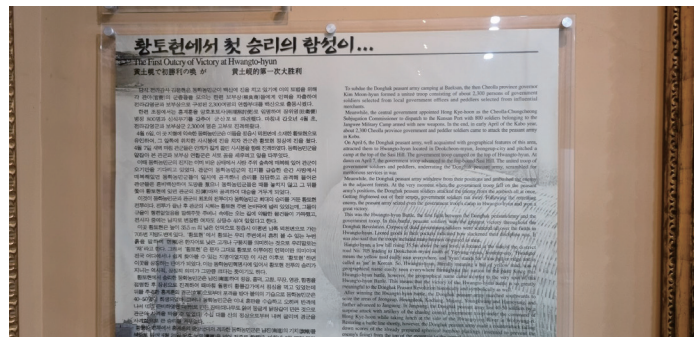
주요 영역 간 연계성, 인지성 부족



주요 전시시설(기념관 및 제민당) 내 노후화되고 특색 없는 전시물 (공원 내 전시관 및 박물관과 내용 중복)



기념관 내 전시품(모형, 작동안됨)



기념관 내 패널전시



제민당 내 기록물 전시물(복제품)

추모/전승 중첩으로 인해 시설간 부조화



진취적인 느낌의 동학농민군상 동상이자 주요 전승 행사의 장소



관군 주둔지였던 장소이자 농민군 승전지에 설치된 사당



구민사 앞 정숙 안내판

21

추모/전승 중첩으로 인해 시설간 부조화



각 시설 간 부조화
(동상이 나아감, 담장에 둘러싸임, 기념관의 외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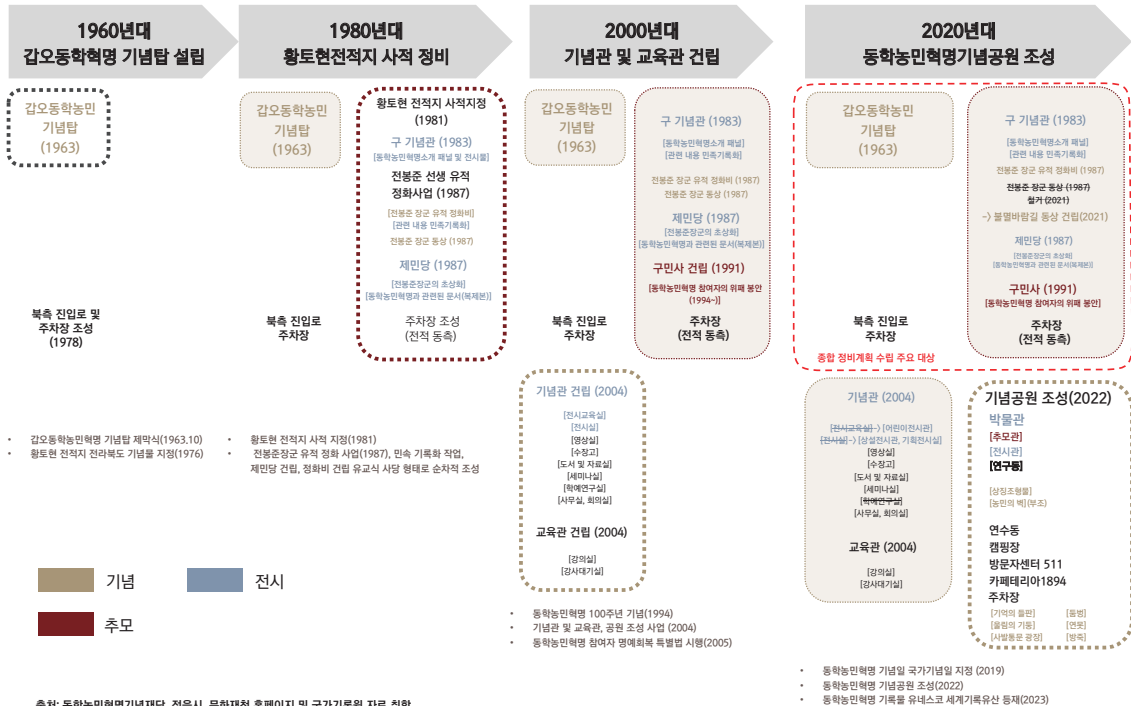
기념관 기와의 시각적 간섭과 농민군상 간 부조화



농민군이 나아가는 방향과 시설 외형 간의 부조화

22

인근 프로그램 중복으로 인한 사적 내 편의/부대시설의 기능 소진



정비 방향과 토양 환경을 고려한 조경 계획 조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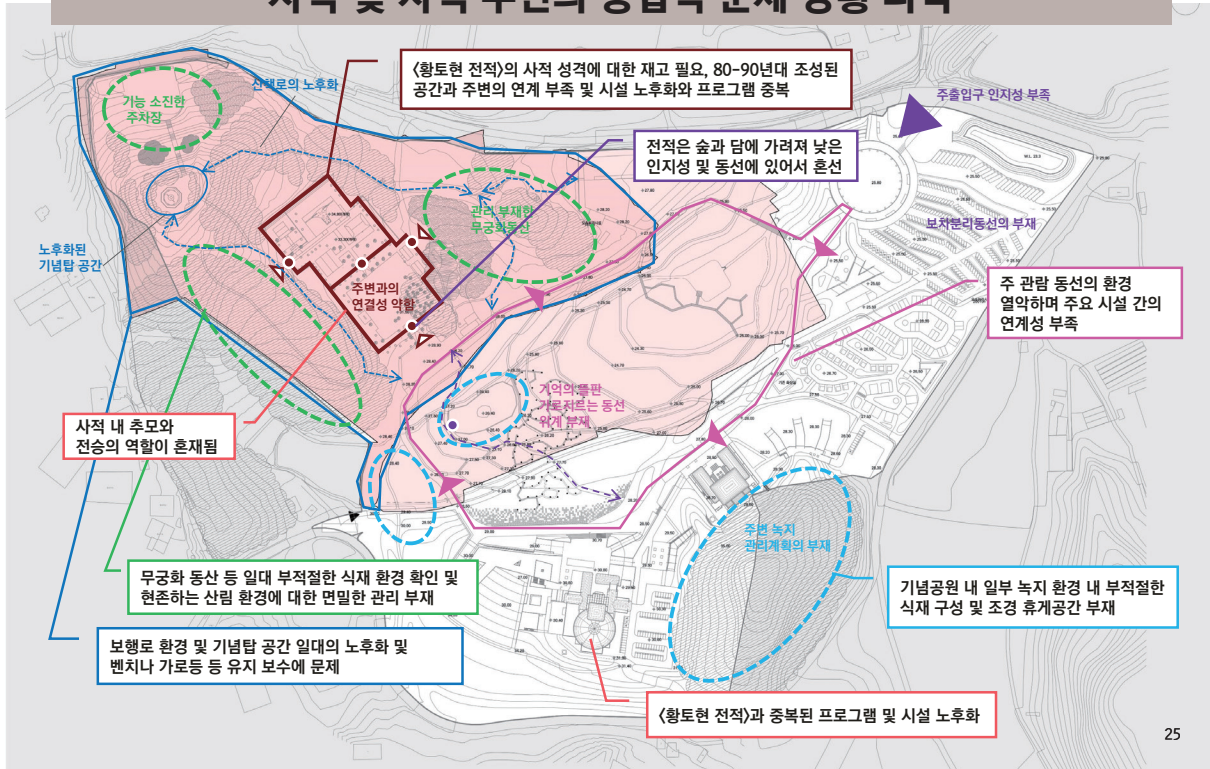


현존식생명	면적(m ²)	구성비(%)	비고
소나무-리기다소나무	31,766	41	
소나무	23,359	30	
중곰솔	8,106	10	
무궁화동산	5,662	7	
대나무(이대)	4,667	6	
이팝나무	1,817	4	
배롱나무	2,918	2	
합계	78,297	100	

〈대상지 현존식생 현황〉

- 시각적 인지 확보를 위해 탑과 사적을 가리는 일부 수종 이식 고려함
- 계획 없이 혼재된 수종들은 전반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 북측 이팝나무와 무궁화동산은 토양과 맞지 않는 수종이므로 중곰솔, 이대, 구절초와 같은 정읍시 전통 식수 및 조경으로 대체함

사적 및 사적 주변의 종합적 문제 상황 파악



25

〈황토현전적〉은 ‘사적의 보존’ 차원, ‘사적 가치 이해 및 증진’ 차원, ‘교육적 활용’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

주요 정비의 목적	현황	정읍 황토현 전적에 대한 분석
사적의 보존	△	전투의 장소라는 점과 상징적 의미가 중요한 사적으로 이렇다 할 유구 및 주요 건조물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다. 성역화사업으로 조성된 부속시설 영역 일대가 오히려 토지의 훼손을 야기함. 최근 진행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준공으로 인해 들판과 못 등이 복원된 것은 보존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다. 사건과 관계된 주요 지형들이 있어 해당 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역사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사적의 가치 이해 및 증진	△	황토현 전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가치는 전투에서의 승리 및 혁명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조성된 사적 내 부속물인 편의/부대 시설들은 기능 중복으로 인해 역할을 다하여 사적을 온전히 뒷받침 하기에는 현재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시설물 간의 기능 부조화로 인해 온전한 가치 전달이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적 활용	△	기념관과 강당이 존재함에도 주변 유적공원 내 전시관 및 박물관이 주변에 존재하여 전제로 보았을때는 좋은 환경이나 정작 사적 내부에서는 교육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사적 내 기념관 및 강당 내 전시물들은 유적공원의 전시 내용과 중복될 뿐더러 이들과 비교해보았을때, 내용의 전달 방식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사적의 효용성 증대	△	현재 기념탑과 사적 영역 자체로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 영역에 대한 효용성이 제고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외에 수림 영역 또한 빈 공간 방치되고 있다. 효용성 증대도 주요 목적 중에 하나이다.
지역 주민의 활력 공간	△	해당 사적은 정읍의 동학 정신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으로 지역 주민의 자부심 고양에 아주 중요한 장소이다.
지역 활성화	△	연례로 열리는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의 활력 공간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장이자, 사적 영역 가꾸기가 지역 주민들의 소일거리로 작용하기도 하여 실질적으로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공간이다.
관광자원과의 연계	△	정읍시는 시의 9경 중 3경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으로 소개할만큼 해당 관광자원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정읍시는 동학관련 유적이 매우 풍부한 곳으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체험 및 역사 자원들과의 연계가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출처: 사적의 보존관리와 정비의 이해(김철주, 2013)의 틀을 기반으로 연구진이 황토현 전적 평가 진행

26

부분적인 유지보수에는 한계, 사적을 보존하면서도 그 가치를 강화하며 이후 교육적 활용을 고려한 장기적 계획이 필요

- A . 현 사당형의 전적내 건물은 부속물이며 콘크리트 한옥으로 지속 유지보수에 문제, 기능적인 활용 역시 인근 시설과 중복
- B . 공원과 전적 사이의 마스터플랜의 부재로 인해 혼잡한 동선, 주요 시설간의 연계 시너지가 발생하지 못하여 그 활용도가 제한
- C . 전적 내부의 경우 60년~40년 정도의 세월 동안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조경, 시설, 건축 모두 전반적으로 노후화

출처: 사적의 보존관리와 정비의 이해(김철주, 2013)의 틀을 기반으로 연구진이 황토현 전적 평가 진행

27

Part 4

종합정비계획의 전략
및 구상



사적 정비 주요 기법 요소에는 4가지 카테고리가 존재함

- 1) ‘유적 및 유구 정비에 관한 계획’으로 유적 및 유구 보존에 관한 계획/배수에 관한 계획/유구의 표현기법에 관한 계획/역사적 건조물 및 구조물의 수리에 관한 계획 등
- 2) ‘주변 정비와 편의·부대시설의 설치방안 등에 관한 계획’으로 안내·해설에 관한 계획/조경 및 식재에 관한 계획/편의시설에 관한 계획/전시시설에 관한 계획/주변 지역 보전에 관한 계획 등
- 3) ‘소방/방재시설 설치 방안’
- 4) ‘문화재의 활용, 홍보 및 유지관리 방안’

출처: 문화재보호법

29

‘인물/사건 유형’의 정비 기법은 청에서 권장하는 방법 부재 사적의 역사적 가치를 증진하는 창조적 정비가 필요

사적 - 인물/사건 유형의 정비 기법

“인물을 중심으로 한 사적을 정비할 때는 거주했던 장소를 현황 유지 차원에서 검토한다. 인물과 관련된 상징적인 장소의 경우 새로운 시설물을 도입하기 보다 안내판 등으로 해당 인물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상징적인 터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다.

사건 유적은 항일운동이나 동학농민운동, 항몽운동 등이 일어난 곳을 중심으로 지정되며, 정읍 황토현 전적, 공주 우금치 전적, 제주 향파두리 항몽유적, 장성 황룡전적, 화순 쌍산 항일의병 유적, 장흥 석대들 전적 등이 있다.

대부분 전적지이며, 인물유적과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터로 지정되었다.

대부분 상징탑을 세우고 있는데, 현대의 사적정비에서는 높이가 높은 상징물보다는 수평적인 상징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인물유적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설물을 도입하기 보다 안내판 등에 해당 인물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상징적인 터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철주, (2013). 사적의 보존관리와 정비의 이해 중 사적의 정비기법과 유형별 정비)



제주시 애월읍 향파두리 항몽유적지 전경
(제주세계유산본부 제공)

※ 사적정비편람(2009) 상 8개 유형 소개하고 있으나 전적지 등은 없음

30

부분적인 유지보수에는 한계, 사적의 근본적 가치를 보존 및 강화하는 계획 전략이 필요

- 1 동학농민혁명 최대의 전승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증진하는 기념 공간으로의 전환
- 2 역사적 이해에 기초해 주변 자연 지형과 기념공원과 공존함으로써 사적의 진정성을 증진
- 3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현대화된 공간 및 시설 도입으로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활용도를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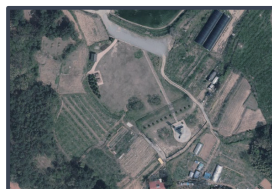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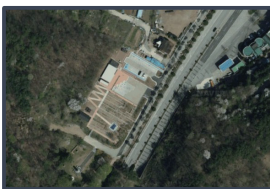
출처: 사적의 보존관리와 정비의 이해(김철주, 2013)의 틀을 기반으로 연구진이 황토현 전적 평가 진행

31

- 1 동학농민혁명 최대의 전승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증진하는 기념 공간으로의 전환

사적 지정 동학유적은 대부분 기념탑 조성 및 기념관 조성이 전부

		사례의 내용	시사점
시설 측면	공주	알림터 외 정보 제공 시설이 부재함	황토현은 기념공원 내 기념관, 교육관, 추모관 등이 잘 조성되어 있음. 프로그램 중복 파악과 시설 보수 및 정비 진행 필요.
	장성	기념탑과 공원 외 조성 시설이 부재함	
	장흥	1층 규모의 기념관 1동 설립되어 있음	
대지 측면	공주	터널과 도로로 인한 원 지형 훼손	황토현은 현재 토지가 대부분 매입되어 있어 복원 및 계획에 용이함. 따라서 기념공원처럼 전적지 구역 일부도 복원 가능할 것으로 보임.
	장성	실제 전투지와 상이한 전적 구역	
	장흥	조성 사업 관련 주민 마찰 발생과 기념관 설립 후 계획 부진	
계획 측면	공주	종합정비계획을 통해 복원과 기념을 일부 실행	황토현은 기념공원과 전적지의 총체적인 연계를 실현하는 마스터 플랜이 가능함.
	장성	추가 계획 부재함	
	장흥	낮은 주요 시설 간의 연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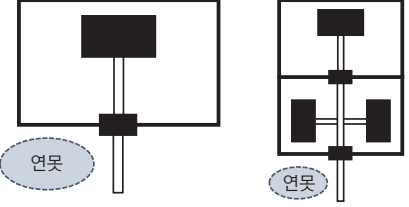


(좌측부터) 공주 우금치 전적, 장성 황룡 전적, 장흥 석대들 전적

32

1 동학농민혁명 최대의 전승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증진하는 기념 공간으로의 전환

황토현 전적은 7080년대 성역화 사업 일환으로 '사당'의 형식

	아산 현충사	서울 낙성대 안국사	예산 충의사	충주 충렬사	의령 충익사
항공사진					
건립시기	1966~1969년, 1972~1974년	1973~1974년	1974~1977년	1977~1978년	1977~1978년
기념인물	이순신	강감찬	윤봉길	임경업	곽재우
특징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성역화사업'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유적정화사업' [담장+외삼문+사당]+연못 전형적인 구성형식을 따르고 있음		

33

1 동학농민혁명 최대의 전승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증진하는 기념 공간으로의 전환

기념관, 동상, 삼문, 사당의 일반적 형식에 따라 전봉준 장군을 영웅화



황토현 전적 - 성역화 사업 일반형

→ 영웅추대 기념관 + 동상 + 연못 + 삼문 + 사당 건립

34

1 동학농민혁명 최대의 전승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증진하는 기념 공간으로의 전환

일반형 건립 - 사당 건립에 관한 논란

[1980년 조성 당시 주요 위원(천도교 종무원장, 문화재 3분과위원장, 국사편찬위원장 사당 반대 의견)]

〈천도교 종무원장 의견〉 (1985)

- 전복준 장군 사당 건립은 반대함. 천도교는 교리상 사당을 건립하여 제사하지 않음. (사자송배의 오류를 개혁-)
- 강당이나 기념관을 건립 요청함. 팔호 안의 내용은 천도교가 제사하지 않는 교리적 이유에 대한 설명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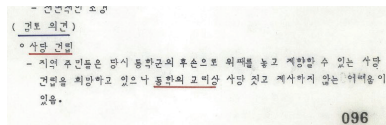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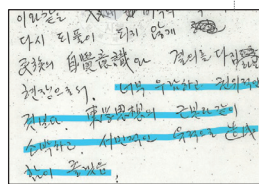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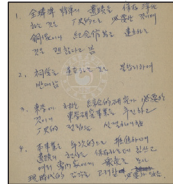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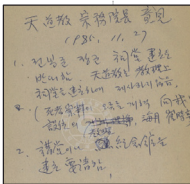
29일 회의(112쪽)에는 강당이나 기념관을 81년도부터 천도교에서 희망했던 것으로 언급함.

〈문화재 3분과 위원장〉 (1985)

- 전복준 장군의 유적을 보존 정화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동상이나 기념관 등을 건립하는 것은 괜찮다고 봄.
- 사당을 건립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반대함
- 동학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필요한 것이니 동학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역사적 정립을 선결하여야함.
- 본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며 유적의 현상을 보존하는 데 힘쓰고 여러 전문가에게 중의를 모아 현시대적 감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사편찬 위원회장〉 (1985)

유적 조성의 성격에 대해
“..너무 우람하고 권위적인 것보다 동학사상의 근본과 같이 소박하고 서민적인 유적으로 조성함이 좋겠음.”라고 적음.



지역 주민들은 당시 동학군의 후손으로 위패를 놓고 제향할 수 있는 사당 건립을 희망하고 있으나 동학의 교리상 사당을 짓고 제사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음

1 동학농민혁명 최대의 전승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증진하는 기념 공간으로의 전환

정비경과 상 발견된 문제점 - 사당 건립에 대한 논란

[1999년 추가 사당 건립 시 동학 학자들의 반대, 현재까지의 논란]

[전북] 동학혁명기념관 사당건립 논란...단체-전공자 반대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사당(祠堂)’.
동학농민혁명기념관내에 사당을 세우려는 전북도의 계획에 대해 민간단체와 학자들이 “농민혁명 정신에 어긋난다”며 반발, 팽팽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도는 6일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 전적지에 건립할 예정인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당시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당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등 13개 동학관련 단체와 송기숙(宋基淑)전남대교수 등 전공학자 17명은 이날 성명을 발표, “농민군이 관군에 맞서 싸운 전승지인 황토현에 양반지배층의 상징물인 사당을 건립하는 것은 유교적 신분질서를 타파하려했던 혁명정신에 위배된다”며 계획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사당 대신 독립기념관이나 5·18기념관처럼 기념조형물이 설치된 대중적인 추모공간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와 정읍시는 “동학농민군들이 조상 숭배만큼은 부정하지 않았으며 현재 황토현 전적지에 잘못 세워져 있는 사당의 위치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라도 새로운 사당이 건립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도는 황토현 전적지에 국비 393억원을 들여 전시관 교육관등을 갖춘 기념관을 연말에 착공, 2002년 개관할 계획이다.

1999-10-07 01:43, 동아일보 신문기사

반봉건투쟁 성지에사당이라니...

ⓒ 나래일기(가) | © 승인 1999.12.02 00:00



황토계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는 구민사(救民祠)라는 사당이 있다. 91년 정읍시가 새로 구민사에서는 건봉준·송화중·김개남 장군과 동학농민군 항전 제위 위패를 모셔놓고 해마다 제를 지내고 있다. 전라북도도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황토계 전적지의 건봉준 장군 동상을 옮긴 뒤 그 자리에 48평 규모 사당을 신축하고, 위상문과 내상문을 갖춘 건물 양식의 사우(庑宇)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동학 관련 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등 12개 단체와 역사학자 이이환씨, 소설가 송기숙씨 등 전국의 동학농민혁명 전공학자 17명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반봉건 가치를 내걸고 생명을 바쳐 싸운 농민군을 사당에 봉안하고 유교 의례 절차에 따라 참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승지에 사당을 건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현재 조성되어 있는 사당도 철거해야 마땅하다”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동학 역사의 기틀을 놓은故이이화 선생을 비롯한 신순철(본인), 신영우, 배향섭 등 8인의 동학 역사학자들 또한 현 사적지 조성 방식이 전승을 기념하는 방식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구민사 및 담장 철거 등 황토현 전적 일대에 대한 재조정에 대해 뜻을 같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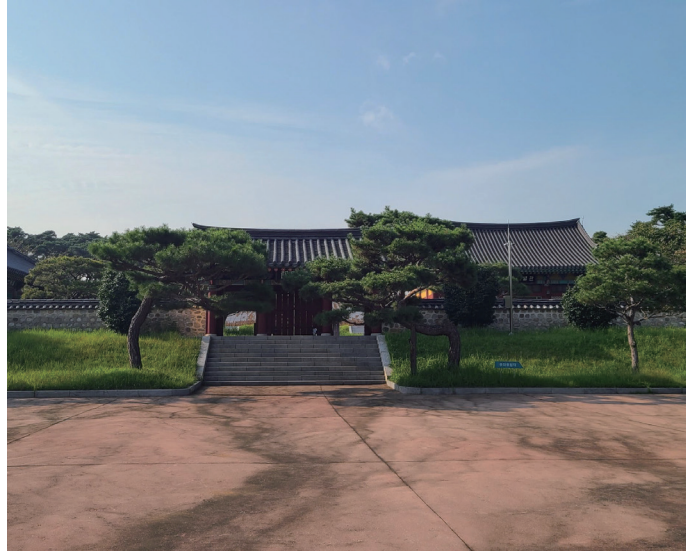
(신순철,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2023.11, 역사관련 자문 중)

1 동학농민혁명 최대의 전승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증진하는 기념 공간으로의 전환

동학농민혁명의 배경이 되는 천도교는 사당의 형식에 적합하지 않음



천도교 중앙대교당
https://ko.wikipedia.org/wiki/천도교_중앙대교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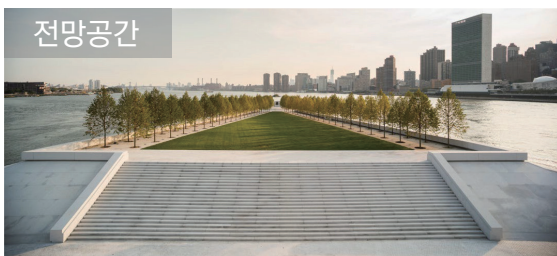
황토현 전적 내 내삼문
연구자 촬영

37

1 동학농민혁명 최대의 전승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증진하는 기념 공간으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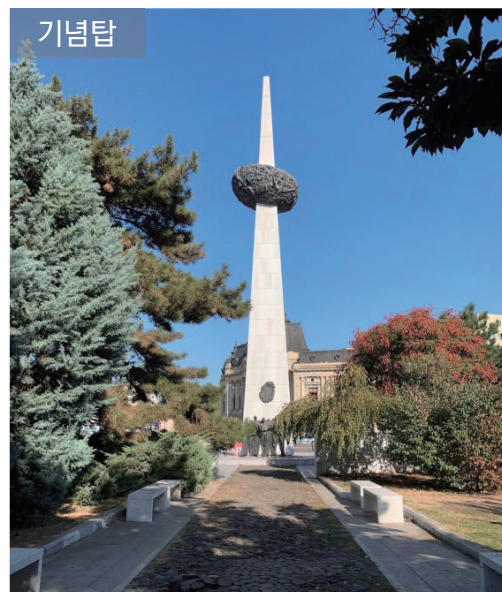
인물, 사건을 위한 기념의 전략은 매우 다양할 수 있음

전망공간



Franklin D. Roosevelt Four Freedoms Park

기념탑



Memorial of Rebirth

체험형 조각



Hungarian Revolution Memorial

38

1 동학농민혁명 최대의 전승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증진하는 기념 공간으로의 전환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컬로든 전장 방문자 센터는 넓게 펼쳐진 전투지를 바라보는 경관의 일부가 됨



컬로든 전장 방문자센터(Culloden Battlefield Visitor Centre, Reich and Hall Architects, 2007)
<https://www.hoskinsarchitects.com/en/projects/arts-heritage/culloden-battlefield-visitor-centre>

39

1 동학농민혁명 최대의 전승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증진하는 기념 공간으로의 전환

1차 대전 프랑스 격전지에 위치한 베르됭 메모리얼은 건물이 전투를 생생하게 담아내는 동시에 격전지를 향한 전망 공간이 됨



베르됭 메모리얼(Mémorial de Verdun, Brochet-Lajus-Pueyo, 리노베이션 2016)
<https://www.archdaily.com/786774/verdun-memorial-museum-brochet-lajus-pueyo-plus-le-conte-noirot>
<https://memorial-verdun.fr/en/memorial-et-forts/visiter-le-memorial-de-verdun>

40

1 동학농민혁명 최대의 전승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증진하는 기념 공간으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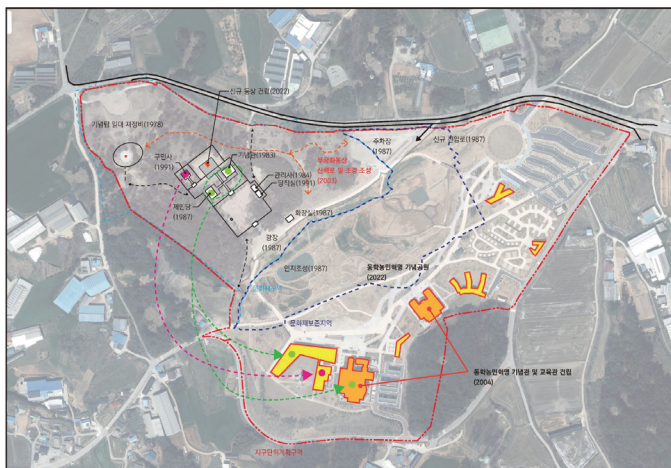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황토현 전적은 전승지로서 과거 형식적으로 건립된 사당이 아닌 사적 의미를 담은 기념 공간을 통해 역사적 가치를 더욱 증진하는 장소로 탈바꿈될 필요가 있음



41

2 역사적 이해에 기초해 주변 자연 지형과 기념공원과 공존함으로써 사적의 진정성을 증진

1963년부터 여러 차례 시행된 일대이 역사관련 계획은 마스터플랜의 부재 속에 혼란한 동선, 프로그램 혼선 등을 빚고 있음



2022년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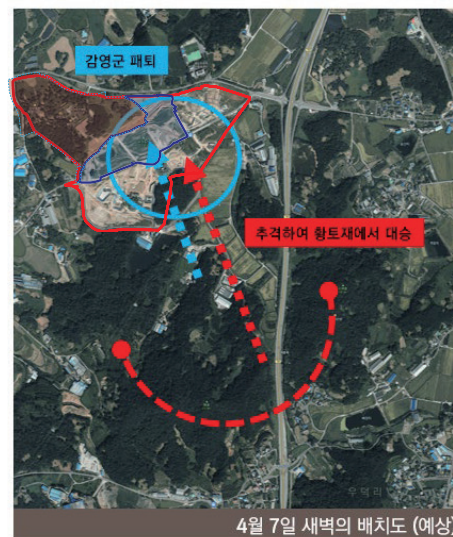
- 1990년대 공사로 <황토현>은 현재의 형태를 갖추.
- 산책로 및 무궁화 동산 일대는 2000년대 초 조성 완료
- [현재상]
- 30~40여년 지난 현재, 목조 건축물 관리 및 초기 한식을 모사한 콘크리트 기념관 건물의 노후 및 관리상 어려움으로 향후 유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황토현 전적> 남측 대지에 본격적 기념사업이 진행되며 현 <전적> 내 건물과의 프로그램 중복으로 사용성이 하락
- 기념탑 인근 및 조경공간의 20여년간 관리 어려움으로 전반적 관리계획 필요
-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교육관 (2004)
 - 신기념관(2004) 건립으로 구기념관(1983)의 콘크리트조의 전시공간 대체.
 - >현재는 신기념관의 전시 콘텐츠 역시 박물관(2022)년과 중복됨
- 2)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2022)
 - 박물관(2022) 내 추모관 건립으로 3000여명의 동학농민혁명 참가자(현, 구민사 내 인원 포함)를 위한 추모공간 마련.

42

2

**역사적 이해에 기초해 주변 자연 지형과 기념공원과 공존함으로써 사적의
진정성을 증진**

또한, 황토현 전투는 일대 지역 전체에 걸쳐 있는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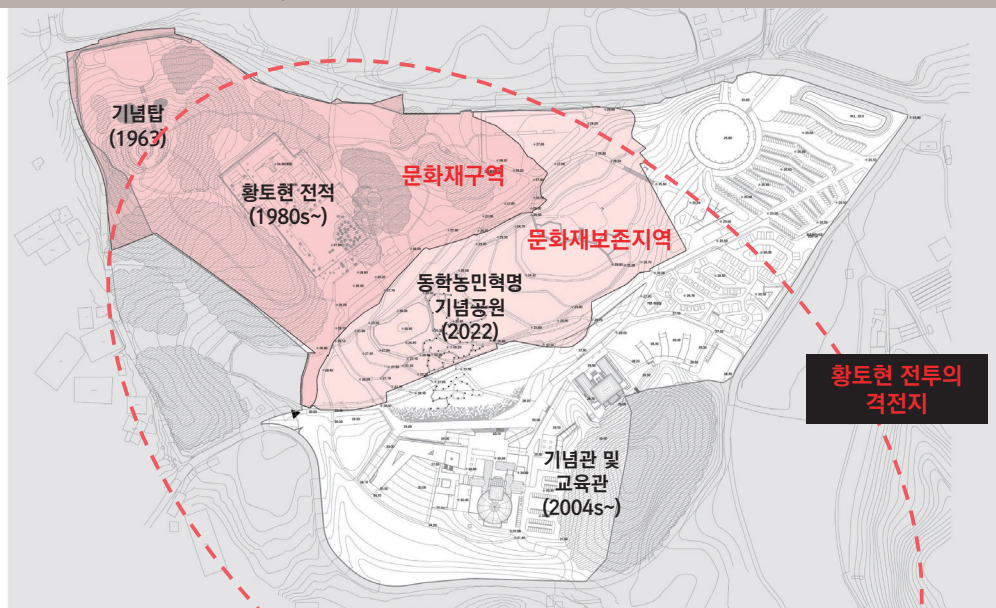
조광환 2020 황토현 전투 전개 재구성, 126주년 학술발표대회, 1차 문헌 등 재확인 하여 연구진 재구성

43

2

역사적 이해에 기초해 주변 자연 지형과 기념공원과 공존함으로써 사적의
진정성을 증진

현 사당이 위치한 공간에 대한 제한된 유지 보수는 전적의 진정성을 살릴 수 없으며, 이에 일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 필요



44

Part 4 종합정비계획의 전략 및 구상

사적 일대의 공간과 연계

3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현대화된 공간 및 시설 도입으로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활용도를 높임

현 콘크리트 한옥은 이미 4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 지속적인 유지 관리 비용이 소모, 지난 20년간 연간 약 1억원 소요

순번	내용	금액	년도	2022년 기준 (통계청 화폐 가치 계산)	2023년 기준 (5%상승적용)
1	경내광장 포장(총 727㎡), 화강석 경계석 설치(220m), 기념관 후면 번외보수(129.6㎡)	169,060	2000	288,416	302,837
2	사적지 한식목조건물 단청보수 5동	268,375	2006	380,019	399,020
3	잡목제거 및 협문보수, 보수정비 기본계획 : 잡목제거(A=34,400㎡), 협문보수(A=1.0㎡)	61,600	2017	67,945	71,342
4	기와보수(A=980㎡ / 제세문, 관리실, 기념관, 보국문, 내삼문) 및 안내판 보수	102,000	2018	110,874	116,418
5	황토현 전적 담청보수(8동, A=504㎡ / 제민당, 구민사, 기념관, 제세문, 보국문, 구민사삼문, 관리사, 화장실)	903,200	2020	972,746	1,021,384
20년간 주요 시설물의 유지 보수에 든 비용 합계 (천원)					1,911,001
지난 20년간 1년 평균 시설을 유지관리 비용 (천원/년)					95,550

황토현 전적 주요 시설물의 유지 보수 비용 산정
(출처: 문화재 관리대장의 내용 참고 및 통계청 화폐가치 계산 활용)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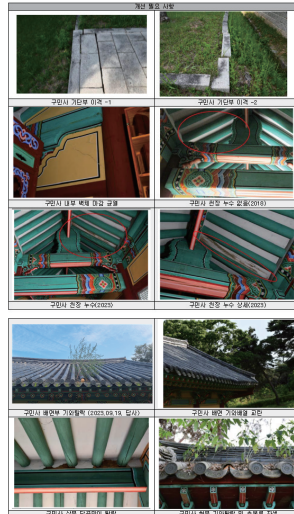
Part 4 종합정비계획의 전략 및 구상

사적 일대의 공간과 연계

3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현대화된 공간 및 시설 도입으로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활용도를 높임

한옥의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보다는 사적의 이용가치 증진을 위한 전시, 건축물 성능, 휴게 공간 제공등의 관점에서 접근 필요



제세문
벽체 마감 및 당골막이 탈락
관리사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소 이동 후 방치
보국문
기단 박석 들뜸
기념관
콘크리트조 건물 내 부족한 전시 내용과 오래된 컨테이너
제민당
창호, 주춧돌, 벽체, 당골막이 등의 탈락
구민사
천장 누수, 기와열 교란, 기와 탈락 등의 훼손 발생 - 조성 후 30년 지나 강화다짐 하자 혹은 결로로 인한 부분 손상 의심 => 해체 후 검사 필요

출처: 2023 사적정기조사보고서 + 7월 및 9월 연구진 답사사진

46

Part 4 종합정비계획의 전략 및 구상

사적 일대의 공간과 연계

3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현대화된 공간 및 시설 도입으로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활용도를 높임

지속가능한 건축 및 조경을 도입, 장기 관리에 유용한 설비 및 시설물을 통해 종합적 비용을 줄이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현장 내 콘크리트 한옥 건축물

전적 인근의 정비되지 않은 산책로 및 조경

출처: 연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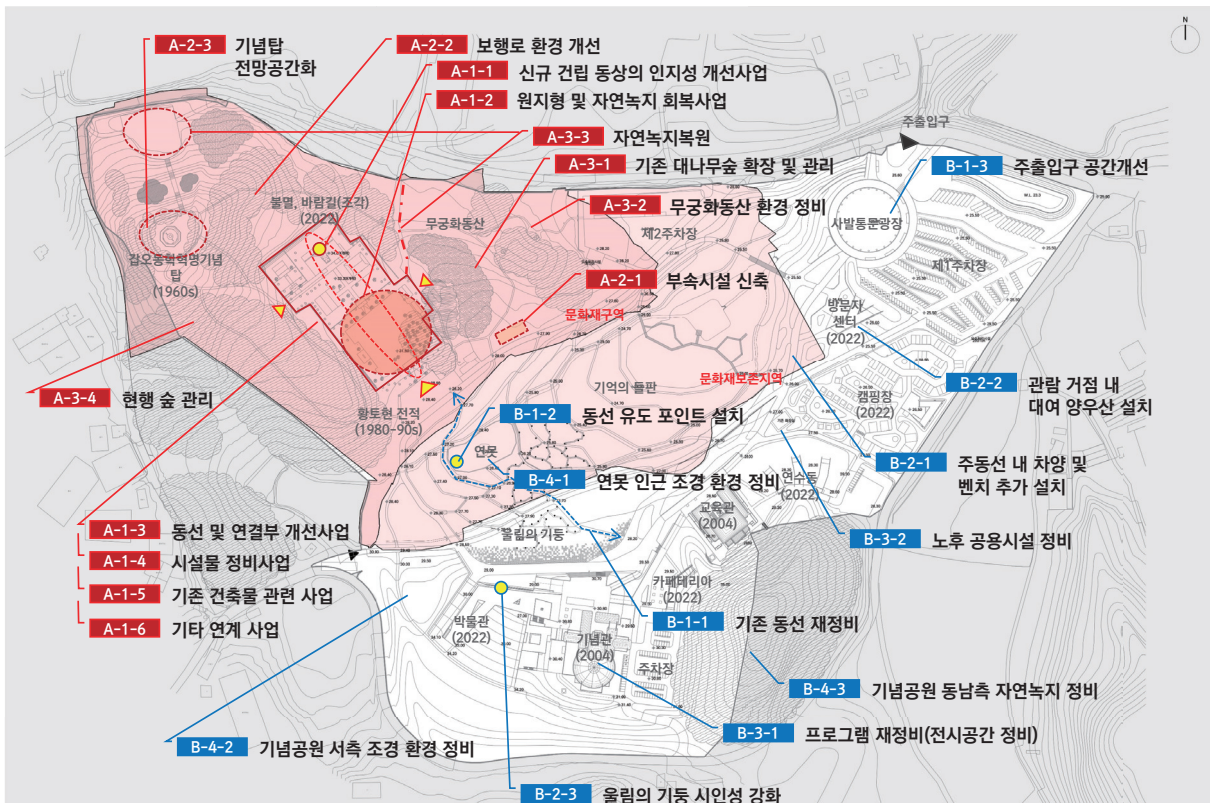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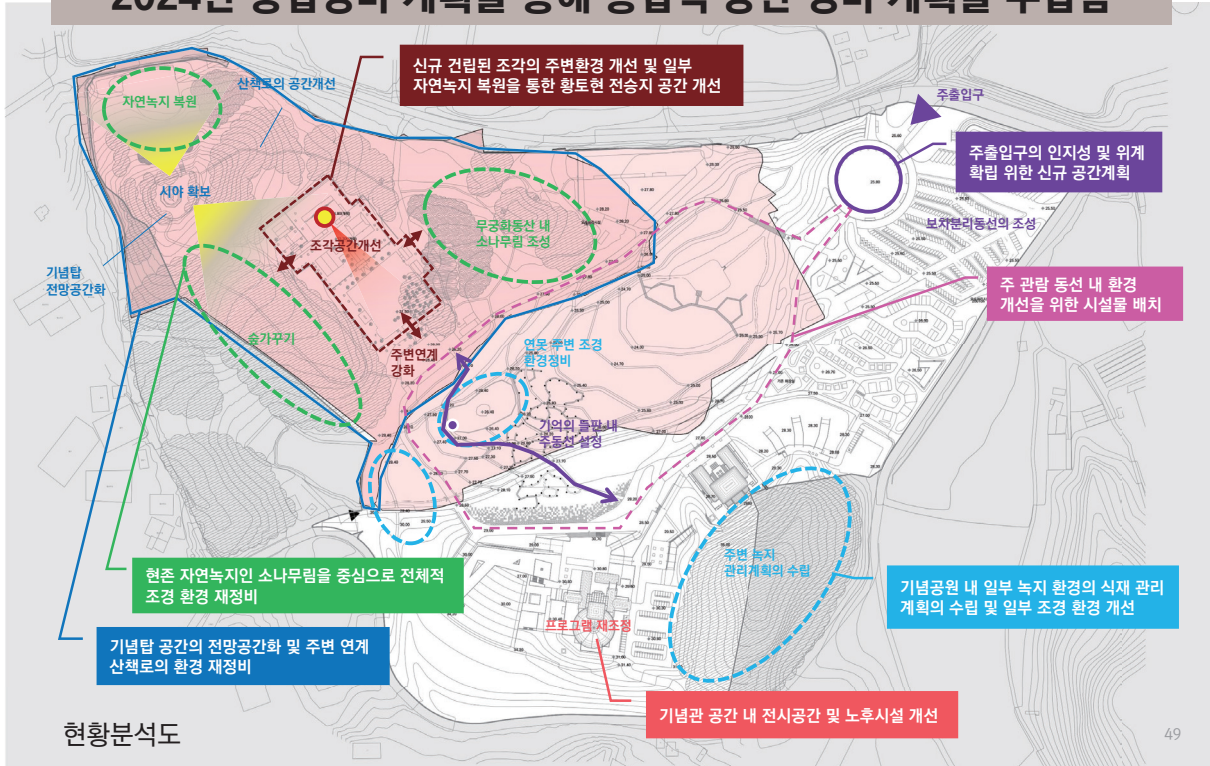
47

Part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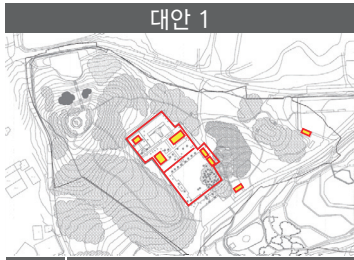
종합정비계획안



2024년 종합정비 계획을 통해 통합적 공간 정비 계획을 수립함



전적 공간의 개선에 있어서는 대안 비교검토 진행

대안 1	대안 2	대안 3
		
주요 내용 유지, 보수 및 일부 리모델링	주요 내용 유지, 보수 및 일부 리모델링과 담장 철거를 통한 공간 개편	주요 내용 사적 내 전시/편의시설 철거 또는 이건 + 부분 원형 복원
사업 내용 A-1-5 중 유지, A-2-1 제외	사업 내용 A-1-5 중 유지, A-2-1 제외	사업 내용 A-1-5 중 철거/이건, A-2-1 포함
상세 내용 - 전체 건물에 대한 개보수 진행하여 현황에 대한 부분적 보완 진행 - 구 기념관의 전시공간 개선 - 기존 화장실 등 개보수 진행	상세 내용 - 대안 1과 같이 전체 건물에 대한 개보수 진행하여 현황에 대한 부분적 보완 및 전시 공간 개선 - 그러나, 공간의 인지성을 향상하고 및 신규 동상과의 조화를 위해 담장에 대해서는 철거 고려	상세 내용 - 기존 건물의 이건 혹은 철거를 고려, 조각에 대한 인지성 정비사업과 전면 마당을 녹지화 사업 진행 - 사적 내부 조경화하여 '황토언덕'의 의미를 강화, 부속시설은 시각적으로 간섭되지 않는 곳에 건립
분석 - 신축에 대한 비용 절감이 가능 - 기존 공간의 개보수를 통한 개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단청 등 한옥 건축물의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적 부담 지속(지난 20년간 약 연 1억의 비용 사용)	분석 - 신축에 대한 비용 절감이 가능 - 기존 공간의 형식은 유지하나, 전적의 의미를 고려하여 담장을 낮추거나 철거하여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 증진 및 승전의 의미 재고	분석 - 신축에 대한 비용 부담 예상 - 사적의 전반적 의미와 교육적 활용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옥 건축물의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적 부담 감소

※ 문화재 관리대상 기존 주요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 산정하여 2023년 기준으로 계산

52

Part 6

대안 계획의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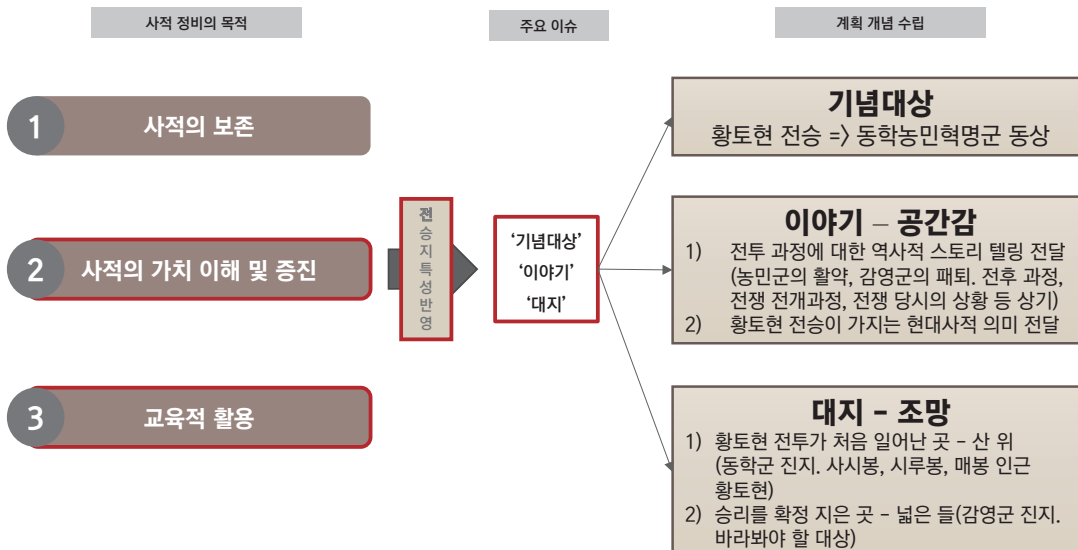
적극적 공간 개선이 이뤄지는 대안2, 3에 대한 계획 소개

대안 1	대안 2	대안 3
주요 내용 유지, 보수 및 일부 리모델링	주요 내용 유지, 보수 및 일부 리모델링과 담장 철거를 통한 공간 개편	주요 내용 사적 내 전시/편의시설 철거 또는 이전 + 부분 원형 복원
사업 내용 A-1-5 중 유지, A-2-1 제외	사업 내용 A-1-5 중 유지, A-2-1 제외	사업 내용 A-1-5 중 철거/이전, A-2-1 포함
상세 내용 - 전체 건물에 대한 개보수 진행하여 현황에 대한 부분적 보완 진행 - 구 기념관의 전시공간 개선 - 기존 화장실 등 개보수 진행	상세 내용 - 대안 1과 같이 전체 건물에 대한 개보수 진행하여 현황에 대한 부분적 보완 및 전시 공간 개선 - 그러나, 공간의 인지성을 향상하고 및 신규 동상과의 조화를 위해 담장에 대해서는 철거 고려	상세 내용 - 기존 건물의 이전 혹은 철거를 고려, 조각에 대한 인지성 정비사업과 전면 마당을 녹지화 사업 진행 - 사적 내부 조경화하여 '황토언덕'의 의미를 강화, 부속시설은 시각적으로 간섭되지 않는 곳에 건립
분석 - 신축에 대한 비용 절감이 가능 - 기존 공간의 개보수를 통한 개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단청 등 한옥 건축물의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적 부담 지속(지난 20년간 약 연 1억의 비용 사용)	분석 - 신축에 대한 비용 절감이 가능 - 기존 공간의 형식은 유지하나, 전적의 의미를 고려하여 담장을 낮추거나 철거하여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 증진 및 승전의 의미 재고	분석 - 신축에 대한 비용 부담 예상 - 사적의 전반적 의미와 교육적 활용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옥 건축물의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적 부담 감소

※ 문화재 관리대상 기준 주요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 산정하여 2023년 기준으로 계산

54

기념대상, 이야기, 대지를 바탕으로 가안 계획을 수립



조광환, 2020. 황토현 전투의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미, 동학농민혁명 126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 기반/ 1차 자료 함께 검토 이미지 연구진 재구성

55

조각, 공간 그리고 조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간 계획



정비계획을 넘어 상상해본 주요 계획안 소개

1 최초/최대 승리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황토현 전승기념공간 계획

황토현 전적 일대의 적극적 공간 개선 계획을 제안/ 기존 동상의 재활용/ 전바적인 공간구조 개선 및 승전의 상징적 공간 구조로 전환

2 황토현 전적과 기념공원을 아우르는 진입 거점 공간 계획

수평적으로 넓은 공간이 위치한 기존 공간에 수직성을 부여, 전체 전적 및 기념공원을 아우르는 역사성, 상징성이 있는 진입 공간 계획

3 신규 관람 노드 시설 설치 계획

노후, 분산된 기존 시설을 현재의 공간구조에 맞게 통합하여 재배치, 새로운 관람 동선을 유도하는 신규 공간 제안

4 기념탑 주변 공간 개선 계획

관리하기 어려운 녹지로 남아있는 기존 기념탑 공간을 역사의 일부로 수용, 전체 공원의 일부이자 또 하나의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 장소로 재구성

규모에 따라 다른 3가지 대안의 마련

	대안2. 현황유지	대안3a. 열주광장	대안3b. 햇불의 언덕
조감도			
규모	현황유지(사업대상지 약 11,700 sqm)	약 6,740 sqm	약 3,820 sqm
특징	• 현행 대상지의 건물 유지 • 건축물 내 인테리어 및 콘텐츠 개선 • 조경 환경 개선 및 정비 • 전면 담장 및 문 제거하여 개방	• 현재 조각 위치 유지하고 일부 변형하여 전체 공간 구성과 조화 • 양측 열주를 중심으로 중앙광장 형성, 기념의 효과 강조 • 중앙 빛, 불꽃 등을 통해 경관 연출	• 조각상과 함께 걸어가는 체험 중심의 적극적 조각 재배치 • 조각 위치 변경으로 전체 사업 대상지 축소하여 비용 절감 • 열주 설치로 기념 강조 및 관람환경개선

58

대안2. 현황 중심으로 담장 철거, 공간 리모델링 개선 등을 추진



대안2. 현황유지

- 현황 유지를 통해 최소의 비용 사용,

시야를 가리는 사당형의 담장을 철거, 조경을 통해 가방감과 위요감을 동시에 확보



대안2. 현황유지

60

담장의 경우 역사적 유적 등의 접근성, 교육적 가치 등의 재고를 위해 낮추거나 철거하는 등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함



대전 둔산선사유적지

- 기존 600m 길이 담장이 있어 유적 내부에 대한 접근성 떨어져 2008년 북쪽면 300m 담장을 철거
- 조경수 등 보완하여 주변 경관 개선, 휴식시설 추가 설치



부여 정림사지

- 1982년 사적지 둘러싼 1.9m 한식 담장이 가시성, 접근성이 저해된다는 문제 존재
- 2023년 정비사업으로 1.2m로 담장 높이를 낮춰 지역과 연계



박팽년 선생 유허비

- 기존 담장으로 닫힌 공간이 관람을 어렵게 하고 우수우출 민원이 있었음
- 2020년 정비계획 수립하고 23년 사업을 진행해 담장 철거하고 산책로와 벤치 조성

61

대안3. 동상이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공간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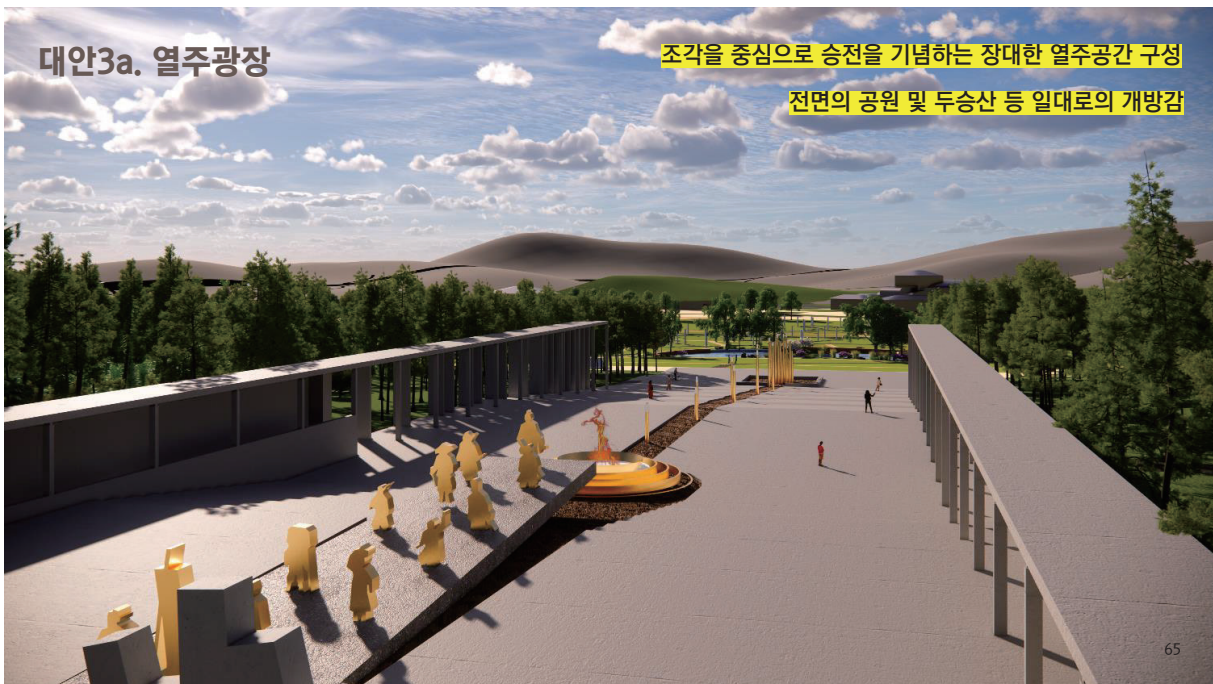
대안3a. <불멸, 바람길>을 중심으로 뻗어가는 전승의 공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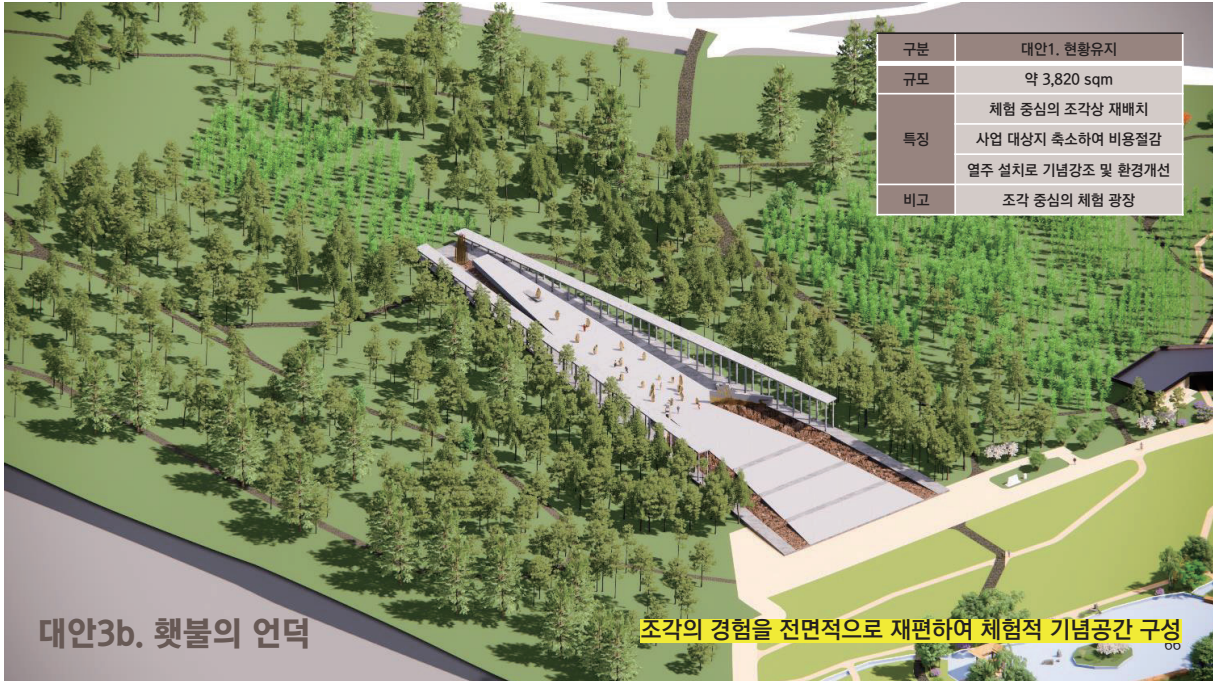
거친 돌로 채워져 길게 뻗은 조경 공간은 평등과 자유, 동학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걸어온 험난한 여정을 상기



조각의 전면으로 공간을 개방하여 전투가 벌어진 황토현 일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대안3b. <불멸, 바람길> 조각의 방향을 틀어 동학농민군과 함께 언덕을 오르는 체험적 기념 공간 구성



조각을 따라 걸어 올라가는 경험으로 황토현 전투의 일원과 같이 느껴지도록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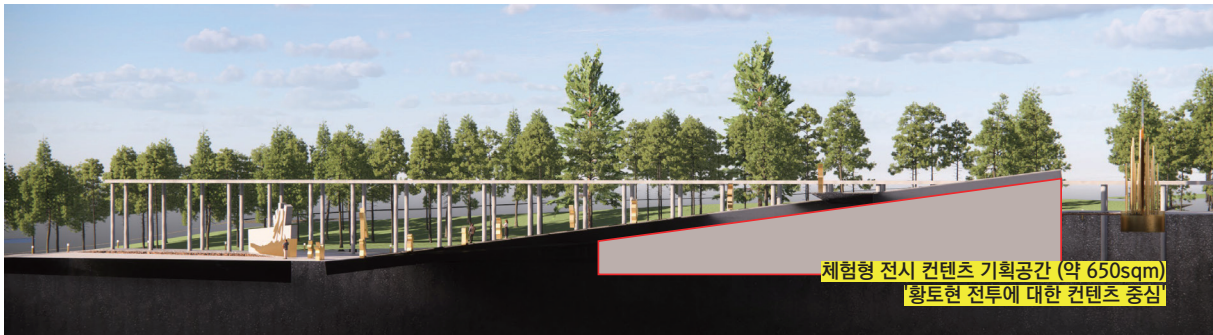


기존 조각의 크기를 확장하고 일부 인물상을 추가하여 체험 공간의 범위와 효과를 극대화



대안3b. 햇불의 언덕

사면의 하부에는 황토현 전투 사건만을 온전히 전시 및 체험할 수 있는 기획형 전시 공간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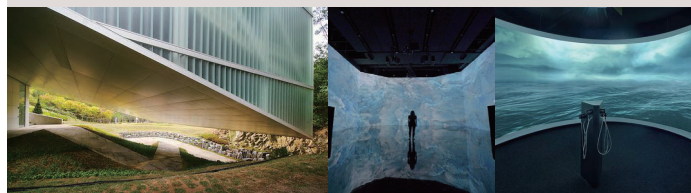


체험형 전시 콘텐츠 기획공간 (약 650sqm)
'황토현 전투에 대한 콘텐츠 중심'

측면에서 본 사면 하부공간



체험형 전시콘텐츠 예시 / 황토현 전투 관련 전시 공간



어두운 경사면 하부를 이용한
극장형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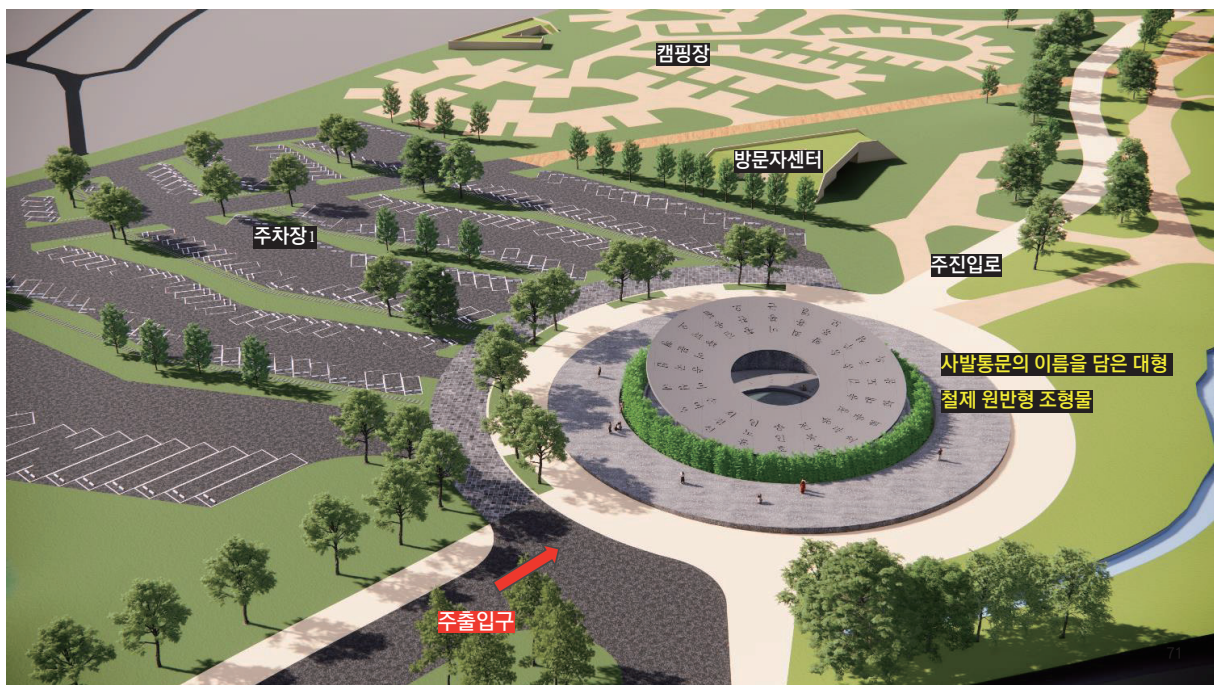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
(황토현 전투를 주제로)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성을 강화하는 관람 시작점의 공간 계획

주출입구 상징공간의 계획



사발통문이라는 정체성은 유지하되 이를 조형적으로 재해석하여 전면에서 눈에 띄는 공간으로 재구성



Part 6 대안 계획의 제안

황토현 전적과 기념공원을 아우르는 진입 거점 공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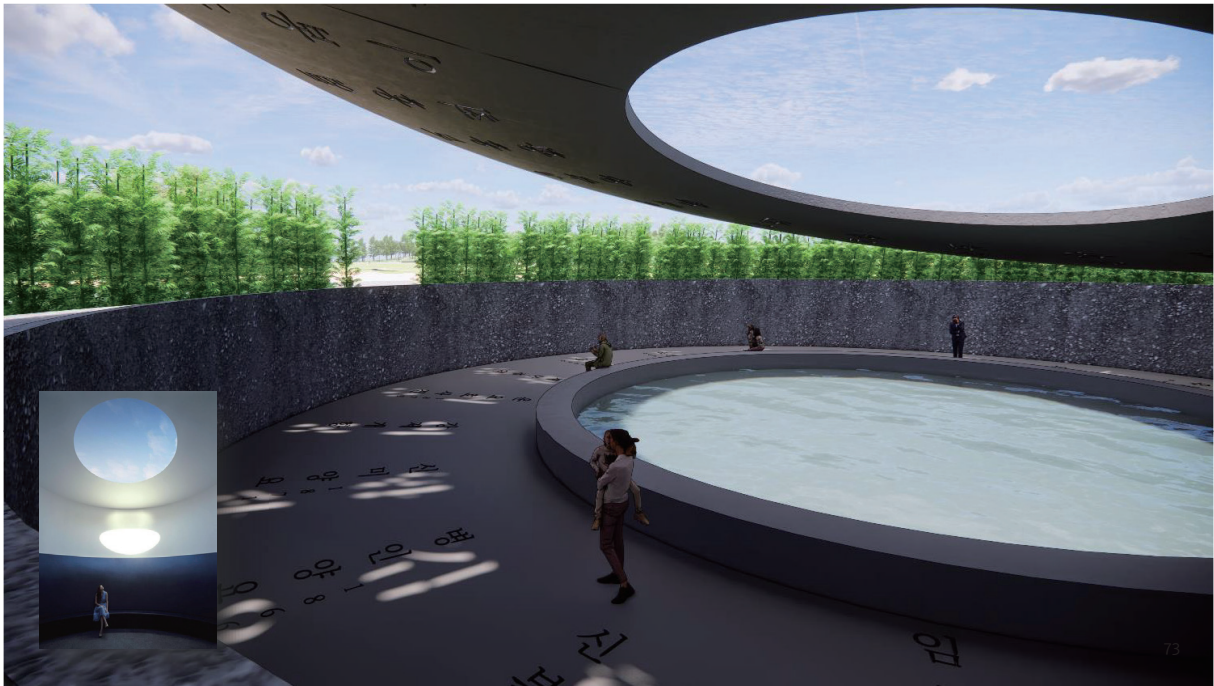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원반형 조형물의 하부로 통로와 공간을 조성하여 기념공원 전체의 인상을 결정하는 첫 전시공간으로 기획



Part 6 대안 계획의 제안

황토현 전적과 기념공원을 아우르는 진입 거점 공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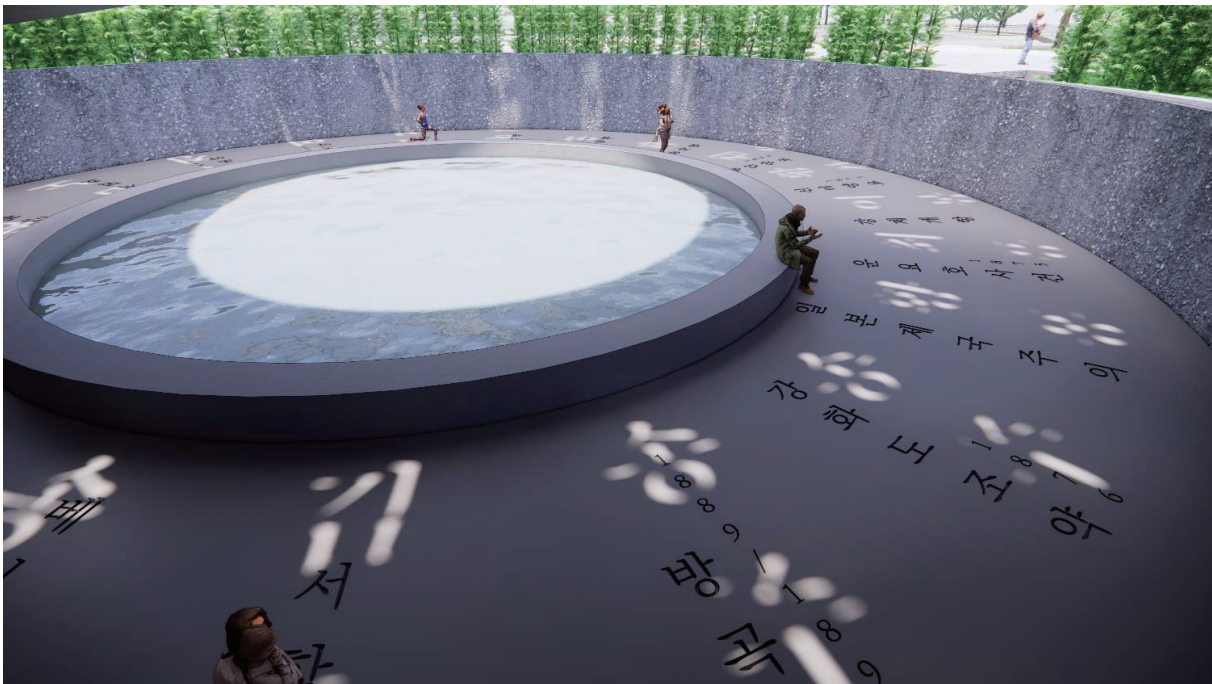
원반형 조형물의 하부에는 주변 바닥보다 낮게 자리잡은 야외 전시 공간을 설치,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다시 떠올리는 공간



상부의 지붕이 되는 원반형 조형물은 타공을 통해 사발통문에 기록된 역사적 인물들의 이름이 빛이 되어 새겨짐



바닥면에는 동학농민운동의 상징적 사건들을 담은 타임라인을 작성, 반짝이는 이름들과 교차하여 역사적 공간 체험 제공



프로그램 활용 및 노후도를 고려한 기존 시설 철거 후 관람 동선을 개선할 수 있는 위치에 신규 시설로 설치



76

기존 화장실 및 관리소 등을 새롭게 배치하고 주차장과 연결되는 신규 산책로 조성, 건물이 주변의 길과 통합될 수 있도록 계획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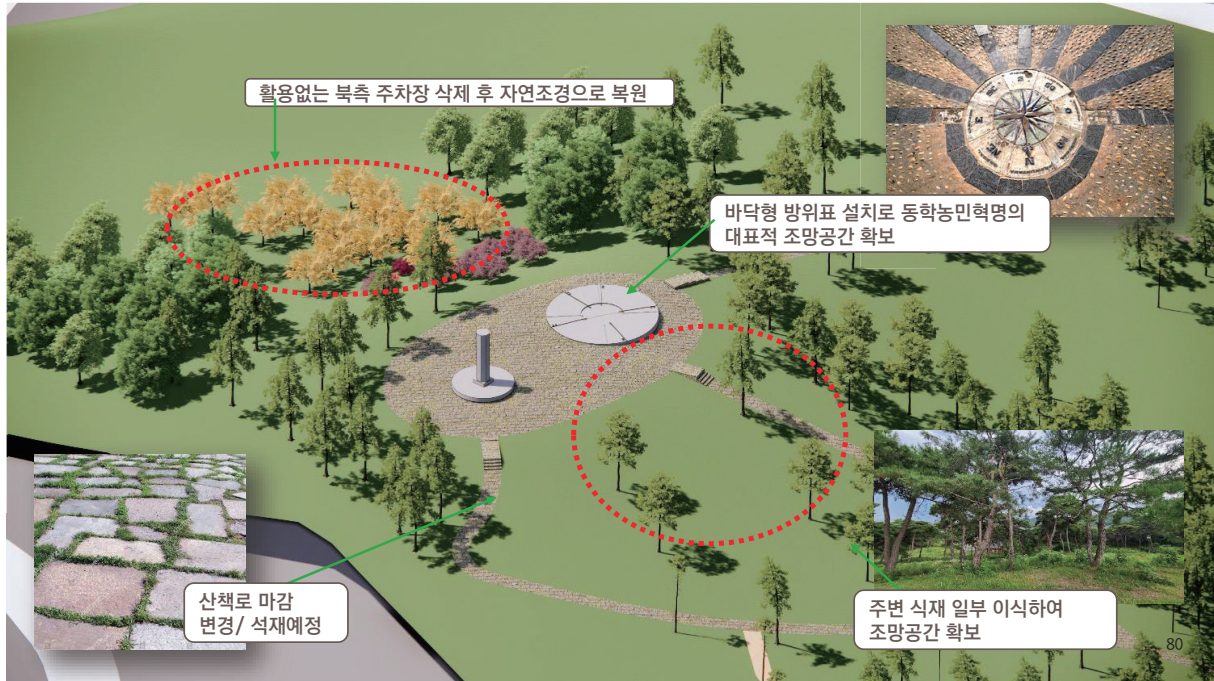
낮고 깊은 처마를 남쪽으로 설치하여 기념 공원 내 기억의 들판을 조망할 수 있는 관람 포인트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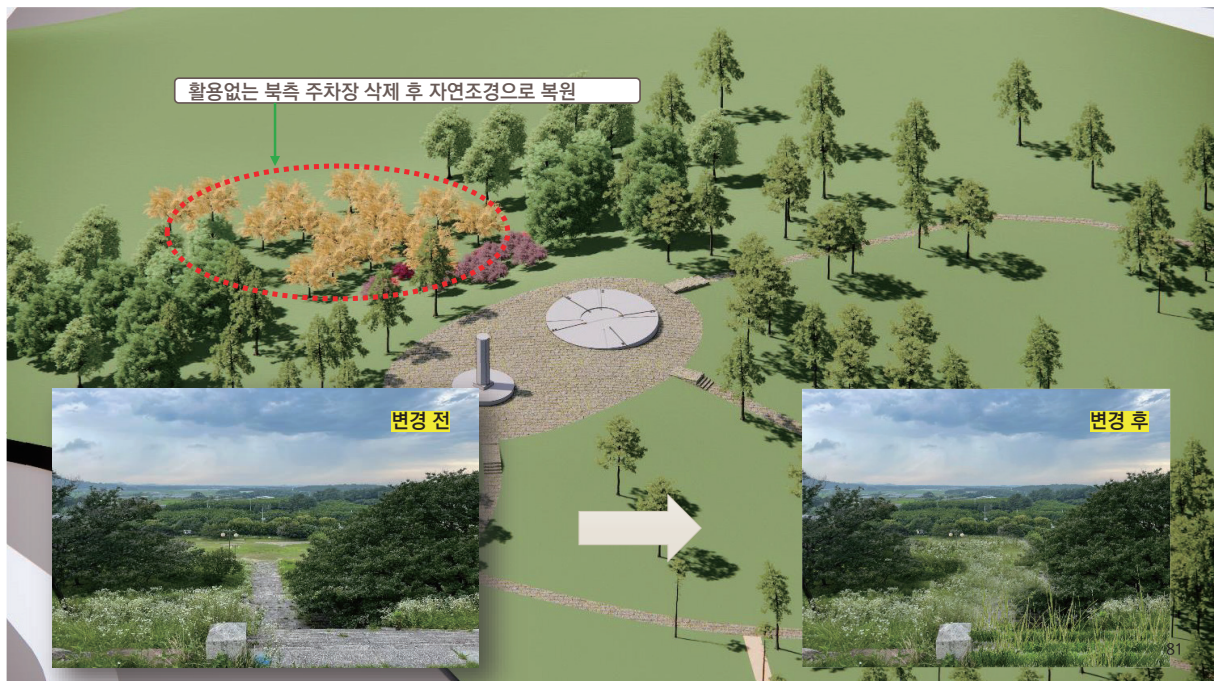
목재, 내후성 강판 등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자연스러운 거친 재료를 사용하여 배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건축으로 계획



기념탑 인근의 노후된 조경 공간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일대의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공간으로 재조직



과거 기념탑만 있던 시절에 형성된 북측 주차장 및 계단은 현재 효용이 다하였음으로 철거 후 일대 자연 녹지로 복원



평지 위의 높은 지대로 일대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사건 위치들이 기록된 바당형 방위표 설치로 역사적 사건들을 조망



82

현재 기념탑은 60-70년대 식재된 소나무들이 우거져 아래의 기념공원이나 전적에서 인식되지 않음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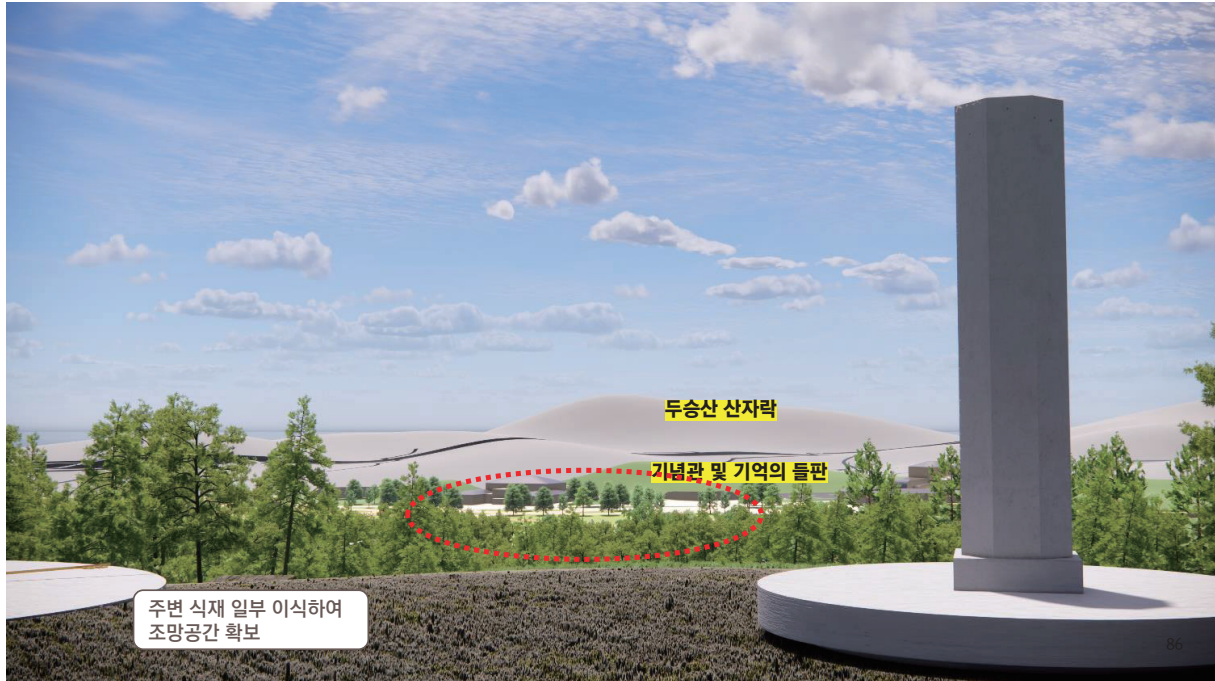
기념관과 기념공원내 기억의 들판 등 연속된 전투지를 한 번에 조망할 수 있는 포인트로 만들기 위해 일부 식재를 이식, 조망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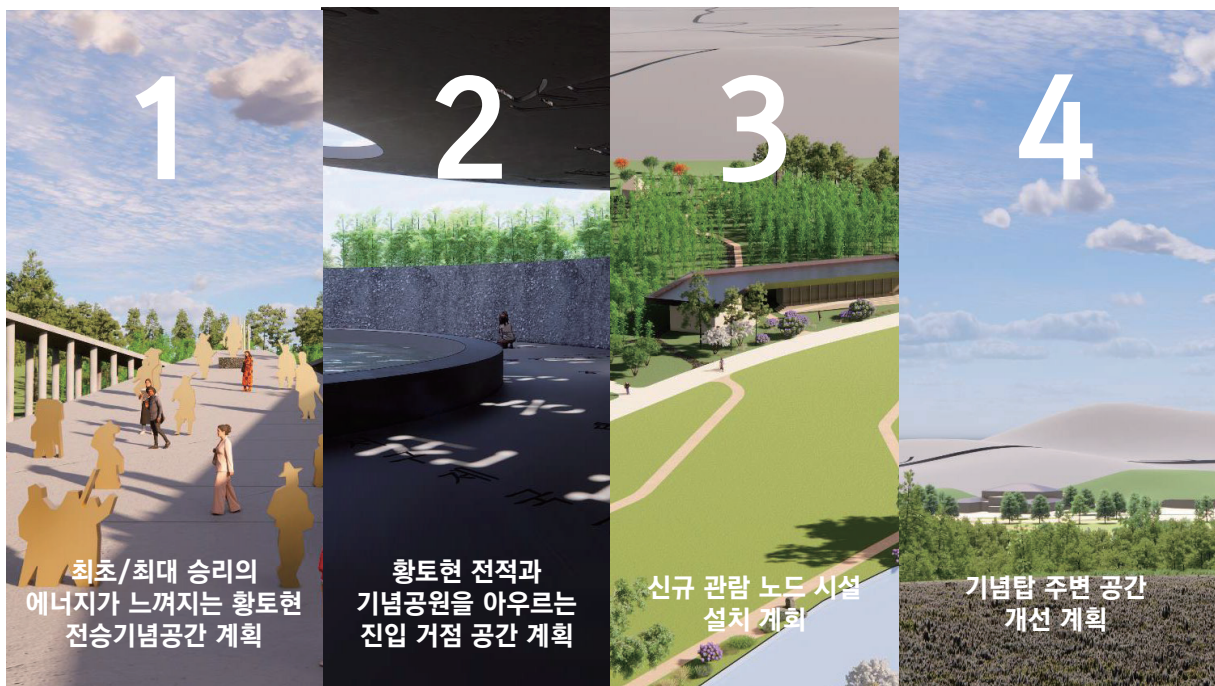
기념탑과 하부의 기념공원 사이의 시각적 관계를 열어줌과 동시에 일대의 격전지들을 조망하는 전망 공간으로 역할



기념탑과 하부의 기념공원 사이의 시각적 관계를 열어줌과 동시에 일대의 격전지들을 조망하는 전망 공간으로 역할



주요 공간 계획을 통해 전적의 역사적 가치를 증진하고, 일대와의 연계를 강화,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하는 목표 추진



감사합니다.



토론 1

정읍 황토현 전적 공간 재구성 및
기념공원 연계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문

남 해 경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정읍 황토현 전적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은 이전부터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63년부터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온 황토현 전적은 그동안 일반인들로부터 체계적인 종합계획, 구조물의 부조화, 관람 동선의 혼선 등으로 시설물 정비, 사적지 전체공간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 안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모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정비계획은 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인의 토론 의견도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보조적이고 보완적인 측면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에 있는 황토현전적지는 1894년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관군과의 전투에서 처음으로 승리했던 장소이다. 동학농민군은 1893년 고부 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대항하여 일어나, 1894년 1월 고부관아를 습격하였다. 농민군은 전봉준의 지휘 아래 보국안민(輔國安民), 제폭구민(除暴救民)을 내세우고 다시 일어나게 된다. 고부관아를 점령한 농민군은 주변의 곡창지대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백산으로 진출하였다. 그리하여 관군과 농민군은 정읍의 황토현에서 대치하게 되었는데, 밤을 이용한 기습공격으로 농민군은 관군을 크게 물리치게 되었다.

이 승리는 동학농민혁명을 크게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우금치 전투에서 관군과 일본군에게 패하여 동학농민운동의 막이 내려지지만, 이 운동에서 보여준 개혁정신과 민족자주정신은 민족독립운동의 전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황토현 전적에서의 전투는 정읍의 혁명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평가받고 있다. 이것이 황토현전적지가 동학농민군이 최초·최대의 승리를 부각할 수 있는 전승지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되는 이유인 것이다.

황토현 전적에 대한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본인은 전적으로 동감한다.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전략 및 구상을 한 다음 정비계획안과 대안계획을 도출하는 내용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정비계획의 필요성을 본래 정읍 황토현 전적이 가지고 있는 성격인 동학농민군과 관군이 싸워 승리한 역사의 현장이지만 승리의 메시지를 부각하는기념시설이 아닌 유교식 추모공간으로 조성되면서 본래의 의미가 퇴색 및 변질된 점, 1963년 이후 조성된 각종 시설들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concept이나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져 이로 인한 건축물의 부조화, 공간구성의 부조화가 발생한 점, 체계적인 동선체계 미비, 그리고 건축한 이후 세월의 흐름으로 인한 노후화 등의 관리문제가 발생했던 내용 들은 이미 이전에

다 지적된 내용이기도 하다. 그리고 광범위한 전적지의 내용을 어떻게 주어진 공간에 담을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다. 아울러 전국 각지에 펼쳐져 있는 동학 관련 유적들과 어떻게 연계하면서 어떻게 정읍 전적지만의 색깔을 낼 것인가의 차별화 문제 역시 생각할 대목이기도 하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건물의 기능이나 공간의 구성, 국내외 사례, 유지관리 현황 등을 분석한 다음 황토현 전적을 사적의 보존, 사적의 가치 이해 및 증진, 교육적 활용 차원으로 전개하고 교육적 활용을 고려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점 역시 공감을 표한다.

특히 정비계획에서 일반적으로 복제형의 정비방식, 절충형 정비방식, 상징적 정비방식이 있는데 이를 현재의 시설에 맞추어 현 시설 유지와 부분적인 리모델링, 신축 등의 방식을 적용한 것은 현실적인 계획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본인은 토론자의 입장과 보조자의 입장에서 다음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본인이 그동안 토론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몇 차례 정읍 동학 전적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전체적으로 넓은 대지에 여러 가지 시설과 조경이 설치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감당이 안된다는 점이었다. 물론 넓은 전적지를 한정된 대지에 담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러한 점도 있겠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 미시적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에 관한 고려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미시적 관점에서 현재 동학 전적 내부 역시 생각해야 할 점들이 있는 것 같다. 1960년 이후 넓은 대지에 여러 가지 건물과 시설이 설치되었는데 여기저기 분산된 느낌이지 하나로 종합되어 동학 전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은 미미한 것 같다. 건축과 조경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고 건물들 역시 하나가 되지 못하며 각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건물과 조경, 보조 시설물 역시 하나의 concept으로 종합화하지 못한 느낌이다.

건축의 경우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주로 이루어졌는데 기념관, 교육관, 사당이 각각의 재료와 양식으로 건축되었다. 양식을 보면 일견 국적 없는 건축처럼 보이기도 한다. 물론 당시 시대의 건축 경향, 특히 역사적인 건축과 문화재 관련 건축물은 전통건축 양식에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일 것이다. 일종의 postmodern 양식이다. 시대적 추세를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이루어진 건축은 전체적으로 통일이나 조화, 종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조경과 시설물 역시 마찬가지로

지 현상이다. 천하대장군부터 현대적인 기념물이 서 있고 토종 야생화부터 외국 수종과 식물까지 다양하게 식재되어 있어 의도가 무엇인지, 이 시설의 목적은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전체적인 concept이 없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주변 건축인데 이는 현상변경의 문제일 것이다. 문화유산은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은 현상변경 규정과 심의 등을 받게 되어 있다. 문화유산과 조화되는 역사경관과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곳이 농업지역이고 농업을 위주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황토현 전적 주변에는 축사와 태양광, 각종 농업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이외에도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한 현대 건축물도 있다. 이로 인한 축사의 냄새, 경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일지도 모르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탐방객이 적다는 점이다. 본인이 그동안 몇 차례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탐방객을 많이 볼 수 없었다. 넓은 대지에 여러 시설이 조성되었는데 이를 이용하는 탐방객이 없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일 것이다. 가끔 볼 수 있는 방문자들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 반려동물을 산책시키기 위한 사람들이었다. 이는 이 유적이 탐방객들에게 볼거리와 흥미거리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이 원인이 될 것이면 결국은 콘텐츠의 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 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정비계획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 정비계획안에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은 먼저 전체적인 concept을 부여해 주었으면 한다. 물론 본문에서 종합적인 concept을 교육적 차원 등으로 설정하고 전개해 주었지만 전적지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정비계획과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정비계획안을 동시에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다음으로 본 대지는 많이 넓은 편이다. 넓게는 전투가 벌어졌던 사시봉-매봉-시루봉에서부터 감영군 진지였던 황토현 전적까지 넓다. 현재 문화유산구역으로 지정된 황토현 전적의 구역도 좁은 면적이 아니다.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이다. 이를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비계획은 수립하되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미시적인 측면에서 황토현 전적에 관한 정비계획과 더불어 거시적인 관점에서 동학군 매복지역까지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문화유산의 정체성(identity)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 각지에 동학과 관련한 유적이 많습니다. 전라북도에도 많습니다. 요즘 유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전국 지자체들이

동학 관련 유적을 경쟁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학의 원류는 정읍입니다. 그리고 정읍에서도 황토현 전적입니다. 이러한 황토현 전적의 정체성을 살려 정읍 황토현에만 있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다른 지역의 동학 유적과는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정비계획이었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현재 황토현 전적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6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오늘날에 이른 결과물이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당의 유지관리에 1억이 소요되기도 하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자체의 예산에는 한계가 있다. 중앙부처 예산 확보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정비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아울러 재정확보방안도 언급해 주었으면 한다.

정읍 황토현 전적에 대한 정비계획의 필요성은 그동안 많은 경로를 통하여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금번의 정비계획이 좋은 결과를 맺어 정읍 황토현 전적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이루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토론 2

정읍 황토현 전적 공간 재구성 및 기념공원 연계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편

홍 성 덕
전주대학교 교수

본 발표문은 기존 황토현 사적지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하고 정비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제안으로 발표 내용에 대한 문제의식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으며, 정비 및 활용 방안에 관한 몇 가지의 궁금증과 제안을 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 문제의 출발

-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이후 황토현 전적지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재검토 필요- 1963년 갑오동학혁명기념탑, 1987년 황토현 전적, 2022년 기념공원 조성- 기념탑, 기념관, 제민당, 구민사 - 박물관, 교육관, 추모관, 연수동, 캠핑장, 방문자센터, 카페테리아
- 기존 기념·추모시설의 노후화와 기념공원과의 연계성 확보 필요 - 전봉준 동상 철거와 불멸의 바람길 조형물 설치

□ 전적 공간 재구성

- 황토현 전적지는 1963년 기념탑 건립 이후 1981년 사적지정과 함께 기념·추모시설이 건립되었으며, 특히 1987년 정봉준 선생 유적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기록화, 동상, 제민당 등이 건립되었으며, 1991년에 구민사를 건립 혁명 참여자의 위패를 봉안함→ 전두환정권 당시 문화유산의 정비 방향은 군사정부의 정책적 지향성 차원에서 추진→ 1991년 사당 건립을 둘러싼 반대 의견은 농민혁명의 역사성을 반영한 결과
- 현실적으로 관련 시설(기념관, 제민당, 구민사)의 노후화와 기념공원의 조성에 따른 시설 재조정은 당면한 과제임
- 기존 기념·추모시설 중 새롭게 교체 설치된 ‘불멸, 바람길’ 동상을 제외한 제반 시설은 유지관리와 혁명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마땅히 철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런 차원에서 대안 3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대안 3의 a, b안에 관한 의견- 열주의 설치는 ‘불멸, 바람길’의 지향성 차원에서 좋은 의견으로 생각되지만 수평 구조가 가지는 초입부 열주의 위압감은 열주 설치가 가지는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생각임. 열주의 상부를 수평구조로 설치하려는 의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b안 햇불의 언덕의 경우 ‘불멸, 바람길’의 동상을 재조정하는 안으로 동상의 위치가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어, ‘불멸, 바람길’의 설치 의도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는 ‘불멸, 바람길’의 동상이 가지는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으로 동상 교체에 따른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음.- 대안 3에서 공간의 위계가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이 더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불멸, 바람길’의 조형물은 ‘평등성’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주변 시설을 철거한 후 공간을 열었을 때, ‘불멸, 바람길’에 이르는 동선의 구성에 ‘평등’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제 3의 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관람 노드 시설 설치 - ‘불멸, 바람길’에 이르는 동선 내에 화장실 및 사무소, 카페테리아, 기념품 샵의 설치 필요성은 동의할 수 있으나 기념공원 전체 공간 속에서 이 노드의 기능이 유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듯함.- 신규 어메니티는 기존 새로 설치된 방문자센터, 연수동, 박물관, 교육관과 별개의 동선 내에 위치해서 사적 시설을 포함한 전체 공간에 대한 동선 계획 속에서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다만, 화장실과 작은 휴게공간의 설치에 이동 동선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 기념 공원 전체 관람객 이동 동선을 분석하고 기념공원 전체에 대한 관람 코스의 개발 계획 아래에 노드 시설의 내용과 위치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봄- 관람객은 박물관 전시공간을 관람한 후에 ‘불멸, 바람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코스이며, 주차장에서 ‘불멸, 바람길’로 곧바로 이동하는 사례는 많지 않음.
- 기념탑 전망 공간으로 재조직 - 조망공간의 확보와 용도를 상실한 북측 주차장의 조경 복원의 제시는 타당함- 첨언하자면, 조망 대상의 전투에 대한 안내판의 설치도 필요하며, 바닥형 방위표는 방위표시 보다는 무장, 백산 등 동학농민군의 이동과 전라 감영 관군의 이동 등을 표시한 전투 지형도를 방위에 맞게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임.

□ 기념공원 연계 활용방안

- 주출입구 공간개선- 주출입구의 공간개선에 앞서 필요한 것은 제1주차장의 동쪽 출구에 대한 접근 문제임. 기념공원의 방문은 진입공간 초입 삼거리에서 주출입구로 이동하는 것보다 제1주차장 동쪽 출구쪽으로 좌회전하여 역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출입구에 대한 강제 동선을 고려하거나 주출입구의 위치를 바꾸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임(대부분의 외부 관람객은 정읍 방면에서 진입)
- 사발통문광장에 원반형 대형 사발통문 조형물의 설치에 의견은 관람 동선의 시작점 확보라는 점에의 좋은 제안으로 보이지만, 주차장과의 연계를 고려할 때 관람객이 그 조형에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음. 대부분 차량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차도 상부를 원형의 사발통문화 하는 방법이 유용할 수 있음- 제안을 구현하려면 방문자 센터를 중심에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고려할 사항

- 황토현 전적 일원 - 동학농민군과 관군 주둔과 전투지 전체를 포괄하는 계획 필요. 황토현 전투의 공간은 현 문화유산구역 남동쪽에 있는 사시봉, 매봉, 시루봉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구역임.- 장기적으로 도로에 의해 단절된 시루봉을 제외한 사시봉과 매봉과의 연결을 고려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 전체 영역을 확장하면 좋겠지만. 산책로 등의 연결을 통해서 황토현 전투의 역사성을 드러낼 수 있는 현장 교육장화하는 방안을 수립- 매봉 밑 캠핑장 남쪽 축사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현실적으로 필요함.
- 공간 전체 이동동선 계획- 본 정비계획안에 기념탑과 사적지, 그리고 박물관 등 전체를 연결하는 산책로 조성이 필요함. 기념공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념탑에 오르는 길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간이 노출되어서 이동이 어렵다는 점.- 공간 전체에 대한 관람 동선을 정비하고 동선 내에 대형 수종을 식재하는 등의 관람 편의성을 확보해야 하며, 관람 동선을 효율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조경과 관람 동선 내에 스토리를 담아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스토리 중심형 관람동선을 조성해야 할 것임.

